

연구보고 2020

#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고 동 완	(주)데이터트리븐
공동연구원	김 기 범	(주)데이터트리븐
(가나다순)	배 현 주	(주)비에이치에듀랩
	김 다 영	(주)커넥텀
	김 옥 빈	(주)커넥텀
	이 하 림	(주)데이터트리븐
	이 현 영	(주)데이터트리븐
	최 명 수	(주)데이터트리븐



# 차 례

## 제1장 연구배경과 목적\_1

## 제2장 조사방법\_7

1. 선행연구 및 설문지 구성 .....	9
1) 선행연구 .....	9
2) 설문지 구성 .....	14
가. 주관적 행복도(A) .....	15
나. 생활실태(B)와 배경변인(D) .....	24
다.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C) .....	28
2. 표집 .....	29
3. 데이터 분석방법 .....	31

### 제3장 청소년의 행복과 스트레스\_35

1. 주관적 행복도 .....	37
1)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	38
가. 현재/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	38
나. 삶의 만족도 .....	42
2) 행복지수 .....	55
가. 행복지수 산출 .....	55
나. 배경변인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	58
다. 행복지수 클러스터 분석 .....	60
2. 청소년 스트레스 .....	83
1) 스트레스와 부적응 .....	83
2) 집단별 스트레스 차이 분석 .....	85
3.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부적응 영역의 긍정/부정 .....	95

### 제4장 청소년 생활실태\_101

1. 여가활동 .....	103
2. 참여의식 .....	107
3. 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교육 경험 .....	111
1) 아르바이트 경험 .....	112

2)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 .....	114
3) 아르바이트 중 권리 침해 경험 .....	116
4) 노동·인권교육 경험 .....	119
4. 스마트폰 사용 실태 .....	121
1) 스마트폰 과의존 .....	121
2) 스마트폰 사용시간 자기조절 .....	123
3) 스마트폰 사용과 계획 차질 정도 .....	126
5. 체험활동 .....	129
1) 체험활동 참여 경험 .....	129
가. 건강·보건활동 .....	131
나. 과학정보활동 .....	133
다. 교류활동 .....	135
라. 모험개척활동 .....	136
마. 문화·예술활동 .....	138
바. 봉사활동 .....	140
사. 직업체험활동 .....	142
아. 환경보존활동 .....	144
자. 자기(인성)개발활동 .....	146
2) 체험활동 만족도 .....	148
3) 체험활동 선호도 .....	151
6. 독서활동 .....	152
1) 연간 독서량 .....	152
2) 독서활동 평가 .....	154

가. 독서량 충분도 .....	154
나. 독서 선호도 .....	157
7. 온라인 활동 .....	159
1) 온라인 활동 실태 .....	159
2) 온라인 이용 서비스 .....	167
3) 온라인 경험 .....	168

## 제5장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_171

1. 생활습관 변화 .....	173
2. 학습활동 .....	181
1) 온라인수업(원격수업)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	181
2) 온라인수업(원격수업) 도움 요청 대상 .....	183
3)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	185
4) 코로나-19 종식 후 학교 수업 방식 .....	187
3. 코로나 대응방식 .....	190
1) 코로나-19 확산 이후 힘든 부분 .....	190
2)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험한 감정 .....	192
3) 코로나-19 확산 이후 놀이 및 여가활동 장소 .....	193

제6장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_197

1.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의 인지도 .....	199
1)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의 인지도 .....	199
2) 2018/2020년 인지도 변화 .....	211
2.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의 활용도 .....	214
3.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5
4. 성남시청소년재단에의 요구 .....	230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_231

1. 요약 .....	233
1) 청소년의 행복과 스트레스 .....	234
2) 생활실태 .....	240
3)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 .....	243
4)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	246
2. 정책제언 .....	248
1)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의식 강화 .....	250
2)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와 지원 .....	251

3) 청소년 특성 및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53
4) 홍보 방법의 다각화 .....	258
5)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 .....	258
3. 연구의 한계 및 제안 .....	259

## 참고문헌\_261

## 부록\_265

1.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설문지 .....	267
-----------------------------------	-----



## 표 목차

<표 2-1> 기존 연구의 행복도 조사 문항 비교 .....	16
<표 2-2> 주관적 행복도(A) 영역의 문항 간 상관관계 (Pearson Correlation) .....	19
<표 2-3> 주관적 행복도(A) 영역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alpha$ ) .....	23
<표 2-4> 주관적 행복도(A) 문항 .....	24
<표 2-5> 성남시 청소년 실태 조사 문항 구성 비교표 (2016, 2018, 2020) .....	25
<표 2-6>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C) 영역 문항 .....	29
<표 2-7> 설문 응답자 개인 특성 분포 .....	30
<표 2-8> 최종 분석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2
<표 3-1>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	40
<표 3-2> 재단 시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	41
<표 3-3>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차이 .....	42
<표 3-4> 주요 변인별 삶의 만족도 .....	45
<표 3-5> 주관적 행복도(A) 문항 .....	56
<표 3-6> 배경변인별 행복지수 .....	59

<표 3-7> 성남시 청소년의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	61
<표 3-8> 초등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	65
<표 3-9> 중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	71
<표 3-10>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	78
<표 3-11> 스트레스와 부적응, 심리치료 요구 평균 .....	84
<표 3-12> 배경변인(학교급,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	92
<표 3-13> 배경변인(거주구별, 학교성적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	93
<표 3-14> 배경변인(가정경제사정, 재단시설이용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	94
<표 3-15> 삶의 만족도 영역의 긍정/부정(명, %) .....	95
<표 3-16> 스트레스·부적응 영역의 긍정/부정(명, %) .....	97
<표 4-1> 배경변인별 청소년 여가활동 만족도 .....	104
<표 4-2> 배경변인별 참여의식 .....	108
<표 4-3> 배경변인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명, %) .....	112
<표 4-4> 배경변인별 1주일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명, %) .....	114
<표 4-5> 아르바이트 중 부정적 경험(명, %) .....	117
<표 4-6> 노동·인권교육 경험(명, %) .....	119
<표 4-7> 스마트폰 사용과 과의존(명, %) .....	122
<표 4-8> 스마트폰 사용시간 자기조절(명, %) .....	124
<표 4-9> 스마트폰 사용과 계획 차질 정도(명, %) .....	127
<표 4-10> 청소년 체험활동 전체 참여도(명, %) .....	130

<표 4-11> 배경변인별 건강·보건활동 참여도(명, %) .....	131
<표 4-12> 배경변인별 과학정보활동 참여도(명, %) .....	133
<표 4-13> 배경변인별 교류활동 참여도(명, %) .....	135
<표 4-14> 배경변인별 모험개척활동 참여도(명, %) .....	137
<표 4-15> 배경변인별 문화·예술활동 참여도(명, %) .....	139
<표 4-16> 배경변인별 봉사활동 참여도(명, %) .....	141
<표 4-17> 배경변인별 직업체험활동 참여도(명, %) .....	143
<표 4-18> 배경변인별 환경보존활동 참여도(명, %) .....	145
<표 4-19> 배경변인별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도(명, %) .....	147
<표 4-20> 배경변인별 체험활동 만족도(명, %) .....	149
<표 4-21> 배경변인별 온/오프라인 체험활동 선호도(명, %) .....	152
<표 4-22> 연간 독서량(권) .....	153
<표 4-23> 배경변인에 따른 연간 독서량 .....	154
<표 4-24> 배경변인별 독서량 충분도(명, %) .....	155
<표 4-25> 배경변인별 독서 선호도(명, %) .....	157
<표 4-26> 온라인 활동 실태(명, %) .....	159
<표 4-27> 배경변인에 따른 온라인 활동 수준	
- 커뮤니케이션·소통 .....	162
<표 4-28> 배경변인에 따른 온라인 활동 수준	
- 자료 및 정보 획득 .....	163
<표 4-29> 배경변인에 따른 온라인 활동 수준-여가활동 .....	164
<표 4-30> 배경변인에 따른 온라인 활동 수준	
- 교육·학습 활동 .....	165

<표 4-31> 배경변인에 따른 온라인 활동 수준 - 크리에이터 활동(콘텐츠생산) .....	166
<표 4-32> 온라인 활동 이용 서비스 .....	167
<표 4-33> 온라인 활동 중 부정적 경험(명, %) .....	169
<표 5-1> 배경변인별 수면시간 증가 .....	176
<표 5-2> 배경변인별 정상적인 식사 여부 .....	177
<표 5-3> 배경변인별 신체활동 시간 감소 .....	178
<표 5-4> 배경변인별 전자기기 사용시간 증가 .....	179
<표 5-5> 배경변인별 무위(無爲)시간 증가 .....	180
<표 5-6> 온라인수업용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명, %) .....	181
<표 5-7> 온라인 수업 중 어려움 해결 요청(명, %) .....	184
<표 5-8> 코로나-19 전후 사교육 시간(명, %) .....	186
<표 5-9> 코로나-19 종식 후 선호하는 학교 수업 방식(명, %) ..	188
<표 5-10> 가정경제사정별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 (2가지 선택) .....	191
<표 5-11>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험한 감정 (2가지 선택) .....	193
<표 5-12> 학교급별 코로나-19 확산 이후 놀이 및 여가활동 장소 .....	194
<표 6-1>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명, %) .....	200
<표 6-2> 성남형교육지원단 인지도(명, %) .....	202

<표 6-3>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명, %) .....	204
<표 6-4> 청소년수련관 인지도(명, %) .....	206
<표 6-5>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명, %) .....	207
<표 6-6>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 인지도(명, %) .....	210
<표 6-7> 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 변화(2018/2020년, %) .....	213
<표 6-8> 배경변인별 성남시 청소년시설 활용도(건, %) .....	216
<표 6-9> 배경변인별 성남시 청소년시설 활동내용(건, %) .....	221
<표 6-10> 재단 시설 활용도 변인 간 상관관계 .....	226
<표 6-11> 재단 시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9
<표 7-1>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만족감(명, %) .....	235
<표 7-2> 성남시청소년재단 경영전략, 전략과제 및 정책제안 .....	249

## 그림 목차

[그림 3-1] 성남시 청소년의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	62
[그림 3-2] 초등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	66
[그림 3-3] 초등학생 클러스터별 주요 특성 .....	68
[그림 3-4] 초등학생 클러스터별 성별 분포(%) .....	69
[그림 3-5] 초등학생 클러스터별 거주구별 분포(%) .....	70
[그림 3-6] 중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	72
[그림 3-7] 중학생 클러스터별 주요 특성 .....	74
[그림 3-8] 중학생 클러스터별 성별 분포(%) .....	75
[그림 3-9]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거주구별 분포(%) .....	76
[그림 3-10]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	79
[그림 3-11]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주요 특성 .....	80
[그림 3-12]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성별 분포(%) .....	81
[그림 3-13]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거주구별 분포(%) .....	82
[그림 4-1] 배경변인별 여가 시간 충분도 .....	105
[그림 4-2] 배경변인별 여가 장소 충분도 .....	106
[그림 4-3] 배경변인별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 .....	107
[그림 4-4] 배경변인별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 .....	109
[그림 4-5] 배경변인별 투표 연령 인지도 .....	110
[그림 4-6] 배경변인별 투표 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 .....	111

# 제 1 장

## 연구배경과 목적





## 제1장 ■ 연구배경과 목적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007년 ‘성남시 청소년 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듬해 2008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출발하였다. 2013년, 현재와 같이 성남시청소년재단으로 재단명을 변경하고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비전으로 성남시 청소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식 함양과 평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청소년과 함께 지역사회 변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2020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운영 프로그램은 정부의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제6차 경기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기본으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실행 과제를 선정하고 진행 중이다. 특히 2008년부터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와 ‘행복지수 연구’ 등에서 분석한 지역 중심, 실제 요구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최창욱 외, 2018, p. 3), 연구와 정책 수립의 연계가 성남시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과제 수행, 성과 산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미래 사회의 주축인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청소년의 역량 교육과 삶의 질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와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하던 청소년 보호와 복지 기능이 약화되면서 청소년 양육, 보호와 교육 기능이 사회로 이양되는 추세인데, 이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력,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평등해야 할 청소년 보호와 복지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정책적으로 불평등을 보완할 필요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생활환경도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 왔는데, 스마트 기기와 활용 매체 다양화로 인해 스마트 기기 과의존, 부정적 매체 활용, 정보 격차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청소년의 유해 환경 노출 위험도 증가시킨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문화 전 방위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고,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초·중·고등학교의 등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면수업 대신 온라인수업,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의 병행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교사, 학부모, 보호자의 학습 지원 격차와 온라인 학습기기 보유 등 교육환경 차이, 변화에 대한 심리적 차이 등의 문제가 교육 격차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남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와 활동 실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변화를 조사하여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정책성과를 예측하고 보다 현

장성 강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 실태와 요구조사’가 성남시 청소년 정책의 연속성과 연동성을 확보한다는 점은 수차례 증명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남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를 조사하여 행복지수를 분석한다.

둘째, 성남시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서, 여가, 체험활동, 스마트폰과 온라인 활용, 독서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 시설 활용과 요구를 제시한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생활, 감정 변화를 조사한다.

넷째, 성남시 청소년 실태와 요구조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변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성남시 청소년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제2장

# 조사방법

1. 선행연구 및 설문지 구성
2. 표집
3. 데이터 분석방법



## 제2장 | 조사방법

### 1. 선행연구 및 설문지 구성

#### 1) 선행연구

최근 우리나라는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소확행 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삶의 질과 행복, 주관적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의 성장과 고도 자본주의로의 이행 속도에 반해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이 느끼는 행복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관적 웰빙은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평가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삶의 목적과 가치, 자율성을 전부 포함하는(심수진, 2016)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행복지수 연구 경향은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과정을 확인하는, 성인 위주의, 객관적 지표로 구성된 지표

체계에서, 청소년 관점에서, 청소년이 인지하는, 현재의, 주관적 지표를 보다 더 반영하는 지표체계로 이행하고 있다(오해섭 외, 2019; 오해섭 외, 2017, 이봉주, 2016).

2016년과 2018년에 진행한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sup>1)</sup>는 행복도나 주관적 웰빙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는 아니었으나, 성남시 청소년의 여가, 활동 및 참여, 보호 및 복지, 사회·진로·생활 및 정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각 영역의 하위요인과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도와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2016년과 2018년 실태조사 문항은 영역별로, 조사항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배경변인은 8개 항목으로 동일) 2016년에는 총 66개 문항, 2018년에는 총 207개 문항이 구성되었다(p.25, <표 2-5> 참고).

2018년 실태조사의 표집은 성남시 초·중·고등학생을 지역별, 학교급별로 할당표집하였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9개교, 중원구 9개교, 분당구 18개교로 할당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088명, 중학생 1,034명, 고등학생 943명, 총 3,307명이 참여했다.

2018년도 실태조사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여가실태는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활동과 참여실태는 건강보건활동 참여가 가장 많았고, 교류활동과 모험개척활동 참여

---

1) 최창욱, 성은모, 강경균, 송은영, 장성운, 박인경(2016); 최창욱, 성은모, 남화성, 이선근, 정은욱, 장미희, 김미영(2018).



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수련관 시설이 가장 높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가능한 자기<sup>2)</sup>, 자살생각 경험 여부로 나타났다.

한편 행복지수와 행복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2018 성남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지수 연구<sup>3)</sup>”는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행복지수 조사의 분석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행복지수를 도출하여 차이를 규명, 평가하고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니었으며, 비확률적 샘플링(non-probability sampling)<sup>4)</sup> 표본 추출로 연구결과의 정확성이 확보되지는 않았으나, 행복지수의 세부영역과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OECD 평균과 대한민국 평균, 성남시 청소년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 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18 성남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지수 연구”에서 행복지수는 유니세프 행복지수 산출모형<sup>5)</sup>을 활용, 재구조화하여 3개 세

---

2)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는 미래 상태에서의 자기를 독특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희망, 두려움을 나타내며,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하나의 틀과 가이드로서 기능한다.” (이지연, 2006)

3) 염유식, 노자은(2018).

4) 성남시 초·중학교 6개교를 편의적으로 표본 추출함. 유효표본수는 총 1,035 명으로 초등학교 5학년 304명, 중학교 1학년 352명, 중학교 3학년 382명으로 구성됨. 원도심/신도심 결과를 비교하고자 도심별로 각 3개교를 선정하였다.

5) 유니세프(2007) 청소년 행복지표: ①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미취업가정, 결핍, ②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예방접종, 사고사, ③ 교육: 학업성취, 교육 참여, 청소년 실업, 고용으로의 전환, ④ 가족과 친구관계: 가족구조, 부모관계, 친구관계, ⑤ 행위와 위험: 건강행동(증진행위), 위험행위, 폭력경험, ⑥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개인행복(오혜섭 외, 2019, p. 33, <표 II-10> 풀어서 기술)

부영역-① 주관적 행복, ② 가족과 친구관계, ③ 행동과 생활양식-을 설계하고, 우리나라와 경기도 평균과 비교하기 위해 ④ ‘안전과 권리’ 영역을 추가하였다. 각 세부영역별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p. 16, <표 2-1> 참고).

- ①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 상황 적응과 외롭지 않음 등 6개 구성요소
- ② 가족과 친구관계: 가족구조, 부모관계, 친구관계 등 3개 구성요소
- ③ 행동과 생활양식: 건강행동과 위험행위 2개 구성요소
- ④ 안전과 권리: 사고와 범죄, 전반적인 안전도, 영역별 권리 준중 정도와 전반적 권리보장 만족도 등 5개 구성요소

행복지수 산출 방법은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 이고 표준편차가 10 인 분포(Z-Score)를 가지도록 표준화하여 OECD, 우리나라 평균, 성남시 평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원자료 중 부정적인 질문은 역코딩하고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행복지수의 세부영역인 ‘주관적 행복’,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등 3개 영역에서 성남시 청소년은 대한민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특히 ‘주관적 행복’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 평균이 특히 낮게 나타난 원인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으로 표본이 성남시를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주관적 행복도의 6개 하위요소 중 ‘학교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안전과 권리 보장’ 만족지수는 대한민국과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오해섭 외(2019)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자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표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청소년 행복 관련 논문을 행복 관련 변인 위주로 분류하여 4개 영역과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였다(오해섭 외, 2019, pp. 27-29).

- ① 청소년 행복의 개인 영향 요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적·심리적 건강, 스트레스, 우울, 흡연·음주·약물 사용,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활동 만족도, 신체활동
- ② 청소년 행복의 가족 영향요인: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관계, 부모애착, 가족건강성, 가족기능
- ③ 청소년 행복의 학교 영향요인: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업성적
- ④ 청소년 행복의 사회 영향요인: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역량, 친사회적 행동, 지역사회 인식, 지역사회 만족도

그리고 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주관적 지표 9개(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와 객관적 지표 7개(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로 구분하고 문헌검토와 연구진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주관적 지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객관적 지표는 기 조사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관적 지표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8,426명이었고, 학교급별, 지역규모에 따라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sup>6)</sup> 방법으로 설계하고 후에 성별 가중치를 주었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가정경제수준, 인간관계, 안전, 건강, 학교생활, 지역사회 환경의 질, 삶, 청소년활동 여건, 참여권리 보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인간관계, 안전, 가정경제,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크게 4개의 대(大)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행복지수 산출을 위해 주관적인 행복의 정도(주관적 행복도)를 묻는 A영역으로, 이 부분은 2개의 주관식 문항과 2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중(中)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2개의 객관식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설계된 14개, 18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B영

---

6)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를 동질성 있는 하위집단이나 층으로 묶고 각 하위집단에서 적절한 수의 요소를 추출하고 그 요소별로 목록화와 표집을 반복수행하는 방법이다.

역은 여가, 참여, 보호와 복지, 스마트폰 사용경험을 묻는 생활실태 영역과 체험, 독서, 온라인 활동을 더한 4개의 중(中)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중(中)영역별로 서로 다른 수의 하위문항을 가지고 있으며 B영역은 3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37개의 개별 문항은 리커트 척도, 이분형 척도, 서술형 선택지를 포함한 객관식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C영역은 2020년 전 세계와 사회·경제·문화 전 생활 영역, 모든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C영역은 8개 상위문항, 12개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하위문항은 리커트, 이분형, 간단한 서술형 선택지를 포함한 객관식으로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D영역은 개인적 특성을 묻는 배경변인 영역으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sup>7)</sup>

#### 가. 주관적 행복도(A)

2019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sup>8)</sup>의 9개 영역-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의 기본 틀을 이용하되 “성남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지수 연구”<sup>9)</sup>에서 다룬 설문 문항들을 하위영역의 지표로 최대한

---

7) 배경변인 영역 앞에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의 인지도와 활용도, 재단에 요구사항을 묻는 4개 상위문항, 17개 하위문항의 실태조사 외 질문이 별도 추가되었다. 주관적 행복도(A), 생활실태(B), 코로나-19 생활변화(C) 영역의 문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설문지 구성’ 항목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8) 오해섭 외(2019).

9) 염유식, 노자은(2018).

포함하기로 하였다(<표 2-1> 참고).

그리고 2008년부터 2-3년 주기로 시행하는 “청소년 실태조사”<sup>10)</sup>의 행복 영향 요인과의 일관성, 비교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성실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전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신뢰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문항 수를 줄이면서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2-1> 기존 연구의 행복도 조사 문항 비교

2018 성남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지수 연구			201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영역	구성요소	세부영역	영역	세부지표
가족 과 친구 관계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주관 적 웰빙	전반적 삶의 만족도
		의붓 가정		정서상태
	부모관계	함께 식사		유데모니아 <sup>11)</sup>
		함께 대화		주관적 인식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성격 특성		
행동 과 생활 양식	건강행동	아침 식사	관계	전반적 관계 만족도
		과일 섭취		가족관계 만족도
		과체중		부모관계 만족도
		운동		교우관계 만족도
	위험행위	흡연/음주/마약		교사관계 만족도
섹스		이웃과의 만족도		
주관 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일반 신뢰도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 간의 대화시간
	개인행복	삶의 만족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부정적 생각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10) 최창욱 외(2016), 최창욱 외(2018).

11) 유데모니아(eudaimonia)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나온 개념으로 ‘좋은 삶(good life)’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유데모니아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삶에 대한 평가나 감정 상태보다 더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수진, 2016, p. 26; OECD, 2013, p.3 2).

2018 성남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지수 연구			201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영역	구성요소	세부영역	영역	세부지표	
안전 과 권리	사고	지역사회시설안전도	건강	전반적 건강 만족도	
		학교시설안전도		주관적 건강상태	
		교통사고안전		스트레스 정도	
		범죄안전		고(高) 카페인 이용량	
		음식물안전		아침 식사율	
	범죄	위기상황대처능력	교육	질병 유무	
		범죄피해가능성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CCTV구축인지정도		직업교육·체험 참여정도	
	전반적 안전도			교과과정 만족도	
	영역별 권리 존중 정도	가정		진로교육 만족도	
		학교	안전	전반적 안전 만족도	
		내가살고있는지역		학교시설 안전도	
		우리나라전체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사이버공간		범죄피해 위험 인식 정도	
	전반적권리보장만족도	위기 상황 대처능력			
					생활주변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
				참여	전반적 참여권리보장 만족도
					아동권리 인지
					징계 소명권
					학칙개정권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활동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여가활동 공간 만족도	
			경제	여가활동 용돈 만족도	
				놀이친구 접근성	
			환경	가정경제 만족도	
				지역사회환경의질에대한만족도	
				지역사회유해환경안전도	
				주택만족도	

최종적으로 본 조사의 주관적 행복도(A) 영역은 2019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sup>12)</sup>에서 규정한 ‘주관적 웰빙’(주관적 인식 포함), ‘관계’, ‘건강’(스트레스 포함), ‘교육’, ‘안전’, ‘참여’, ‘활동’(여가 포함), ‘경제’, ‘환경’ 등 9개 영역을 ‘주관적 웰빙’, ‘자아개념’, ‘관계’, ‘건강’, ‘외모 스트레스’, ‘교육/학습’, ‘안전’, ‘참여/활동’, ‘여가’, ‘경제/가정환경’ 등 10개 영역으로 재편하였고,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현재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요인을 수용하여(최창욱 외, 2018, pp. 177-178) ‘미래 진로 스트레스’ 요인을 추가, 총 11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행복도(A) 영역의 문항으로 설계한 31개 문항 간 상관관계와 신뢰도를 분석하여 주관적 행복도(A) 영역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1개 문항을 영역별 대표 문항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표 2-2>, <표 2-3>, <표 2-4> 참고).

기존에 수행되었던 5번의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와 설문조사 문항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엄격한 시계열 분석에 한계는 있으나, 주관적 행복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의 유사성은 확보하였으며, 신뢰도를 확보한 최소 문항을 설계하여 응답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응답 성실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번 문항과 분석 틀을 활용한다면 행복도의 변화와 추세, 분석 결과의 유의성을 판단할 자료로 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오해섭 외(2019).



<표 2-2> 주관적 행복도(A) 영역의 문항 간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a-3-1	a-3-2	a-3-3	a-3-4	a-3-5	a-3-6	a-3-7	a-3-8	a-3-9	a-3-10	a-3-11	a-3-12	a-3-13	a-3-14	a-4-1	a-4-2	a-4-3	a-4-4	a-4-5	a-4-6	a-4-7	a-4-8	a-4-9	a-4-13	b-1-1	b-1-2	b-1-3	b-2-1	b-2-2	b-2-3	f-2
a-3-1	1	.640**	.688**	.559**	.469**	.570**	.574**	.477**	.589**	.434**	.223**	.516**	.559**	.475**	-.547**	-.414**	-.393**	-.278**	-.408**	-.348**	-.409**	-.187**	-.448**	-.394**	.411**	.339**	.312**	.156**	.142**	.222**	.266**
a-3-2	.640**	1	.640**	.580**	.529**	.557**	.482**	.433**	.504**	.395**	.194**	.484**	.438**	.401**	-.398**	-.314**	-.344**	-.238**	-.391**	-.282**	-.307**	-.160**	-.499**	-.318**	.274**	.283**	.274**	.193**	.210**	.249**	.283**
a-3-3	.688**	.640**	1	.709**	.595**	.657**	.525**	.412**	.568**	.364**	.221**	.500**	.483**	.429**	-.485**	-.367**	-.413**	-.320**	-.488**	-.358**	-.352**	-.177**	-.479**	-.353**	.301**	.300**	.307**	.185**	.166**	.213**	.253**
a-3-4	.559**	.580**	.709**	1	.674**	.773**	.550**	.378**	.481**	.346**	.225**	.488**	.460**	.366**	-.412**	-.289**	-.357**	-.244**	-.383**	-.271**	-.266**	-.146**	-.392**	-.309**	.240**	.245**	.281**	.234**	.142**	.219**	.258**
a-3-5	.469**	.529**	.595**	.674**	1	.653**	.459**	.338**	.416**	.318**	.221**	.430**	.379**	.402**	-.345**	-.265**	-.305**	-.221**	-.333**	-.246**	-.252**	-.122**	-.337**	-.305**	.210**	.265**	.219**	.189**	.157**	.239**	.260**
a-3-6	.570**	.557**	.657**	.773**	.653**	1	.584**	.406**	.486**	.384**	.253**	.509**	.455**	.393**	-.410**	-.271**	-.347**	-.262**	-.362**	-.282**	-.295**	-.124**	-.361**	-.324**	.264**	.267**	.285**	.206**	.145**	.219**	.256**
a-3-7	.574**	.482**	.525**	.550**	.459**	.584**	1	.498**	.560**	.462**	.192**	.508**	.483**	.518**	-.376**	-.208**	-.400**	-.199**	-.289**	-.305**	-.405**	-.129**	-.306**	-.295**	.279**	.309**	.252**	.211**	.254**	.276**	.254**
a-3-8	.477**	.433**	.412**	.378**	.338**	.406**	.498**	1	.451**	.435**	.074**	.385**	.380**	.372**	-.381**	-.279**	-.298**	-.268**	-.283**	-.241**	-.273**	-.215**	-.362**	-.267**	.258**	.258**	.236**	.066	.160**	.193**	.253**
a-3-9	.589**	.504**	.568**	.481**	.416**	.486**	.560**	.451**	1	.423**	.196**	.501**	.474**	.421**	-.380**	-.284**	-.426**	-.215**	-.346**	-.287**	-.299**	-.195**	-.381**	-.396**	.293**	.337**	.296**	.159**	.226**	.250**	.235**

	a-3-1	a-3-2	a-3-3	a-3-4	a-3-5	a-3-6	a-3-7	a-3-8	a-3-9	a-3-10	a-3-11	a-3-12	a-3-13	a-3-14	a-4-1	a-4-2	a-4-3	a-4-4	a-4-5	a-4-6	a-4-7	a-4-8	a-4-9	a-4-13	b-1-1	b-1-2	b-1-3	b-2-1	b-2-2	b-2-3	f-2
a-3-10	.434**	.395**	.364**	.346**	.318**	.384**	.462**	.435**	.423**	1	.116**	.458**	.405**	.454**	-.261**	-.177**	-.244**	-.187**	-.240**	-.317**	-.291**	-.180**	-.252**	-.208**	.256**	.322**	.234**	.130**	.238**	.243**	.205**
a-3-11	.223**	.194**	.221**	.225**	.221**	.253**	.192**	.074**	.196**	.116**	1	.244**	.140**	.183**	-.061*	.018	-.078**	-.061*	-.062*	-.079**	-.106**	.207**	-.038	-.101**	.055*	.057*	.129**	.239**	.084*	.171**	.115**
a-3-12	.516**	.484**	.500**	.488**	.430**	.509**	.508**	.385**	.501**	.458**	.244**	1	.527**	.469**	-.329**	-.237**	-.315**	-.192**	-.280**	-.319**	-.324**	-.180**	-.335**	-.279**	.327**	.391**	.395**	.233**	.229**	.260**	.227**
a-3-13	.559**	.438**	.483**	.460**	.379**	.455**	.483**	.380**	.474**	.405**	.140**	.527**	1	.526**	-.385**	-.292**	-.309**	-.253**	-.330**	-.330**	-.365**	-.187**	-.308**	-.227**	.467**	.393**	.319**	.141**	.185**	.167**	.231**
a-3-14	.475**	.401**	.429**	.366**	.402**	.393**	.518**	.372**	.421**	.454**	.183**	.469**	.526**	1	-.351**	-.224**	-.287**	-.191**	-.292**	-.408**	-.485**	-.137**	-.266**	-.215**	.297**	.343**	.276**	.147**	.219**	.298**	.268**
a-4-1	-.547**	-.398**	-.485**	-.412**	-.345**	-.410**	-.376**	-.381**	-.380**	-.261**	-.061*	-.329**	-.385**	-.351**	1	.583**	.511**	.390**	.488**	.426**	.487**	.256**	.486**	.401**	-.340**	-.294**	-.298**	-.085*	-.041	-.110**	-.225**
a-4-2	-.414**	-.314**	-.367**	-.289**	-.265**	-.271**	-.208**	-.279**	-.284**	-.177**	.018	-.237**	-.292**	-.224**	.583**	1	.439**	.384**	.455**	.323**	.319**	.301**	.514**	.295**	-.374**	-.277**	-.274**	-.016	.032	.012	-.182**
a-4-3	-.393**	-.344**	-.413**	-.357**	-.305**	-.347**	-.400**	-.298**	-.426**	-.244**	-.078**	-.315**	-.309**	-.287**	.511**	.439**	1	.359**	.511**	.408**	.377**	.271**	.443**	.357**	-.235**	-.233**	-.202**	-.046	-.096**	-.082*	-.238**
a-4-4	-.278**	-.238**	-.320**	-.244**	-.221**	-.262**	-.199**	-.268**	-.215**	-.187**	-.061*	-.192**	-.253**	-.191**	.390**	.384**	.359**	1	.615**	.346**	.263**	.264**	.346**	.264**	-.218**	-.213**	-.182**	-.063	-.055	-.067	-.136**
a-4-5	-.408**	-.391**	-.488**	-.383**	-.333**	-.362**	-.289**	-.283**	-.346**	-.240**	-.062*	-.280**	-.330**	-.292**	.488**	.455**	.511**	.615**	1	.468**	.392**	.302**	.517**	.333**	-.261**	-.251**	-.225**	-.065	-.077*	-.069	-.255**

20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a-3-1	a-3-2	a-3-3	a-3-4	a-3-5	a-3-6	a-3-7	a-3-8	a-3-9	a-3-10	a-3-11	a-3-12	a-3-13	a-3-14	a-4-1	a-4-2	a-4-3	a-4-4	a-4-5	a-4-6	a-4-7	a-4-8	a-4-9	a-4-13	b-1-1	b-1-2	b-1-3	b-2-1	b-2-2	b-2-3	f-2
a-4-6	-.348**	-.282**	-.358**	-.271**	-.246**	-.282**	-.305**	-.241**	-.287**	-.317**	-.079**	-.319**	-.330**	-.408**	.426**	.323**	.408**	.346**	.468**	1	.544**	.275**	.393**	.275**	-.271**	-.317**	-.261**	-.093**	-.145**	-.161**	-.188**
a-4-7	-.409**	-.307**	-.352**	-.266**	-.252**	-.295**	-.405**	-.273**	-.299**	-.291**	-.106**	-.324**	-.365**	-.485**	.487**	.319**	.377**	.263**	.392**	.544**	1	.216**	.379**	.334**	-.303**	-.284**	-.237**	-.077*	-.150**	-.172**	-.202**
a-4-8	-.187**	-.160**	-.177**	-.146**	-.122**	-.124**	-.129**	-.215**	-.195**	-.180**	.207**	-.180**	-.187**	-.137**	.256**	.301**	.271**	.264**	.302**	.275**	.216**	1	.341**	.190**	-.164**	-.163**	-.131**	.029	-.100**	-.017	-.035
a-4-9	-.448**	-.499**	-.479**	-.392**	-.337**	-.361**	-.306**	-.362**	-.381**	-.252**	-.038	-.335**	-.308**	-.266**	.486**	.514**	.443**	.346**	.517**	.393**	.379**	.341**	1	.356**	-.280**	-.278**	-.300**	-.075*	-.072*	-.097**	-.248**
a-4-13	-.394**	-.318**	-.353**	-.309**	-.305**	-.324**	-.295**	-.267**	-.396**	-.208**	-.101**	-.279**	-.227**	-.215**	.401**	.295**	.357**	.264**	.333**	.275**	.334**	.190**	.356**	1	-.267**	-.254**	-.262**	-.064	-.096**	-.151**	-.210**
b-1-1	.411**	.274**	.301**	.240**	.210**	.264**	.279**	.258**	.293**	.256**	.055*	.327**	.467**	.297**	-.340**	-.374**	-.235**	-.218**	-.261**	-.271**	-.303**	-.164**	-.280**	-.267**	1	.559**	.454**	.122**	.196**	.199**	.173**
b-1-2	.339**	.283**	.300**	.245**	.265**	.267**	.309**	.258**	.337**	.322**	.057*	.391**	.393**	.343**	-.294**	-.277**	-.233**	-.213**	-.251**	-.317**	-.284**	-.163**	-.278**	-.254**	.559**	1	.623**	.222**	.214**	.253**	.188**
b-1-3	.312**	.274**	.307**	.281**	.219**	.285**	.252**	.236**	.296**	.234**	.129**	.395**	.319**	.276**	-.298**	-.274**	-.202**	-.182**	-.225**	-.261**	-.237**	-.131**	-.300**	-.262**	.454**	.623**	1	.237**	.175**	.212**	.174**
b-2-1	.156**	.193**	.185**	.234**	.189**	.206**	.211**	.066	.159**	.130**	.239**	.233**	.141**	.147**	-.085*	-.016	-.046	-.063	-.065	-.093**	-.077*	.029	-.075*	-.064	.122**	.222**	.237**	1	.271**	.383**	.134**
b-2-2	.142**	.210**	.166**	.142**	.157**	.145**	.254**	.160**	.226**	.238**	.084*	.229**	.185**	.219**	-.041	.032	-.096**	-.055	-.077*	-.145**	-.150**	-.100**	-.072*	-.096**	.196**	.214**	.175**	.271**	1	.531**	.119**

	a-3-1	a-3-2	a-3-3	a-3-4	a-3-5	a-3-6	a-3-7	a-3-8	a-3-9	a-3-10	a-3-11	a-3-12	a-3-13	a-3-14	a-4-1	a-4-2	a-4-3	a-4-4	a-4-5	a-4-6	a-4-7	a-4-8	a-4-9	a-4-13	b-1-1	b-1-2	b-1-3	b-2-1	b-2-2	b-2-3	f-2
b-2-3	.222**	.249**	.213**	.219**	.239**	.219**	.276**	.193**	.250**	.243**	.171**	.260**	.167**	.298**	-.110**	.012	-.082*	-.067	-.069	-.161**	-.172**	-.017	-.097**	-.151**	.199**	.253**	.212**	.383**	.531**	1	.145**
f-2	.266**	.283**	.253**	.258**	.260**	.256**	.254**	.253**	.235**	.205**	.115**	.227**	.231**	.268**	-.225**	-.182**	-.238**	-.136**	-.255**	-.188**	-.202**	-.035	-.248**	-.210**	.173**	.188**	.174**	.134**	.119**	.145**	1

a-3-1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주관적 웰빙) a-3-2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주관적 웰빙) a-3-3 자아만족감(자아개념) a-3-4 자기 인정(자아개념)  
a-3-5 자기유용성(자아개념) a-3-6 타인의 인정(자아개념) a-3-7 주변과의 관계(관계) a-3-8 주관적 건강(건강) a-3-9 학교생활 만족도(교육/학습)  
a-3-10 안전감(안전) a-3-11 환경문제 걱정(안전) a-3-12 참여 기회 충분도(참여/활동) a-3-13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여가)  
a-3-14 가정경제생활 만족도(경제/가정환경) a-4-1 전반적 스트레스(건강) a-4-2 학업 스트레스(교육/학습) a-4-3 친구관계 스트레스(관계)  
a-4-4 체중 스트레스(외모) a-4-5 외모 스트레스(외모) a-4-6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경제/가정환경)  
a-4-7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 스트레스(관계, 경제/가정환경) a-4-8 자연재해, 환경 스트레스(안전) a-4-9 미래 진로 스트레스(미래 진로)  
a-4-13 자퇴 욕구(교육/학습) b-1-1 여가시간 만족도(여가) b-1-2 여가장소 만족도(여가) b-1-3 여가 프로그램 만족도(여가)  
b-2-1 정치사회문제 관심(참여/활동) b-2-2 투표연령 인지(참여/활동) b-2-3 투표의지(참여/활동) f-2 평일 식사 충분도(건강)

<표 2-3> 주관적 행복도(A) 영역의 문항 신뢰도(Cronbach's  $\alpha$ )

영역	raw _alpha	std. alpha	G6 (smc)	average _r	S/N	asc	mean	sd (var.r)	median _r
건강/ 외모	0.745	0.740	0.710	0.416	2.853	0.009	3.763	0.920	0.386
a-3-8	0.762	0.762	0.701	0.517	3.206	0.010		0.016	0.498
a-4-1	0.687	0.675	0.628	0.409	2.079	0.012		0.044	0.300
a-4-4	0.658	0.657	0.573	0.389	1.913	0.013		0.010	0.370
a-4-5	0.613	0.618	0.524	0.350	1.615	0.015		0.004	0.370
경제/ 가정환경	0.579	0.592	0.421	0.421	1.452	0.019	4.168	0.857	0.421
a-3-14	0.421	0.421	0.177	0.421	NA	NA		0.421	0.421
a-4-6	0.177	0.421	NA	NA	NA	NA		0.177	0.421
관계	0.681	0.692	0.599	0.428	2.243	0.012	4.061	0.832	0.424
a-3-7	0.607	0.610	0.439	0.439	1.567	0.018		NA	0.439
a-4-3	0.585	0.596	0.424	0.424	1.472	0.019		NA	0.424
a-4-7	0.566	0.592	0.420	0.420	1.449	0.019		NA	0.420
교육/ 학습	0.543	0.562	0.468	0.299	1.281	0.018	3.683	0.919	0.283
a-3-9	0.373	0.373	0.229	0.229	0.594	0.029		NA	0.229
a-4-2	0.538	0.557	0.386	0.386	1.257	0.020		NA	0.386
a-4-13	0.426	0.441	0.283	0.283	0.788	0.026		NA	0.283
안전	0.276	0.246	0.226	0.098	0.326	0.027	3.431	0.733	0.202
a-3-10	0.333	0.335	0.202	0.202	0.505	0.031		NA	0.202
a-3-11	0.309	0.340	0.205	0.205	0.514	0.029		NA	0.205
a-4-8	-0.237	-0.253	-0.112	-0.112	-0.202	0.054		NA	-0.112
여가	0.788	0.785	0.754	0.477	3.654	0.008	3.747	0.870	0.477
a-3-13	0.793	0.793	0.729	0.561	3.828	0.008		0.007	0.569
b-1-1	0.715	0.708	0.652	0.447	2.427	0.011		0.030	0.383
b-1-2	0.686	0.688	0.607	0.423	2.201	0.012		0.009	0.470
b-1-3	0.734	0.734	0.659	0.479	2.753	0.010		0.009	0.483
자아개념	0.900	0.900	0.875	0.692	8.995	0.004	3.791	0.945	0.685
a-3-3	0.882	0.882	0.838	0.714	7.498	0.005		0.003	0.705
a-3-4	0.847	0.848	0.789	0.651	5.587	0.006		0.001	0.665
a-3-5	0.886	0.886	0.843	0.721	7.755	0.005		0.003	0.724
a-3-6	0.866	0.866	0.817	0.683	6.459	0.005		0.003	0.705
참여	0.622	0.629	0.576	0.298	1.694	0.014	3.905	0.795	0.261
a-3-12	0.617	0.633	0.550	0.365	1.723	0.015		0.013	0.344
b-2-1	0.589	0.587	0.510	0.321	1.420	0.016		0.021	0.258
b-2-2	0.525	0.528	0.433	0.272	1.119	0.019		0.004	0.258
b-2-3	0.468	0.476	0.378	0.232	0.908	0.021		0.001	0.220

<표 2-4> 주관적 행복도(A) 문항

대 영역	중 영역	코드	문항	비고
주관적 행복도	주관적 웰빙	a-3-2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안전	a-3-10	나는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참여	a-3-12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여가	a-3-13	내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자아개념	a-3-4	나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관계	a-3-7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가족, 친구 등)	
	건강	a-3-8	나는 건강상태가 좋다.	
	교육/ 학습	a-4-2	학업(숙제나 시험성적)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역코딩문항
	경제/ 가정환경	a-4-6	경제적 여건(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역코딩문항
	외모	a-4-5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역코딩문항
	미래진로	a-4-9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역코딩문항

#### 나. 생활실태(B)와 배경변인(D)

성남시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은 2008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수행한 “청소년 실태조사”<sup>13)</sup>의 영역 구성과 조사항목,

13) 최창욱 외(2016), 최창욱 외(2018).

설문 문항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단, 설문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동일한 선택지를 반복(Herzog & Bachman, 1981; 김권현 외, 2015, p. 4에서 재인용)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Galesic & Bosnjak, 2009; 김권현 외, 2015, p. 4에서 재인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이전 조사 결과 분석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거나 분석 결과의 의미가 크지 않았던 문항은 과감하게 제외하였다. 2016, 2018년의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문항과 본 연구의 설문 문항 비교는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성남시 청소년 실태 조사 문항 구성 비교표(2016, 2018, 2020)

대 영역	중 영역	조사항목	2016	2018	2020
여가	여가시간 활용실태	평일 여가활동 시간	1	1	1/2 <sup>a)</sup>
		평일 여가활동 장소	1	1	
		휴일 여가활동 시간	1	1	1/2 <sup>a)</sup>
		휴일 여가활동 장소	1	1	
		평일 여가활동 프로그램		1	
		휴일 여가활동 프로그램		1	
	여가시간 관련요구	성남시 여가활동 장소 충분 정도	1	1	1
		성남시 여가활동 프로그램 충분 정도	1	1	1
	여가 소개			6	8
활동/ 참여	활동 참여 현황 및 요구	9개 활동 참여 여부	9	9	9
		9개 활동별 참여시간	9	9	
		9개 활동별 만족도	9	9	1 <sup>b)</sup>
		9개 활동 중 선호도	3	3	4 <sup>c)</sup>
		활동 동반참가 희망자			
		활동참가에 따른 기대효과			
		청소년단체활동 여부	1		1

대 영역	중 영역	조사항목	2016	2018	2020	
활동/ 참여	활동기관 이용여부 및 요구	성남청소년재단 인지도	1	1	1	
		성남시 활동시설 인지도 및 이용여부	8			
		성남시 청소년시설·기관 인지도 및 이용경험		3	15	
		성남시 활동시설에 대한 요구	1	1	1	
	청소년 참여	토요일 주요 활동				
		6대 참여 영역별 참여정도	6	6		
		희망 참여활동	1	1		
		참여 희망 이유	1	1		
		참여 애로사항	1	1		
		참여 활성화 방안				
					<b>선거 참여의식</b>	3
활동/참여 소계			50	44	35	
보호/ 복지	보호	폭력 피해경험 유무 및 빈도	5			
		폭력 가해경험 유무 및 빈도	5			
		청소년 안전의식		9		
		청소년 안전사고 위험 인식		10	1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거리		1		
		안전사고 걱정거리 도움 받을 사람		1		
		스트레스	6	6	10	
		걱정거리	1	1		
		걱정거리 의논하는 사람	1	1		
		가출, 자퇴, 자살 경험	5	5	7	
	복지	아침 결식 일수와 이유	2	2		
		건강에 대한 자기평가	1	1	1	
		아르바이트 경험 및 횟수	1	1	2	
		아르바이트 인권침해 경험 및 횟수	1	1	1	
						<b>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b>
기관 인지도 및 요구	보호, 복지기관 인지도 및 이용도	5				
보호/복지 소계			33	39	23	



대 영역	중 영역	조사항목	2016	2018	2020	
사회/진로/생활/정서	학교생활	학교생활적응(학습생활,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8	8	1	
	진로의식	진로 인식	4			
		진로 설계		9		
	생활/태도	자이존중감	6	6	4	
		부모님과과의 대화시간 등	6	6		
		가정생활 만족도	1		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5	5	1	
		일상생활 만족도	1		2	
		행복 상태(현재와 미래)		1	2	
		삶의 만족도(현재와 미래)		7	12	
		<b>스마트폰 사용 실태</b>				3
		<b>독서 실태</b>				3
		<b>온라인 활동</b>				9
	정서발달	삶의 의지(Grit)		8		
삶의 역경극복 역량			20			
회복탄력성			35			
사회/진로/생활/정서 소계			27	106		
정책요구	-	정책 내용별 필요성				
정책요구 소계			0	0	0	
배경변인 (D)	개인특성	성별	1	1	1	
		학교급	1	1	1 <sup>d)</sup>	
		<b>출생연도</b>			1	
		거주지역 구(區)	1	1	1	
		성남 거주 기간	1	1	1	
		가정 경제수준	1	1	1	
		학교 성적	1	1	1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동거 여부	1	1		
		<b>평일 방과 후 보호자 재택 여부</b>			1	
		부모의 직업 유무	1	1		
		(학생 또는 보호자)연락처 <sup>a)</sup>			1	
배경변인 소계			8	8		

출처: 최창욱 외(2018). p. 77-79, <표 III-2> 재구성함.

- 굵은 글씨체는 이전 실태조사에는 없던 문항으로 2020년 처음 포함되었음.
- a)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여가 시간 충분도 질문, 두 문항을 합산하여 1개 문항으로 계산함.
- b) 이전 조사와 달리 9개 체험활동 각 영역별 만족도를 묻지 않고, 가장 좋았던 체험 활동을 고르도록 문항을 바꿈. 1개 문항 수로 계산함.
- c) 이전 조사에서는 선호하는 체험활동을 3순위까지 고르게 했으나, 본 조사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각 2순위씩 총 4개 활동을 선택하게 하여 문항 수를 4로 계산함.
- d) 학교급에 대한 질문은 온라인 설문조사 시작 단계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학교급 별로 설문지를 달리 배포하였음.
- e)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설문을 완료한 학생에게 설문 참여 사례를 지급할 목적으로 수집함.

#### 다.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C)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학교 등교를 포함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성남시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 전 세계 청소년의 정서적·신체적 활동과 시간·공간 사용 실태는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당연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실태조사는 이전의 실태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전 실태조사와의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생활실태 영역(B)에 추가하여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C)를 조사하기 위한 8개 문항을 추가하였다(<표 2-6> 참고).

<표 2-6>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C) 영역 문항

대 영역	중 영역	문항	문항 수
코로나-19 생활변화 (C)	전반적 생활변화	하루 평균 수면시간 증가 여부	5
		등교하지 않는 평일 점심 식사 만족 여부	
		신체활동 시간 감소 여부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시간 증가 여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 증가 여부	
	교육/ 격차	원격수업(온라인수업)을 위한 독점적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4
		원격수업(온라인수업)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 대상	
		학교 수업 외 사교육 시간 증감 여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등교, 수업 방식	
	심리/ 정서	가장 힘든 부분	2
		경험한 감정	
	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가활동 장소	1

## 2. 표집

본 연구는 성남시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거주구별(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시 외), 학교급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로 편의적 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을 적용하여 집단(학교)을 선정하였으나, 온라인 응답의 한계로 학교 내 표집이 지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총 2,000명의 표본수를 기대하였으나 코로나-19로 등

교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종 1,842명(92.1%)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betea.co.kr)에서 진행되었고, 일선 교사의 협조로 설문 참여를 독려, 본 설문 전에 참여 청소년의 동의를 구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의 개인 특성과 모집단의 크기와 비율은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설문 응답자 개인 특성 분포

구분	설문응답자		성남시 학령인구 (2020.10. 기준)		
	명	비율(%)	명	비율(%)	
학교급별	초등학교	556	30.2	49,042	48.4
	중학교	701	38.1	25,848	25.5
	고등학교	571	31.0	26,412	26.1
	학교 밖 청소년	14	0.8	-	-
	계	1,842	100.0	101,302	100.0
성별	남	925	50.2	51,980	51.3
	여	915	49.7	49,322	48.7
	무응답	2	0.1	-	-
	계	1,842	100.0	101,302	100.0
거주구별	수정구	376	20.4	20,357	20.1
	중원구	494	26.8	18,537	18.3
	분당구	825	44.8	62,408	61.6
	성남시 외	147	8.0	-	-
	계	1,842	100.0	101,302	100.0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701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571명(31.0%), 초등학생 556명(30.2%)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남시 학령인구의 학교급별 비율과 비교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적게 표집되고, 중학생이 과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14명(0.8%)이었다.

남녀 성비는 50.2%(925명):49.7%(915명)로 균형을 보였는데 성남시 학령인구의 성비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거주구별로 살펴보면, 분당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825명(4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원구 494명(26.8%), 수정구 376명(20.4%), 성남시 외 거주하는 청소년 147명(8.0%) 순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학령인구 중 거주구별 분포와 비교하면 중원구 거주 청소년이 과표집되었고,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적게 표집되었다.

거주구별, 학교급별,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살펴본 표본의 비율은 성남시 학령인구 전체의 변인별 비율과 비교해 다소 과소·과대 표집된 부분이 있어 모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크기와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값을 설정하였다.

### 3. 데이터 분석방법

총 1,862명의 응답 자료는 로그 기록과 설문 참여 사례 지급용으로 수집한 연락처 정보를 필터링하여 중복 응답을 제거하고, 한줄응답(1-1-1-1-1)과 같은 무성의 응답은 역코딩 문항의 응답과 주관식 응답의 성실도를 비교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복 응답과 무성의 응답 제거를 거쳐 총 1,500명의 응답 자료가 분석 대상으로 결

정되었다.

1,500명의 응답 자료는 <표 2-7>의 모집단의 거주구별, 학교급별, 성별 크기와 비율에 따라 가중값을 설정하였다. 단, 학교급별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거주구별에서 성남시 외 거주 청소년의 자료는 표본 수가 크지 않고 모집단에서의 크기와 비율이 정확하지 않아 별도 집단으로 설정하지 않았다<sup>14)</sup>. 즉, 가중값은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거주구별로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성별로는 남·여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표 2-8> 참고).

<표 2-8> 최종 분석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최종 분석 자료		
	명	비율(%)	
학교급별	초등학교	719	47.9
	중학교	368	24.6
	고등학교	413	27.5
	계	1,500	100.0
성별	남	772	51.5
	여	728	48.5
	계	1,500	100.0
거주구별	수정구	271	18.1
	중원구	280	18.7
	분당구	949	63.3
	계	1,500	100.0

가중값을 설정한 응답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거주구별, 학교급

14) [별책부록]으로 작성한 “기초조사표”에는 ‘성남시 외’ 청소년을 포함하였다.

별, 성별)과 연구진에서 설정한 독립변인(학교 성적, 가정 경제사정, 방과 후 보호자 재택 여부)에 따라 빈도분석(빈도, 비율)과 기술통계 분석(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진행하고,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사후검정 포함)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재단 운영시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은 SPSS(ver. 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특히 주관적 행복도(A) 영역의 행복지수 도출과 분석에는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행복지수의 유의한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고 변인과의 관계와 영향을 이해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에는 R(ver. Microsoft R Open 4.0.2), RStudio 1.3.1093 툴을 사용하였다.





## 제 3 장

# 청소년의 행복과 스트레스

1. 주관적 행복도
2. 청소년 스트레스
3.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부적응 영역의 긍정/부정



## 제3장 ■ 청소년의 행복과 스트레스

### 1. 주관적 행복도

주관적 행복도(A) 영역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 이미지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개방형 2개 문항(a-1, a-2)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리커트 척도 14개 문항(a-3-1에서 a-3-14까지),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 18개 문항(a-4-1에서 a-4-18까지)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a-3-1에서 a-3-14까지의 14개 문항의 분석 결과는 아래 ‘1)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와 ‘2) 행복지수’에서, a-4-1에서 a-4-18까지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련 18개 문항의 분석 결과는 ‘2. 청소년 스트레스’에서 다루기로 한다.

## 1)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 가. 현재/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성남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은 다음 <표 3-1>과 같이 나타났다.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전체 평균은 4.03(5점 만점),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4.09(5점 만점)로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 배경변인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과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모두 유의확률 0.000의 수치를 보여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은 거주구별 변인을 제외한 학교급별, 성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에서 나타나는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평균 차는 유의하지 않아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과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모두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여자 청소년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미래의 주

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주구별로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은 분당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평균이 4.04로 가장 높았고,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4.00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거주구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858$ ).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역시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 4.13으로 가장 높고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4.00으로 가장 낮았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볼 수 없었다( $p = .060$ ).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을수록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 .000$ ). 미래 주관적 행복감은 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4.40으로 가장 높고, 성적이 ‘안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3.62로 가장 낮았는데,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안 좋다’고 응답한 학생과 ‘안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좋은 편이다’와 ‘좋다’로 응답한 학생 간 평균 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안 좋다’, ‘안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로 응답한 학생과 ‘좋은 편이다’,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 .001$ ).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은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인 학생의 평균과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좋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p < .001$ ) ‘안 좋다’와 ‘안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정경제사정별로 살펴본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은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3.44로 가장 낮고 경제사정이 잘살수록 높아

지고 있었다.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은 경제사정이 좋아질수록 높아지고 있었는데,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모두 유의확률  $p=0.000$ 으로 경제사정별 행복감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3-1>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구분	현재 주관적 행복감		t/F	미래 주관적 행복감		t/F
	M	(SD)		M	(SD)	
전체	4.03	.963		4.09	.936	
학교급	초	4.21	23.369*** a>b,c	4.26	.851	24.388*** a>b,c
	중	3.87		3.93	.961	
	고	3.87		3.93	1.000	
성별	남	4.13	4.010***	4.16	.935	2.833**
	여	3.93		4.02	.932	
거주구	수정구	4.00	.153	4.00	.930	2.815
	중원구	4.03		4.03	.977	
	분당구	4.04		4.13	.923	
학교성적	안좋다	3.66	19.105*** a,b,c<d,e	3.76	1.127	33.234*** a,c<d<e b<c<d<e
	안좋은편이다	3.70		3.62	.986	
	보통이다	3.88		3.90	.948	
	좋은편이다	4.09		4.11	.859	
	좋다	4.26		4.40	.812	
가정경제사정	부족함	3.80	20.002*** b<c<d<e	3.57	1.214	23.438*** a<c b,c<d<e
	부족한편이다	3.44		3.64	.924	
	보통이다	3.87		3.93	.947	
	잘사는편이다	4.11		4.11	.881	
	잘산다	4.32		4.43	.852	

\* $p<.05$  \*\* $p<.01$  \*\*\* $p<.001$

추가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과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간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

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02명(60.1%)이었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98명(39.9%)이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4.06,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4.13이었고,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현재 주관적 행복감 평균은 3.99, 미래 주관적 행복감 평균은 4.0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의 유의성을 t검정하였고, 검정 결과 '재단 시설 이용 경험 여부'에 따라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유의확률 .04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표 3-2> 재단 시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구분	N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M	(SD)	t	p	M	(SD)	t	p
이용 경험 있음	902 (60.1%)	4.06	.962	-1.496	.135	4.13	.949	-2.000*	.046
이용 경험 없음	598 (39.9%)	3.99	.963			4.03	.912		

\* $p < .05$

마지막으로 성남시 청소년의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과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 차가 유의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성남시 청소년의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4.03,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4.09로 현재보다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남시 청소년은 현재에도 행복하고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3-3>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차이

구분	M	(SD)	t	p
현재 주관적 행복감	4.03	.963	-2.789**	.005
미래 주관적 행복감	4.09	.936		

\*\* $p < .01$

#### 나. 삶의 만족도

주요 변인에 따른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표 3-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하위 문항의 변인별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 간 평균 차가 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평균 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여자 청소년의 평균보다 대체로 높았고,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형편이 잘살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의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보다 높았다(안전감 하위영역 제외).

##### ① 자기만족도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자기만족도는 평균이 3.89(5점 만점)이었는데,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자기만족도 평균은 4.06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의 평균이 3.74, 중학생



의 평균이 3.74로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유사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4.03으로 여자 청소년의 평균 3.74보다 높았고,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3.93으로 가장 높고,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3.81로 가장 낮았다.

학교 성적별로는 ‘성적이 좋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자기만족도를 나타냈는데 ‘성적이 안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3.36으로 가장 낮았고, ‘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4.20으로 가장 높았다. 가정경제형편에 따른 자기만족도는 ‘잘 살’수록 높은 자기만족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자기만족도 평균은 ‘잘산다’로 응답한 집단(4.23)이었고, 가장 낮은 평균은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집단(3.25)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에 따른 자기만족도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3.91,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3.86으로,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평균 차는 아니었다.

## ② 자기 장점 인정

‘자신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자기 장점 인정 문항의 평균은 전체 3.76(5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3.81로 가장 높고 중학생의 평균이 3.69로 가장 낮았으나 고등학생의 평균 3.71과 큰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3.87로 여자 청소년의 평균 3.63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3.82로 가장 높고, 중원구 거주 청소년 3.64, 수정구 거주 청소년 3.64로 근소

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은’수록 자기 장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의 평균이 4.10으로 가장 높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의 평균이 3.30으로 가장 낮았다.

가정경제형편별로는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자기 장점을 인정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에 따른 자기 장점 인정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3.84)이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3.6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

### ③ 자기유용성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성남시 청소년 전체 평균은 3.90(5점 만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3.9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3.86, 고등학생 3.8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3.98로 여자 청소년의 평균 3.81보다 높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평균이 3.98로, 수정구 거주 청소년 3.80, 중원구 거주 청소년 3.72보다 높았다.

학교성적과 가정경제형편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형편이 잘살수록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3.93)이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3.85)보다 자신이 보다 유용한 사람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4> 주요 변인별 삶의 만족도

구분	자기 만족도	자기 장점 인정	자기 유용성	타인의 인정	주변 과의 관계	주관적 건강	학교 생활 만족도	안전감	환경 문제 걱정	참여 기회 충분도	전반적 여가 생활 만족도	가정 생활 만족도
전체	3.89	3.76	3.90	3.72	4.26	4.17	4.07	4.36	3.58	3.99	4.16	4.35
학교급	초등학교	4.06	3.81	3.95	3.73	4.35	4.35	4.43	3.54	4.04	4.27	4.42
	중학교	3.74	3.69	3.86	3.67	4.13	4.01	4.29	3.52	3.92	4.04	4.26
	고등학교	3.74	3.71	3.83	3.77	4.21	4.00	4.30	3.70	3.96	4.06	4.29
성별	남	4.03	3.87	3.98	3.80	4.29	4.18	4.41	3.56	3.99	4.20	4.32
	여	3.74	3.63	3.81	3.64	4.22	4.16	4.30	3.61	3.98	4.11	4.37

구분	자기 만족도	자기 장점 인정	자기 유용성	타인의 인정	주변 과의 관계	주관적 건강	학교 생활 만족도	안전감	환경 문제 걱정	참여 기회 충분도	전반적 여가 생활 만족도	가정 생활 만족도	
전체	3.89	3.76	3.90	3.72	4.26	4.17	4.07	4.36	3.58	3.99	4.16	4.35	
거주구별	수정구	3.81	3.64	3.80	3.59	4.27	4.11	4.03	4.23	3.41	3.87	4.08	4.23
	중원구	3.83	3.64	3.72	3.62	4.10	4.11	3.96	4.27	3.50	3.86	4.15	4.30
	분당구	3.93	3.82	3.98	3.79	4.30	4.20	4.11	4.42	3.66	4.06	4.18	4.39
학교성적	안좋다	3.36	3.30	3.44	3.31	3.90	3.94	3.60	4.26	3.38	3.58	3.97	4.16
	안좋은 편이다	3.45	3.32	3.55	3.35	3.93	3.66	3.52	4.13	3.36	3.70	3.86	4.06
	보통이다	3.71	3.55	3.73	3.51	4.13	4.05	3.91	4.22	3.56	3.85	4.00	4.20
	좋은 편이다	3.93	3.74	3.91	3.67	4.21	4.20	4.17	4.34	3.61	3.95	4.19	4.36
	좋다	4.20	4.10	4.18	4.07	4.52	4.41	4.34	4.55	3.67	4.25	4.37	4.55

구분	자기 만족도	자기 장점 인정	자기 유용성	타인의 인정	주변과의 관계	주관적 건강	학교 생활 만족도	안전감	환경 문제 걱정	참여 기회 충분도	전반적 여가 생활 만족도	가정 생활 만족도
전체	3.89	3.76	3.90	3.72	4.26	4.17	4.07	4.36	3.58	3.99	4.16	4.35
가정경제 형편	부족하다	3.35	3.27	3.23	3.35	3.74	3.95	4.43	3.25	3.65	3.94	3.71
	부족한 편이다	3.25	3.28	3.41	3.13	3.63	3.62	3.98	3.36	3.38	3.60	3.50
	보통이다	3.74	3.54	3.77	3.52	4.11	4.05	4.21	3.50	3.89	4.06	4.19
	잘사는 편이다	3.91	3.81	3.89	3.78	4.31	4.20	4.10	4.40	3.60	4.00	4.17
	잘산다	4.23	4.15	4.22	4.11	4.55	4.44	4.36	4.62	3.76	4.24	4.40
재단시설 이용경험 유무	이용경험 있음	3.91	3.84	3.93	3.79	4.31	4.12	4.34	3.62	4.03	4.18	4.37
	이용경험 없음	3.86	3.63	3.85	3.62	4.18	4.16	3.99	4.38	3.92	4.12	4.31
t	-0.779	-3.771***	-1.294	-3.266**	-2.912**	-0.365	-2.496*	0.842	-1.480	-2.151*	-1.250	-1.287

\* $p < .05$  \*\* $p < .01$  \*\*\* $p < .001$

#### ④ 타인의 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지’, 타인의 인정 정도를 묻는 문항의 성남시 청소년 전체 평균은 3.72(5점 만점)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평균이 3.77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3.73, 중학생 3.6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3.80으로 여자 청소년의 평균 3.64보다 높고,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고(3.79) 중원구 거주(3.62), 수정구 거주(3.59) 순이었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학교성적이 ‘안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은 3.31로 가장 낮았고, 학교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4.07로 월등히 높았다. 가정경제형편별로는 경제사정이 좋을수록 타인의 인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4.11로 가장 높았고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3.13으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의 이용 경험에 따른 평균은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3.79)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3.6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1$ ).

#### ⑤ 주변과의 관계

가족과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평균은 전체 4.26(5점 만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4.35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 4.21, 중학생 4.13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4.29로 여

자 청소년의 평균 4.22보다 높았으나 비교적 차이가 적었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4.30으로 가장 높고 수정구 거주 4.27, 중원구 거주 4.1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과 가정경제형편별로 살펴보면,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형편이 잘살수록 주변과의 관계를 높게 평가하였다. 학교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은 4.52, ‘안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은 3.90이었고, 가정경제형편이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은 4.55,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은 3.63이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4.31로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 4.18보다 높았고, 이 차이는 유의수준  $p<.01$ 에서 유의했다.

#### ⑥ 주관적 건강

청소년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성남시 청소년 전체 평균이 4.17(5점 만점)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평균 차는 거의 없었다(초등학생 4.35, 중학생 4.01, 고등학생 4.00).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4.18로 여자 청소년의 평균인 4.16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4.20으로 가장 높고 수정구 거주 4.11, 중원구 거주 4.11로 두 거주구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학교성적과 가정경제형편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형편이 잘살수록 주관적 건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는데,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의 평균은 4.41, ‘안 좋은 편’인 학생의 평균이 3.66이

었고, 가정경제형편이 ‘잘사는’ 청소년의 평균은 4.44, ‘부족한 편’인 청소년의 평균은 3.62로 나타났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은 4.18로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 4.16보다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는 아니었다.

#### ⑦ 학교생활 만족도

성남시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은 4.07(5점 만점)로 상당히 높았다.

주요 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4.24로 제일 높고, 고등학생의 평균이 3.9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85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4.14로 여자 청소년의 만족도 평균 3.99보다 높았고,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4.11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만족도 평균이 3.96으로 가장 낮았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았고, 가정경제형편별로는 잘살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은 4.34, ‘안 좋은 편’으로 응답한 학생의 평균은 3.52였고, 가정경제형편이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은 4.36, ‘부족한 편’이라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은 3.62였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운영시설 이용 경험별로는 이용 경험이 있는 청



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이 4.12로,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인 3.99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5$ ).

#### ⑧ 안전감

성남시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자연재해나 범죄로부터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4.36점/5점 만점), 안전감의 평균은 다른 주관적 행복감 하위문항의 평균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4.43으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 4.30, 중학생 4.29로 큰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4.41,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4.30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자신이 자연재해나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주구별 평균은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4.42로 다른 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보다 다소 높았고 중원구, 수정구 거주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27과 4.23으로 두 거주구 간 큰 차이는 없었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안전감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4.13으로 가장 낮았고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4.55로 가장 높았다. 가정경제형편별로는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3.98로 가장 낮았고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4.62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별로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4.34,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4.38로, 다른 하위문항과 달리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⑨ 환경문제 걱정

본 문항은 미세먼지와 공해 등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인데 성남시 청소년 전체 평균은 3.58(5점 만점)로 모든 하위 문항의 평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평균 3.0보다 높아 환경문제를 평균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54, 중학생 3.52, 고등학생의 평균이 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환경문제를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3.61로 남자 청소년의 평균 3.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3.66으로 가장 높았고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은 3.50,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3.41로 가장 낮았다.

학교성적별, 가정경제형편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형편이 잘살수록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정도가 높았다.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의 평균은 3.67이었고 ‘안 좋은 편’인 학생의 평균이 3.36으로 가장 낮았다. 가정경제형편이 ‘잘사는’ 청소년의 평균은 3.76, ‘부족한’ 청소년의 평균은 3.25로 나타났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으로 살펴보면,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3.62,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이 3.53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환경문제 걱정 평균이 높았으나, 두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⑪ 참여기회 충분도

이 문항은 가정과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기회가 충분한지 알아보는 하위문항으로, 성남시 청소년 전체 평균은 3.99(5점 만점)로 높은 편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4.04로 참여기회의 충분도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고등학생 3.96, 중학생 3.9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3.99,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3.98로 성별에 따라 참여기회 충분도에 큰 차이는 없었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4.06으로 가장 높았는데, 수정구 거주 3.87, 중원구 거주 3.86으로 두 거주구 간 충분도 평균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학교성적별, 가정경제형편별로는 다른 하위문항의 평균 분포와 마찬가지로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형편이 잘살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의 참여기회 충분도는 4.25, ‘안 좋은’ 학생의 평균은 3.58이었고, 가정경제형편이 ‘잘사는’ 청소년의 평균은 4.24, ‘부족한 편’인 청소년의 참여기회 충분도 평균은 3.38이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별로는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4.03,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이 3.92로,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가정·학교·사회 참여기회가 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두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5$ ).

#### ⑫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성남시 청소년 전체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4.16(5점 만점)으로 비교

적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4.2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은 각각 4.04와 4.06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4.20,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4.11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자신의 여가생활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4.18로 가장 높고, 중원구 거주 4.15, 수정구 거주 4.08 순으로, 거주구별로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의 만족도 평균이 4.37로 가장 높고 ‘안 좋은 편’인 학생의 만족도가 3.86로 가장 낮았다. 가정경제형편별로는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3.60으로 가장 낮았고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4.40으로 가장 높았는데, 다른 요인의 집단 간 평균 차와 비교해 평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별로는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4.18,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이 4.12였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⑬ 가정생활 불편도

이 하위문항은 본인의 가정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성남시 청소년 전체의 평균은 4.35(5점 만점)로 13개 하위문항의 평균 중 두 번째로 높았고(하위문항 평균 중 가장 높은 것은 ⑧ 안전감 4.36이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4.42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 4.29, 중학생 4.26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4.37,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4.32로, 다른 하위문항의 평균 경향과 다르게 여자 청소년의 만족도가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4.39로 가장 높았고, 중원구 거주 4.30, 수정구 거주 4.23 순으로 나타나 거주구별로 가정생활 만족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을수록 평균이 높았는데 학교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4.55로 가장 높고 ‘안 좋은 편’으로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4.06으로 가장 낮았다. 또 가정경제형편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4.65로 가장 높고,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3.50으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 유무별로 살펴보면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만족도가 4.37,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이 4.31로,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 가정에서의 생활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평균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 2) 행복지수

### 가. 행복지수 산출

제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조사의 주관적 행복도(A) 영역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sup>15)</sup>에서 규정

한 9개 영역을 ‘주관적 웰빙’, ‘자아개념’, ‘관계’, ‘건강’, ‘외모 스트레스’, ‘교육/학습’, ‘안전’, ‘참여/활동’, ‘여가’, ‘경제/가정환경’ 등 10개 영역으로 재편하고,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에서 청소년의 현재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sup>15)</sup>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요인을 수용하여 ‘미래 진로 스트레스’를 추가하면서 총 11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행복도(A) 영역의 문항으로 설계한 31개 문항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주관적 행복도(A) 영역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1개 문항을 영역별 대표 문항으로 선정하였다(p. 19, 제2장, <표 2-2>참고). 영역별 대표 문항은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주관적 행복도(A) 문항

대 영역	중 영역	코드	문항	비고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a-3-2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안전	a-3-10	나는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참여/활동	a-3-12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여가	a-3-13	내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5) 오해설 외(2019).

16) “... 결과적으로 볼 때, 현재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가능한 자기, 스트레스, 자살생각 경험여부, 건강에 대한 자기 평가, 부모님과의 활동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 (최창욱 외, 2018, p. 177).

대 영역	중 영역	코드	문항	비고
삶의 만족도	자아개념	a-3-4	나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관계	a-3-7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가족, 친구 등)	
	건강	a-3-8	나는 건강상태가 좋다.	
스트레스 부적응	교육/ 학습	a-4-2	학업(숙제나 시험성적)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역코딩문항
	경제/ 가정환경	a-4-6	경제적 여건(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역코딩문항
	외모	a-4-5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역코딩문항
	미래진로	a-4-9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역코딩문항

행복지수는 위 11개 문항의 리커트 척도 응답값(1-5점으로 분포)의 최솟값 1을 0점으로, 최댓값 5를 1점으로 환산하여 정규화시켰고, 정규화한 11개 문항을 모두 더하여 평균값을 내었다. 단,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역코딩 문항의 경우 응답값 3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역코딩하여(원 응답값 1점은 5점으로 코딩, 원 응답값 2점은 4점으로 코딩, 원 응답값 3점은 3점 그대로 코딩, 원 응답값 4점은 2점으로 코딩, 원 응답값 5점은 1점으로 코딩함) 0-1 정규화 계산법에 따라 정규화하였다. 응답자 개인의 행복지수는 설문지 설계상 가장 행복한 경우를 1로 놓고 가장 불행한 경우를 0으로 놓을 때 응답자의 위치로 해석할 수 있다.

## 나. 배경변인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전체 행복지수의 평균은 0.74(1점 만점)이었고 주요 변인에 따른 행복지수의 평균은 아래 <표 3-6>과 같이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0.7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이 각각 0.70과 0.70으로 거의 동일하였다. 집단 간 평균 차는 유의확률  $p=0.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행복지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76으로 여자 청소년의 행복지수 .72보다 높았고, 유의확률  $p=0.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75로 가장 높고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73,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7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을수록 행복지수의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교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행복지수 평균은 .81로 가장 높았고,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으로 응답한 학생의 평균은 .65로 가장 낮았다. 집단 간 평균 차는 유의확률  $p=0.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학교성적이 ‘안 좋은’ 학생과 ‘안 좋은 편’인 학생 간, ‘안 좋다’와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의 집단 간 평균 차는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집단 간 행복지수 평균 차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58로 가장 낮고 ‘잘산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p < .001$ ).

<표 3-6> 배경변인별 행복지수

구분	행복지수		t/F
	M	(SD)	
전체	.74	.171	
학교급	초	.78	51.432*** a>b,c
	중	.70	
	고	.70	
성별	남	.76	4.989***
	여	.72	
거주구	수정구	.72	2.811
	중원구	.73	
	분당구	.75	
학교성적	안좋다	.66	49.020*** b,a<c<d<e
	안좋은편이다	.65	
	보통이다	.69	
	좋은편이다	.74	
	좋다	.81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63	43.691*** b,a<d<e b<c
	부족한편이다	.58	
	보통이다	.70	
	잘사는편이다	.75	
	잘산다	.81	
재단시설 이용경험	경험 있음	.74	-1.168
	경험 없음	.73	

\* $p < .05$  \*\* $p < .01$  \*\*\* $p < .001$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행복지수가 .74,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행복지수 .73보다 높았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다. 행복지수 클러스터 분석

도출한 행복지수 데이터의 특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몇 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화할 때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청소년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 ① 성남시 전체 청소년의 행복도 클러스터 분석

성남시 청소년 전체 데이터는 2-6개의 클러스터로 집단화할 수 있었는데, 클러스터 대푯값의 차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클러스터 수는 5개였고, 5개 클러스터의 행복지수와 영역별 지수 분포는 다음 <표 3-7>, [그림 3-1]과 같다.

[클러스터 1]은 행복지수가 0.91로 5개 클러스터 중 가장 높았고, [클러스터 2]와 [클러스터 3]의 행복지수는 각각 0.70과 0.69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두 클러스터 간 차는 크지 않았다. [클러스터 4]의 행복지수는 0.62였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5]의 행복지수는 0.43으로 5개 클러스터 중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하면, 행복지수로만 판단할 때 [클러스터 1]이 상위에,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과 [클러스터 4]가 중위권을 형성하고, [클러스터 5]가 하위에 자리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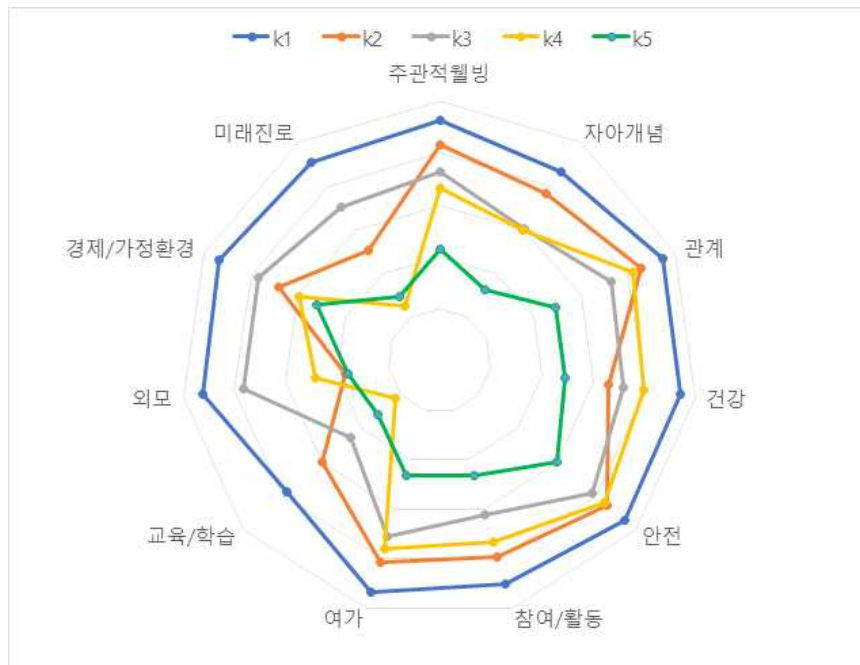
었다.

[클러스터 1-5]의 모든 클러스터에서 ‘안전’과 ‘관계’ 영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클러스터별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클러스터 1], [클러스터 3]과 [클러스터 4]에서는 ‘교육/학습’ 영역, [클러스터 2]에서는 ‘외모’ 영역, [클러스터 5]는 ‘미래진로’ 영역이었는데, 대체로 ‘교육/학습’, ‘미래진로’, ‘자아개념’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표 3-7> 성남시 청소년의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클러스터 행복지수 영역	k1	k2	k3	k4	k5	영역평균
주관적웰빙	0.93	0.83	0.73	0.67	0.43	0.72
자아개념	0.87	0.76	0.60	0.60	0.32	0.63
관계	<b>0.94</b>	<b>0.86</b>	0.73	<b>0.82</b>	0.49	<b>0.77</b>
건강	<b>0.94</b>	0.66	0.72	0.79	0.49	0.72
안전	<b>0.94</b>	<b>0.85</b>	<b>0.78</b>	<b>0.84</b>	<b>0.60</b>	<b>0.80</b>
참여/활동	0.90	0.79	0.62	0.73	0.47	0.70
여가	0.93	0.82	0.71	0.76	0.47	0.74
교육/학습	0.78	0.60	0.46	0.22	0.32	0.48
외모	0.92	0.37	<b>0.77</b>	0.49	0.36	0.58
경제/가정환경	<b>0.94</b>	0.68	<b>0.77</b>	0.60	<b>0.52</b>	0.70
미래진로	0.91	0.51	0.70	0.25	0.29	0.53
클러스터평균	<b>0.91</b>	0.70	0.69	0.62	0.43	0.67

[클러스터 1]은 5개 클러스터 중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0.91), 다른 클러스터와 비교해 11개 전 영역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영역별로는 ‘관계’, ‘안전’, ‘건강’, ‘경제/가정환경’ 영역이 모두 0.94로 가장 높았고(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관계’ 영역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음), ‘교육/학습’ 영역의 만족도가 0.78로 가장 낮았고, ‘자아개념’(0.87)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 성남시 청소년의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클러스터 2]는 행복지수가 0.70으로 5개 클러스터 중 두 번째로 높고, 중위권 그룹에서는 가장 높았으나 [클러스터 1]과의 지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영역별 만족도는 ‘관계’와 ‘안전’ 영역이 각각 0.86과 0.85로 높았고, ‘외모’ 영역이 0.37로 현저히 낮았다. 또 ‘미래진로’ 영역도 0.5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0.49로 크게 나타나 행복지수 하위영역 간 만족도가 고르지 않고 차이가 있었다.

[클러스터 3]은 행복지수가 0.69로 5개 클러스터 중 중간 수준이었다. ‘안전’ 영역의 만족도가 0.78로 가장 높았고, ‘교육/학습’ 영역의 만족도가 0.46으로 가장 낮았는데 ‘자아개념’(0.60)과 ‘참여/활동’(0.62) 영역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클러스터 4]는 행복지수가 0.62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안전’ 영역의 만족도가 0.84로 가장 높았고, ‘관계’ 영역의 만족도도 0.82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학습’ 영역의 만족도가 0.22로 가장 낮았고, ‘미래진로’ 영역도 0.25로 매우 낮았다. 특히 [클러스터 4]의 ‘교육/학습’(0.22)과 ‘미래진로’(0.25) 영역의 만족도는 전체 5개 클러스터의 11개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클러스터 3]과 비교하여 하위영역별로 비슷한 만족도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미래진로’ 영역에서 현저하게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참여/활동’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0.62로 5개 클러스터 중 가장 크게 나타나 하위영역 간 만족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5]의 행복지수는 0.43으로 5개 클러스터의 행복지수 중 가장 낮았다.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안전’(0.60)과 ‘경제/가

정환경’(0.52) 영역이었고,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미래진로’(0.29)와 ‘자아개념’(0.32)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가 0.31로 5개 클러스터 중 두 번째로 작았다([클러스터 1]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0.17로 가장 작음).

#### ② 학교급별 행복지수 클러스터 분석

보다 세분하여 학교급별로 클러스터를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는 2-3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화할 수 있었는데, 클러스터 대푯값의 차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클러스터 수는 각각 3개였다. 초·중·고등학생의 클러스터의 유형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으나, 성남시 청소년 전체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행복지수의 하위영역별로 ‘안전’ 영역의 지수가 가장 높고 ‘교육/학습’ 영역의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 ㉠ 초등학교

초등학생은 k값에 따라 3개의 유의한 클러스터로 군집화할 수 있었는데 [초-k1], [초-k2], [초-k3], 3개 클러스터의 행복지수와 영역별 만족도 분포는 다음 <표 3-8>, [그림 3-2]와 같다.

초-k1(N=197)은 3개 클러스터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고(0.59), 11개 전 영역에서 다른 초-k 클러스터와 비교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영역별로는 ‘안전’(0.73), ‘관계’(0.70), ‘건강’(0.70) 등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교육/학습’(0.37), ‘미래진로’(0.46) 영역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 11개 영역에서 만족도의 편차가 심해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는 0.36으로 초-k 클러스터 중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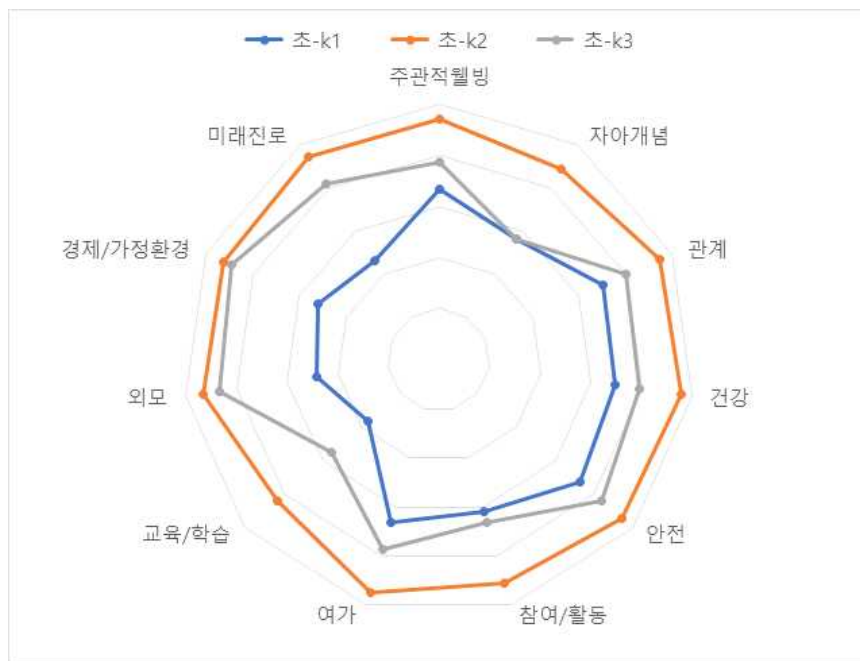
<표 3-8> 초등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클러스터 행복지수 영역	초-k1	초-k2	초-k3	영역평균
주관적웰빙	0.67	0.94	0.77	0.79
자아개념	0.56	0.88	0.56	0.67
관계	0.70	<b>0.95</b>	0.80	<b>0.82</b>
건강	0.70	<b>0.95</b>	0.79	<b>0.81</b>
안전	<b>0.73</b>	<b>0.95</b>	<b>0.84</b>	<b>0.84</b>
참여/활동	0.62	0.91	0.66	0.73
여가	0.66	<b>0.95</b>	0.77	0.79
교육/학습	0.37	0.84	0.55	0.59
외모	0.48	0.93	<b>0.86</b>	0.76
경제/가정환경	0.52	0.92	<b>0.89</b>	0.78
미래진로	0.46	<b>0.94</b>	0.82	0.74
클러스터평균	0.59	<b>0.92</b>	0.76	0.76

초-k2(N=308)는 행복지수가 0.92로 초-k 클러스터 중 가장 높았다. 영역별 만족도는 ‘건강’(0.95), ‘안전’(0.95), ‘관계’(0.95) 영역에서 가장 높았고, ‘교육/학습’(0.84), ‘자아개념’(0.88)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1개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고르게 높아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0.12로 초-k 클러스터 중 가장 작았다.

초-k3(N=213)은 행복지수가 0.76으로 초-k 클러스터의 중간에 분포되었다. 초-k2 클러스터와 비슷한 영역별 만족도 분포를 보였으며, ‘경제/가정환경’(0.89) 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외모’(0.86)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른 초-k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로 ‘교육/학습’(0.55), ‘자아개념’(0.56) 영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는 0.34로 다소 높았으나, 초-k 클러스터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초등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클러스터별로 주요 특징17)을 살펴보면, 다른 초-k 클러스터와 비교해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0.59), 하위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

17)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이슈와 정치 문제 관심도와 선거 참여 등 ‘참여의식’ 문항을 제외하여 ‘참여의식’은 클러스터별 주요 특징에서 제외하였다.



은 초-k1(N=197)은 클러스터별 학생 수가 가장 적었다. 초-k1(N=197)은 다른 두 클러스터에 비해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고, 가정경제사정도 부족한 편이었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었고, 재단시설의 활용 수준은 다른 초-k 클러스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초-k 클러스터 중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0.92), 전체 하위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초-k2(N=308)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초-k2(N=308)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학업성취와 가정경제사정이 초-k 클러스터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단 시설 활용 수준도 가장 높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는 초-k 클러스터 중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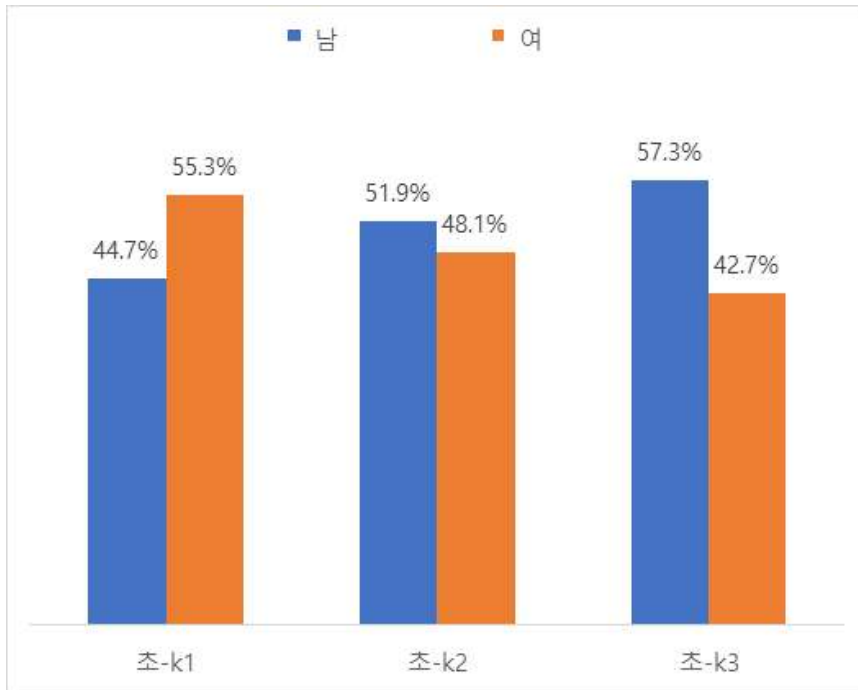
초-k3(N=213)은 다른 두 클러스터와 비교해 중간 수준의 행복지수(0.76)를 나타낸 집단으로 학업성적이나 가정경제사정, 재단 운영시설 참여,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 등에서 중간 정도의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어 초-k1, 초-k2에 비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세 클러스터 [초-k]는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사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에서 약간의 차가 나타났으나, 재단 운영시설의 활용 측면에서는 클러스터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그림 3-3] 참고).



[그림 3-3] 초등학교 클러스터별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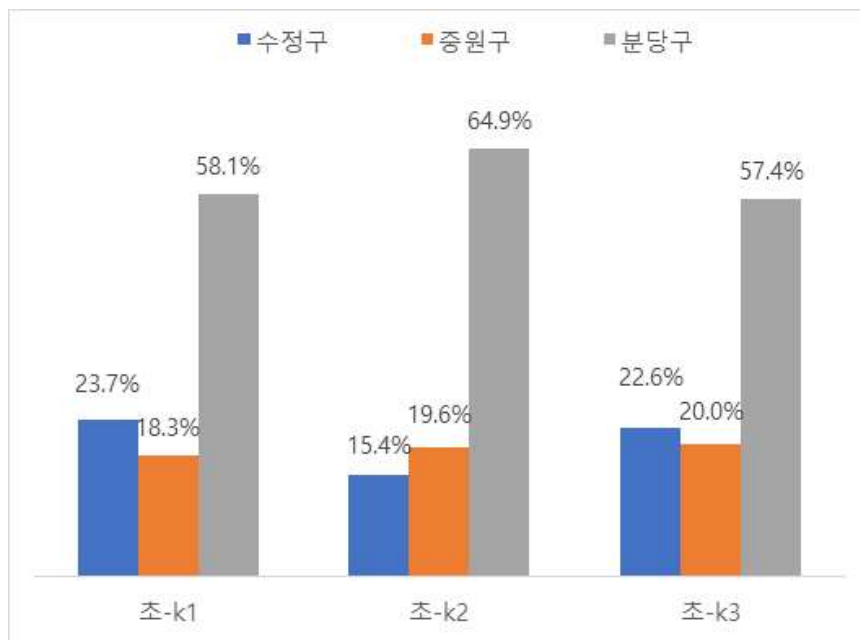
초-k 클러스터별 성별 구성은 다음 [그림 3-4]와 같다. 행복지수가 0.59로 가장 낮고 클러스터 학생 수도 가장 적은 초-k1(N=197)은 여학생의 비율이 55.3%로 남학생 44.7%보다 높았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0.92) 클러스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k2(N=308)는 남학생이 비율이 51.9%로 여학생 48.1%보다 다소 높았으나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행복지수가 초-k 클러스터의 중간 수준(0.76)인 초-k3(N=213)은 남학생의 비율이 57.3%로 여학생 42.7%에 비해 상당히 높아 초-k 클러스터 중 남녀 비율 차가 가장 컸다.



[그림 3-4] 초등학교 클러스터별 성별 분포(%)

초-k 클러스터를 거주구별로 살펴보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초-k1(N=197)에서는 수정구 거주 초등학생의 비율(23.7%)이 다른 초-k 클러스터에 비해 높고, 중원구 거주 초등학생의 비율(18.3%)이 낮았다. 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초-k2(N=308)의 경우 분당구 거주 초등학생의 비율(64.9%)이 다른 초-k 클러스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정구 거주 초등학생의 비율(15.4%)이 가장 낮았다. 초-k3(N=213)은

행복지수도 초-k 클러스터 중 중간 수준이었고, 수정구 거주 초등학생의 비율(22.6%)은 중간, 중원구와 분당구 거주 초등학생의 비율이 각각 20.0%, 57.4%로 가장 낮았다.



[그림 3-5] 초등학생 클러스터별 거주구별 분포(%)

### ㉠ 중학교

중학생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k값에 따라 3개의 유의한 클러스터로 군집화할 수 있었는데 [중-k1], [중-k2], [중-k3], 3개 클러스터의 행복지수와 영역별 만족도 분포는 다음 <표 3-9>, [그림 3-6]과 같다.

중-k 클러스터는 초-k 클러스터에서 나타난 만족도 분포가 더 강조되었는데, ‘안전’ 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교육/학습’ 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중-k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간 행복지수의 평균 차가 크지 않았고, 초-k 클러스터의 행복지수 분포와 비교하여 ‘미래진로’ 영역의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표 3-9> 중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클러스터 행복지수영역	중-k1	중-k2	중-k3	영역평균
주관적웰빙	0.80	0.89	0.51	0.73
자아개념	0.75	0.85	0.42	0.67
관계	0.85	0.89	<b>0.60</b>	<b>0.78</b>
건강	0.79	0.88	0.59	0.75
안전	<b>0.88</b>	<b>0.90</b>	<b>0.68</b>	<b>0.82</b>
참여/활동	0.78	0.87	0.54	0.73
여가	0.80	0.89	<b>0.59</b>	0.76
교육/학습	<i>0.29</i>	<i>0.77</i>	<i>0.33</i>	<i>0.46</i>
외모	0.62	0.88	0.42	0.64
경제/가정환경	0.78	<b>0.92</b>	0.55	0.75
미래진로	0.50	<b>0.90</b>	<i>0.32</i>	<i>0.57</i>
클러스터평균	0.71	<b>0.88</b>	<i>0.50</i>	0.70

중-k1(N=135)의 학생 수는 중-k 클러스터 중 가장 많았고, 다른 중-k 클러스터와 비교해 중간 수준의 행복지수와 하위영역별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안전’(0.88), ‘관계’(0.85), ‘여가’(0.80), ‘주관적 웰빙’(0.80) 등 영역에서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고, ‘교육/학습’(0.29) 영역의 만족도는 중-k1 클러스터 내 다른 10개 하위영역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중-k 클러스터의 모든 하위영역 만족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중-k3 클러스터의 ‘미래진로’(0.32)와 ‘교육/학습’(0.33) 영역의 만족도가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이로 인해 중-k1 클러스터의 최고값(0.88)과 최저값(0.29)의 차가 0.59로, 중-k 클러스터 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6] 중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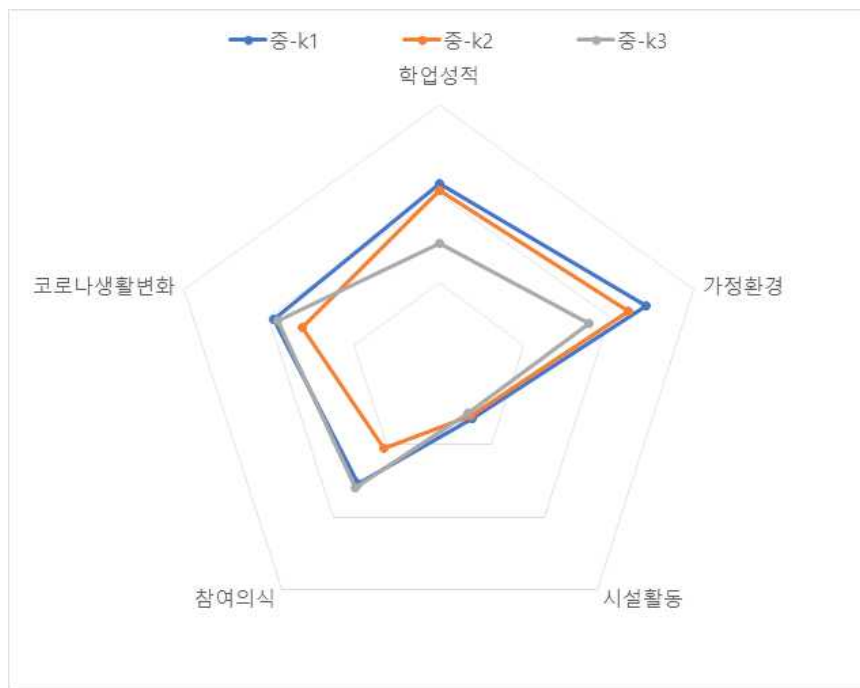
중-k2(N=117)는 행복지수(0.88)와 하위영역 만족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집단이었고,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0.16)도 중-k 클러스터 중 가장 작아 하위영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하위영역의 만족도는 ‘경제/가정환경’(0.92) 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안전’(0.90)과 ‘미래진로’(0.90)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학습’(0.77) 영역에서 가장 낮았다.

중-k3(N=115)은 다른 두 클러스터와 비교해 가장 낮은 행복지수(0.50)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11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나 특히 ‘미래진로’(0.32)와 ‘교육/학습’(0.33)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다른 중-k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안전’(0.68) 영역이었고, ‘관계’(0.60)와 ‘여가’(0.59) 영역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에서 중-k 클러스터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다른 주요 특성에 비해 재단 운영시설에 대한 활동 수준이 초등학생 클러스터 [초-k]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본격적인 학업으로 인해 여가시간과 참여활동 시간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중-k1(N=135)은 중-k 클러스터 중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행복지수가 중-k 클러스터의 중간 수준(0.71)이며 ‘교육/학습’과 ‘미래진로’ 영역을 제외하고 하위영역 간 비교적 고른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이다. 다른 중-k 클러스터와 비교해 가정경제사정이 가장 잘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식과 학업성적,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는 중간 수준이었고, 재단 운영시설 활용 수준은 중-k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 중학생 클러스터별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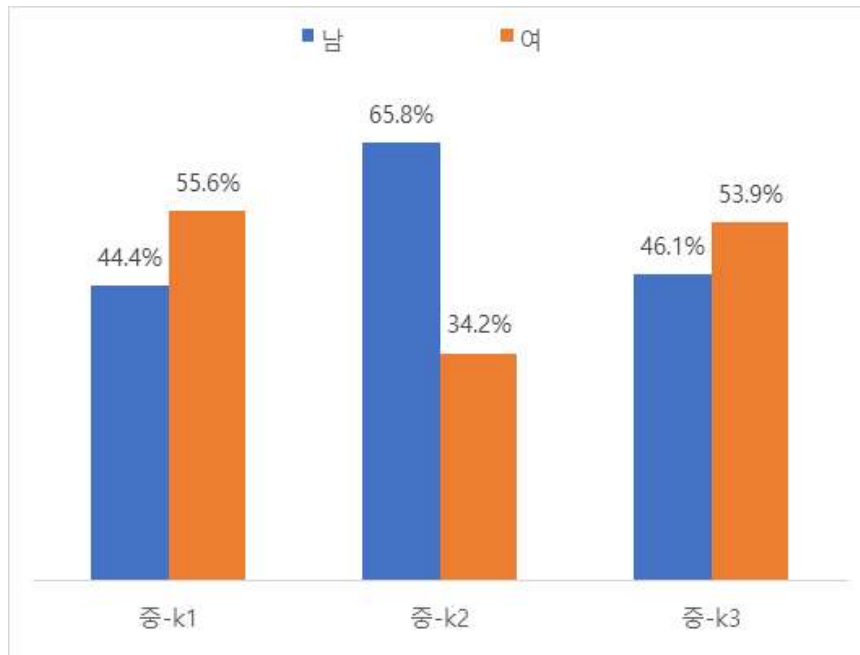
중-k2(N=117)는 중-k 클러스터 중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학업성적과 재단 운영시설 활용이 가장 좋고, 가정경제사정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의식이 중-k 클러스터 중 가장 낮았고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를 가장 덜 겪고 있었다.

중-k3(N=115)은 중-k 클러스터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0.50) 집단으로, 클러스터 학생 수가 중-k2, N=117과 거의 비슷했다.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사정이 중-k1, 중-k2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고, 재단 운영



시설 활용 정도도 가장 낮았다. 그러나 참여의식과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 정도는 중-k 클러스터 중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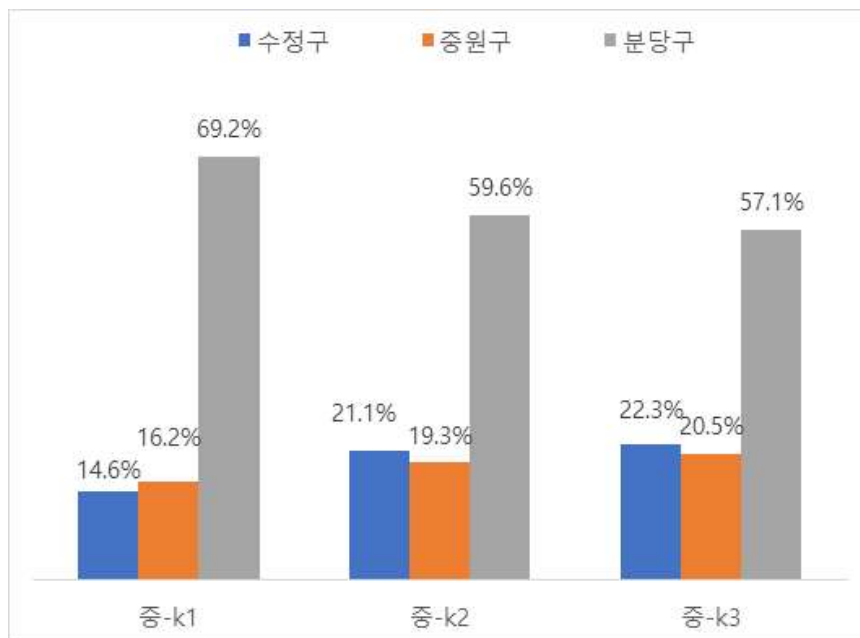
중학생 클러스터 중-k의 성별 구성은 다음 [그림 3-8]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3-8] 중학생 클러스터별 성별 분포(%)

남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중-k2(N=117)의 행복지수는 중-k 클러스터 중 가장 높았고, 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중-k1(N=135)은 행복지수가 중간 수준이며,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지만 그 차

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k3(N=115)은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중-k 클러스터 군집화와 성별 분포는 연관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9]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거주구별 분포(%)

한편 거주구별로 중-k 클러스터의 분포를 살펴보면, 행복지수가 중간 수준이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중-k1(N=135)의 경우 분당구, 증원구, 수정구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다른 중-k2, 중-k3 클러스터에 비해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비율(69.2%)이 가장 높았다. 행복지수가 가

장 높은 중-k2(N=117)와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중-k3(N=115)은 거주구별 비율이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거주구별 분포 차이는 중학생의 클러스터 중-k의 범주별 특성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㉔ 고등학교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도 k값에 따라 3개의 유의한 클러스터로 군집화할 수 있었는데 [고-k1], [고-k2], [고-k3], 3개 클러스터의 행복지수와 영역별 만족도 분포는 다음 <표 3-10>, [그림 3-10]과 같다.

고-k1(N=148)은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0.53) 전 하위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고-k 클러스터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았고, ‘안전’(0.69) 영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교육/학습’(0.36)과 ‘미래진로’(0.36) 영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하위영역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는 0.33으로 고-k2보다 적고 고-k3보다 크게 나타났다.

고-k2(N=145)는 고-k 클러스터 중 행복지수가 0.71로 중간 수준이었다. 하위영역 중 ‘안전’(0.90), ‘관계’(0.88), ‘건강’(0.82) 영역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학습’(0.27) 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학습’ 하위영역의 만족도 0.27은 초·중·고등학생 모든 클러스터의 하위영역 만족도 중 가장 낮았고, 이로 인해 고-k3 클러스터 하위영역 만족도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안전’ 0.90 - ‘교육/학습’ 0.27)도 0.62로 초·중·고등학교 모든 클러스터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3-10>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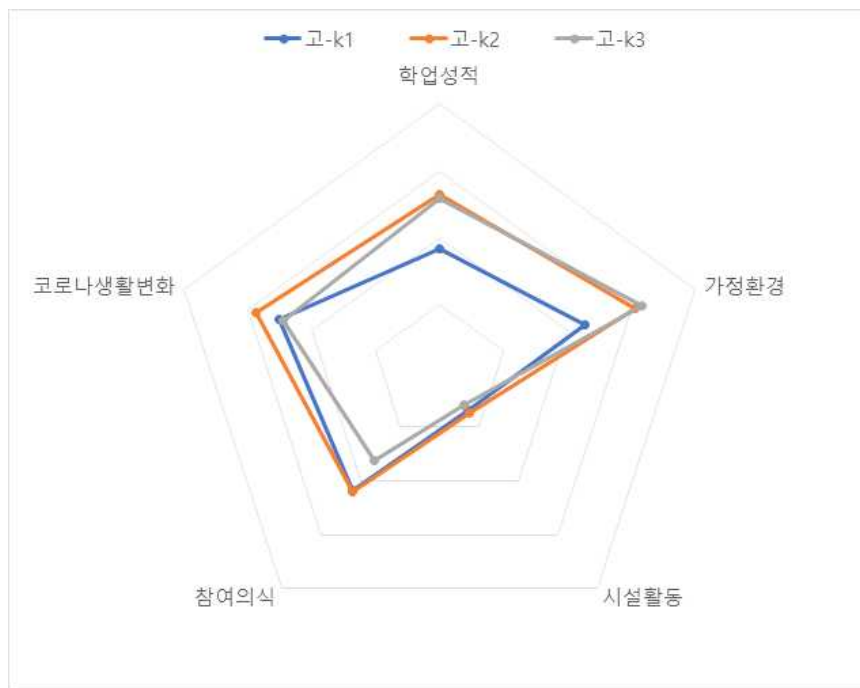
클러스터 행복지수영역	고-k1	고-k2	고-k3	영역평균
주관적웰빙	0.55	0.80	<b>0.91</b>	0.75
자아개념	0.46	0.76	0.87	0.70
관계	<b>0.64</b>	<b>0.88</b>	<b>0.92</b>	0.82
건강	0.58	0.82	0.90	0.77
안전	<b>0.69</b>	<b>0.90</b>	0.92	<b>0.84</b>
참여/활동	0.60	0.79	0.87	0.75
여가	0.62	0.81	<b>0.92</b>	0.78
교육/학습	<i>0.36</i>	<i>0.27</i>	<i>0.78</i>	0.47
외모	0.43	0.63	0.88	0.65
경제/가정환경	0.59	0.78	<b>0.93</b>	0.76
미래진로	<i>0.36</i>	<i>0.40</i>	<i>0.85</i>	0.54
클러스터평균	<i>0.53</i>	0.71	<b>0.89</b>	0.71

고-k 클러스터 중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고-k3(N=119)은 행복지수가 0.89로 가장 높았다. 하위영역 중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경제/가정환경’(0.93), ‘관계’(0.92), ‘안전’(0.74) 영역이었고,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교육/환경’(0.78), ‘미래진로’(0.85) 영역이었다. 하위영역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는 0.15로 고-k 클러스터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행복지수

고-k 클러스터의 주요 특성은 중-k 클러스터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한데, 중-k 클러스터의 주요 특성에서도 확인했던 것과 같이 재단 운영시설 활용 수준은 초-k 클러스터와 비교해 현저히 낮고 중-k 클러스터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재단 운영시설 활용도는 다른 주요 특성과 비교하면 그 수준 차이가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데,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단 운영시설을 찾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3-11] 고등학교 클러스터별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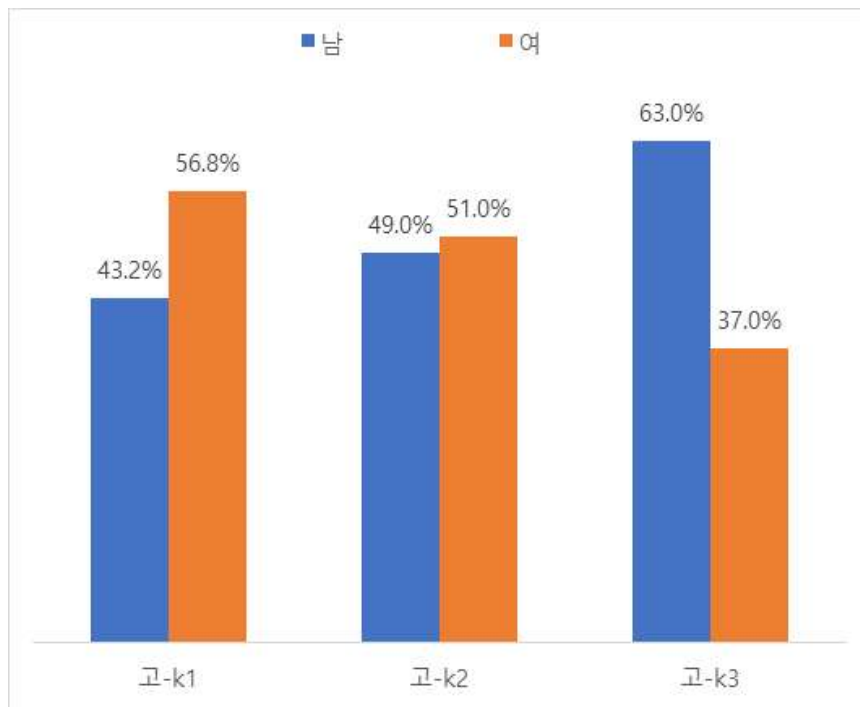
고-k1(N=148) 클러스터는 행복지수(0.53)와 하위영역의 만족도가 고-k 클러스터 중 가장 낮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집단으로,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사정이 고-k 클러스터 중 가장 낮았고,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의식과 재단 운영시설 활용 수준은 다른 고-k 클러스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k2(N=145)는 고-k 클러스터 중 행복지수와 하위영역의 만족도가 고-k1과 고-k3의 중간 수준인 집단으로, 학업성적과 코로나로 인한 생

활변화 수준이 제일 높았고, 재단 운영시설 활용과 참여의식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경제사정은 중간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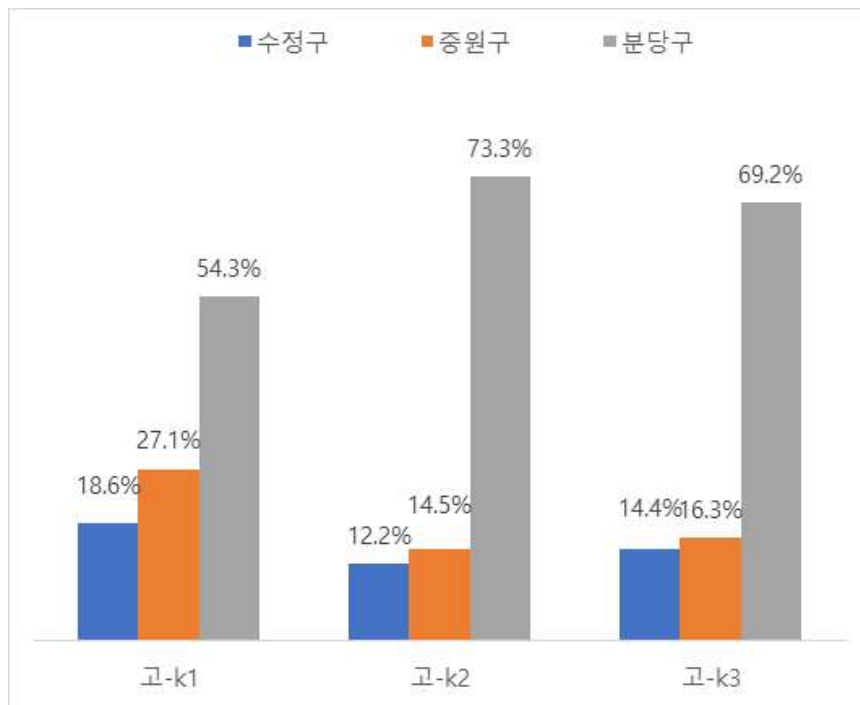
고-k3(N=119) 클러스터는 학생 수가 가장 적고, 행복지수가 0.89로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사정은 높은 수준이었고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재단 운영시설 활용 수준과 참여의식은 고-k 클러스터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등-클러스터의 성별 구성은 다음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2]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성별 분포(%)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0.53)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고-k1(N=148) 클러스터의 남녀 성비는 남학생이 43.2%, 여학생이 56.8%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행복지수(0.71)가 중간 수준인 고-k2(N=145)은 남학생이 49.0%, 여학생이 51.0%로 성비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행복지수(0.89)가 고-k 클러스터 중 가장 높고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고-k3(N=119)의 성비는 남학생 63.0%, 여학생 37.0%로 남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림 3-13] 고등학생 클러스터별 거주구별 분포(%)



고-k 클러스터를 거주구별로 살펴보면, 고-k1, 고-k2, 고-k3 모두 수정구 거주 청소년 비율(고-k1 18.6%, 고-k2 12.2%, 고-k3 14.4%)이 가장 낮고, 중원구 거주 청소년 비율(고-k1 27.1%, 고-k2 14.5%, 고-k3 16.3%)이 수정구 비율보다 다소 높았으며,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고-k1 54.3%, 고-k2 73.3%, 고-k3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고-k 클러스터의 거주구별 분포는 클러스터 간 차이가 크지 않아 고-k 클러스터 군집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청소년 스트레스

### 1) 스트레스와 부적응

성남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상담 요구 조사 결과는 다음 <표 3-11>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스트레스도는 2.40(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보통’ 미만으로 스트레스·부적응 관련 심리적으로 건강한 편이었다.

스트레스 유형별로 가장 높은 평균은 숙제나 시험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2.85) 영역이었고, 진로 불확실로 인한 스트레스도 2.3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모관계와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1.76)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1.90)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스트레스 대처(해소) 방법을 알고 있다’는 문항의 평균은

3.12로 과반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1> 스트레스와 부적응, 심리치료 요구 평균

구분	평균*
스트레스 부적응 전체	<b>2.40</b>
학업 스트레스	<b>2.85</b>
교우관계 스트레스	2.13
체중 스트레스	2.34
외모 스트레스	2.17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	1.90
부모관계 가정환경 스트레스	1.76
자연재해 스트레스	2.38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2.39
스트레스 해소법 인지	<b>3.12</b>
가출욕구	1.95
가출경험	1.28
자퇴욕구(초등제외)	2.13
자해욕구(초등제외)	1.59
자해경험(초등제외)	1.38
자살욕구	1.59
자살시도	1.21
상담심리치료 요구도	1.60

\*5점 만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 2) 집단별 스트레스 차이 분석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 배경변인과 재단 시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심층 분석을 진행하여 <표 3-12>에서 <표 3-14>의 결과를 얻었다.

① 스트레스·부적응 전체 항목은 학교급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즉,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고, 성별과 거주구별, 재단시설 이용 경험은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② 학업 스트레스는 재단시설 이용 경험을 제외한 학교급별( $p<.001$ ), 성별( $p<.001$ ), 거주구별( $p<.01$ ), 학교성적별( $p<.001$ ), 가정경제사정별( $p<.001$ ) 배경변인 전체에서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를 보였는데, 학교급이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 또 학교성적이 안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편일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학교급별, 성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 변인에서 유의수준  $p<.001$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거주구별과 재단시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평균에 차이가 없었다. 즉 학교급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④ 체중과 ⑤ 외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유사한 평균 분포를 보였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체중과 외모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았다. 학교급 간 체중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는 유의수준  $p<.01$ 에서, 외모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체중과 외모 스트레스가 남학생의 스트레스 수준들보다 높았고( $p<.001$ ), 거주구별 체중 스트레스는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외모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인 학생이, 가정경제사정이 어려운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체중과 외모로부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학교성적별 체중 스트레스 유의수준  $p<.01$ , 학교성적별 외모 스트레스, 가정경제사정별 체중과 외모 스트레스  $p<.001$ ). 재단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체중과 외모 스트레스 평균이 재단 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체중과 외모 스트레스 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⑥ 경제적 여건 부족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학교급별로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01$ ),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았고, 수정구와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하게 높았다( $p<.01$ ). 학교성적과 가정경제사정은 경제적 여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 $p < .001$ ),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경제적 여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단 이용 경험 유무는 경제적 여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⑦ 부모님과과의 관계와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교급별로 유의한 평균 차가 있었는데( $p < .001$ ),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보다 낮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 평균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1.71)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는데(1.86), 이 차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잘살수록 부모관계와 가정환경에 기인한 스트레스는 낮았다( $p < .001$ ). 단, 재단 시설 이용 경험 유무는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⑧ 전염병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의 스트레스는 학교급별( $p < .05$ ), 학교성적별( $p < .01$ ), 가정경제사정별( $p < .001$ )로 집단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거주구별, 재단 시설 이용 경험 유무 등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환경문제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았다. 또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인 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았고(2.64),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자연재해 스트레스가 3.00으로 가장 높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1.99로 가장 낮았다( $p < .001$ ).

⑨ 진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주구별 배경변인과 재단시설 이용 경험 유무를 제외한 학교급별, 성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이상  $p<.001$ ) 배경변인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이, 가정경제사정이 ‘잘사는’ 학생의 스트레스가 낮았다.

⑩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학교성적별( $p<.01$ ) 배경변인과 가정경제사정별( $p<.05$ )로 집단 간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었다.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더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⑪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문항의 평균은 학교급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었으나( $p<.001$ ), 성별, 거주구별, 재단 시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가출 욕구가 가장 낮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가출욕구는 낮게(‘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가출욕구가 가장 높았다)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재단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출욕구 평균(1.98)이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1.9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⑫ 가출 경험은 거주구별 배경변인과 재단 시설 이용 경험 유무를 제외한 학교급별( $p<.001$ ), 성별( $p<.05$ ), 학교성적별( $p<.001$ ), 가정경제사정별( $p<.001$ ) 변인에 따라 집단 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별 평균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았고, 남학생의 평균이 여

학생의 평균보다 높았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가출 경험 수준이 높았고,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할수록 가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단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출경험 평균은 1.30으로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 1.24보다 높았으나 이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⑬ 자퇴욕구를 묻는 부적응 문항은 초등학생을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평균이 1.83, 고등학생의 평균이 2.39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퇴욕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퇴욕구가 높았고( $1.96<2.30, p<.01$ ), 거주구별로는 자퇴욕구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의 자퇴욕구가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그러나 가정경제사정별, 재단시설 이용 경험 유무별로는 집단 간 평균에 유의한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⑭ 자해욕구와 ⑮ 자해경험을 묻는 문항은 앞의 ⑬ 자퇴욕구 문항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을 응답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교급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해욕구와 자해경험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별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해욕구와 자해경험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해욕구와 자해경험은 거주구별, 재단 시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성적별로는 자해욕구는 유의수준  $p<.001$ 에서, 자해경험은 유의수준  $p<.01$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자해욕구와 자해경험 수준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정경제사정별로 자해욕구

와 자해경험에 유의한 평균 차가 있었는데( $p < .05$ ), 자해욕구와 자해경험 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집단이었고(자해욕구 1.78, 자해경험 1.60), 가정경제사정이 ‘잘사는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자해욕구 1.46, 자해경험 1.28).

⑯ 자살욕구와 ⑰ 자살시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의 평균이 현저히 낮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욕구와 자살시도 문항에서 나타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평균 차는, 각각 유의수준  $p < .05$ 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살욕구의 평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자살시도의 평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거주구별로 자살욕구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살시도 문항에서 나타나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1.18)과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1.29) 차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자살욕구와 자살시도 수준은 유의하게( $p < .001$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단시설 이용 경험 유무는 자살욕구와 자살시도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⑱ 상담·심리치료 요구 정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변인별로 살펴보았다. 학교급별, 성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 각각 유의수준  $p < .001$ ,  $p < .05$ ,  $p < .001$ ,  $p < .001$ 에서 집단 간 평균에 유의한 차



가 나타났는데 거주구별, 재단시설 이용 경험 유무별로는 상담·심리 치료 요구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상담·심리치료 요구도 평균은 1.47, 중학생은 1.64, 고등학생은 1.78로, 사후검정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평균 차는 유의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상담·심리치료 요구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상담·심리치료 요구 수준은 낮아지고 있었다.

<표 3-12> 배경변인(학교급,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구분		전체	학교급별				성별		
			초	중	고	t/F	남	여	t/F
스트레스·부적응 전체	M	2.40	2.15	2.61	2.64	27.971	2.34	2.45	-1.690
	(SD)	1.262	1.224	1.275	1.237	***	1.266	1.256	
학업 스트레스	M	2.85	2.49	3.18	3.18	52.958	2.72	2.99	-3.936
	(SD)	1.342	1.313	1.281	1.286	***	1.360	1.309	***
교우관계 스트레스	M	2.13	1.85	2.41	2.37	38.175	1.94	2.33	-6.168
	(SD)	1.221	1.165	1.231	1.203	***	1.144	1.269	***
채증 스트레스	M	2.34	2.22	2.50	2.41	6.567	2.15	2.54	-5.869
	(SD)	1.315	1.315	1.314	1.296	**	1.278	1.323	***
외모 스트레스	M	2.17	1.85	2.44	2.48	49.055	1.87	2.48	-9.909
	(SD)	1.228	1.138	1.249	1.225	***	1.108	1.269	***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	M	1.90	1.79	2.00	2.00	6.925	1.89	1.92	-5.33
	(SD)	1.106	1.091	1.138	1.089	**	1.110	1.104	
부모관계 가정환경 스트레스	M	1.76	1.61	1.88	1.91	13.843	1.75	1.76	-1.48
	(SD)	1.056	1.008	1.088	1.078	***	1.056	1.057	
자연재해 스트레스	M	2.38	2.27	2.45	2.48	3.952	2.34	2.42	-1.151
	(SD)	1.358	1.378	1.339	1.329	*	1.391	1.321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M	2.39	1.91	2.73	2.93	105.179	2.24	2.55	-4.630
	(SD)	1.331	1.123	1.364	1.340	***	1.301	1.344	***
스트레스 해소법 인지	M	3.12	3.12	3.22	3.03	1.994	3.06	3.19	-1.896
	(SD)	1.349	1.440	1.264	1.251		1.381	1.312	
가출욕구	M	1.95	1.76	2.12	2.14	17.129	1.97	1.94	.534
	(SD)	1.248	1.190	1.271	1.278	***	1.278	1.216	
가출경험	M	1.28	1.11	1.38	1.47	34.853	1.32	1.23	2.233
	(SD)	.770	.496	.893	.960	***	.827	.702	*
자퇴욕구 (초등제외)	M	2.13	-	1.83	2.39	-5.867	1.96	2.30	-3.481
	(SD)	1.378	-	1.235	1.445	***	1.314	1.423	**
자해욕구 (초등제외)	M	1.59	-	1.56	1.62	-.706	1.56	1.62	-.827
	(SD)	1.052	-	1.062	1.043		1.041	1.064	
자해경험 (초등제외)	M	1.38	-	1.36	1.41	-.839	1.39	1.38	.259
	(SD)	.891	-	.883	.900		.910	.872	
자살욕구	M	1.59	1.51	1.65	1.68	4.022	1.57	1.61	-.661
	(SD)	1.088	1.063	1.102	1.112	*	1.095	1.082	
자살시도	M	1.21	1.13	1.27	1.28	9.174	1.22	1.19	.777
	(SD)	.649	.557	.730	.708	***	.688	.606	
상담심리치료 요구도	M	1.60	1.47	1.64	1.78	13.324	1.54	1.66	-2.358
	(SD)	1.003	.894	1.063	1.092	***	.977	1.026	*

\* $p < .05$  \*\* $p < .01$  \*\*\* $p < .001$

<표 3-13> 배경변인(거주구별, 학교성적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구분	전체	거주구별					학교성적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t/F	안 좋음	안 좋은편	보통	좋은편	좋음	t/F	
스트레스·부적응 전체	M	2.40	2.40	2.37	2.41	.099	2.80	2.81	2.58	2.35	2.12	15.424
	(SD)	1.262	1.262	1.200	1.281		1.292	1.146	1.225	1.225	1.269	***
학업 스트레스	M	2.85	2.73	2.68	2.93	5.203	3.16	3.11	3.05	2.76	2.63	9.175
	(SD)	1.342	1.281	1.281	1.370	**	1.413	1.247	1.324	1.263	1.369	***
교우관계 스트레스	M	2.13	2.14	2.18	2.11	.311	2.43	2.51	2.33	2.10	1.85	15.117
	(SD)	1.221	1.160	1.204	1.244		1.292	1.236	1.216	1.214	1.152	***
체중 스트레스	M	2.34	2.47	2.45	2.27	3.663	2.68	2.54	2.40	2.31	2.20	4.037
	(SD)	1.315	1.366	1.355	1.284	*	1.430	1.243	1.293	1.318	1.315	**
외모 스트레스	M	2.17	2.28	2.23	2.12	2.374	2.53	2.57	2.42	2.12	1.85	20.565
	(SD)	1.228	1.258	1.274	1.203		1.363	1.214	1.249	1.152	1.147	***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	M	1.90	2.02	2.02	1.83	4.872	2.08	2.15	2.09	1.80	1.72	10.056
	(SD)	1.106	1.133	1.102	1.095	**	1.121	1.147	1.157	0.998	1.074	***
부모관계 가정환경 스트레스	M	1.76	1.86	1.84	1.71	3.094	2.02	2.04	1.92	1.72	1.54	12.694
	(SD)	1.056	1.038	1.057	1.059	*	1.195	1.062	1.080	1.003	0.997	***
자연재해 스트레스	M	2.38	2.47	2.48	2.32	2.379	2.47	2.64	2.45	2.42	2.22	3.721
	(SD)	1.358	1.349	1.365	1.356		1.363	1.265	1.333	1.408	1.356	**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M	2.39	2.44	2.26	2.42	1.604	2.90	3.05	2.66	2.39	1.94	34.653
	(SD)	1.331	1.277	1.285	1.358		1.428	1.349	1.269	1.315	1.212	***
스트레스 해소법 인지	M	3.12	3.15	3.03	3.14	.747	2.90	2.97	3.01	3.11	3.28	3.682
	(SD)	1.349	1.362	1.330	1.351		1.329	1.243	1.247	1.286	1.469	**
가출육구	M	1.95	1.99	1.96	1.94	.119	2.60	2.37	2.00	1.85	1.77	13.287
	(SD)	1.248	1.257	1.212	1.257		1.398	1.227	1.245	1.126	1.241	***
가출경험	M	1.28	1.29	1.36	1.24	2.690	1.75	1.49	1.34	1.19	1.15	17.072
	(SD)	0.770	0.768	0.876	0.734		1.211	0.939	0.829	0.643	0.588	***
자퇴육구 (초등제외)	M	2.13	2.09	2.15	2.13	.067	2.91	2.48	2.00	2.13	1.69	13.182
	(SD)	1.378	1.397	1.342	1.385		1.492	1.451	1.272	1.396	1.218	***
자해육구 (초등제외)	M	1.59	1.65	1.55	1.59	.268	1.93	1.80	1.58	1.46	1.39	5.277
	(SD)	1.052	1.124	1.033	1.040		1.243	1.147	1.048	0.928	0.917	***
자해경험 (초등제외)	M	1.38	1.43	1.38	1.37	.181	1.58	1.54	1.44	1.25	1.19	4.908
	(SD)	0.891	0.961	0.878	0.878		0.947	1.042	0.950	0.724	0.688	**
자살육구	M	1.59	1.61	1.58	1.59	.052	2.01	1.79	1.59	1.48	1.54	5.493
	(SD)	1.088	1.085	1.033	1.106		1.233	1.103	1.049	1.012	1.113	***
자살시도	M	1.21	1.21	1.29	1.18	3.138	1.40	1.32	1.25	1.20	1.12	6.026
	(SD)	0.649	0.632	0.779	0.609	*	0.757	0.774	0.712	0.705	0.483	***
상담심리치료 요구도	M	1.60	1.61	1.56	1.61	.307	1.89	1.88	1.65	1.54	1.48	7.301
	(SD)	1.003	0.927	0.940	1.041		1.100	1.196	1.044	0.901	0.929	***

\* $p < .05$  \*\* $p < .01$  \*\*\* $p < .001$

<표 3-14> 배경변인(가정경제사정, 재단시설이용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구분		전체	가정경제사정							재단시설이용경험		
			부족함	부족한편	보통	잘사는편	잘살	t/F	있음	없음	t/F	
스트레스·부작용 전체	M	2.40	3.00	3.13	2.51	2.30	2.17	10.985	2.40	2.39	.180	
	(SD)	1.262	1.494	1.139	1.250	1.220	1.267	***	1.289	1.221		
학업 스트레스	M	2.85	3.02	3.38	2.91	2.74	2.77	3.516	2.84	2.85	-.128	
	(SD)	1.342	1.504	1.272	1.290	1.350	1.400	**	1.346	1.336		
교우관계 스트레스	M	2.13	3.11	2.94	2.23	2.08	1.85	15.918	2.16	2.08	1.353	
	(SD)	1.221	1.562	1.192	1.240	1.146	1.161	***	1.230	1.206		
체중 스트레스	M	2.34	2.81	2.83	2.48	2.14	2.23	7.564	2.35	2.33	.300	
	(SD)	1.315	1.637	1.422	1.334	1.203	1.320	***	1.331	1.291		
외모 스트레스	M	2.17	3.03	2.89	2.35	2.07	1.82	20.055	2.21	2.10	1.717	
	(SD)	1.228	1.485	1.253	1.252	1.130	1.150	***	1.266	1.165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	M	1.90	3.10	3.07	2.09	1.80	1.47	46.065	1.91	1.88	.495	
	(SD)	1.106	1.478	1.276	1.129	0.982	0.893	***	1.120	1.086		
부모관계 가정환경 스트레스	M	1.76	2.15	2.86	1.91	1.65	1.44	30.917	1.74	1.79	-.999	
	(SD)	1.056	1.362	1.344	1.068	0.967	0.901	***	1.039	1.082		
자연재해 스트레스	M	2.38	1.99	3.00	2.46	2.34	2.20	5.709	2.39	2.35	.506	
	(SD)	1.358	1.283	1.288	1.344	1.314	1.406	***	1.374	1.333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M	2.39	2.89	3.27	2.54	2.39	2.00	17.180	2.39	2.39	.107	
	(SD)	1.331	1.470	1.155	1.321	1.288	1.301	***	1.338	1.321		
스트레스 해소법 인지	M	3.12	2.66	3.03	3.05	3.09	3.31	2.951	3.14	3.09	.595	
	(SD)	1.349	1.416	1.122	1.310	1.324	1.449	*	1.372	1.314		
가출욕구	M	1.95	2.07	2.81	2.07	1.87	1.71	12.235	1.98	1.92	.860	
	(SD)	1.248	1.447	1.384	1.259	1.162	1.218	***	1.256	1.236		
가출경험	M	1.28	1.64	1.49	1.37	1.20	1.16	7.703	1.30	1.24	1.655	
	(SD)	0.770	1.286	0.988	0.881	0.610	0.614	***	0.801	0.719		
자퇴욕구 (초등제외)	M	2.13	2.27	2.46	2.17	2.06	2.04	1.031	2.14	2.10	.426	
	(SD)	1.378	1.616	1.426	1.346	1.291	1.511		1.372	1.391		
자해욕구 (초등제외)	M	1.59	1.71	1.78	1.70	1.46	1.47	2.857	1.60	1.58	.261	
	(SD)	1.052	1.187	1.265	1.094	0.942	0.998	*	1.052	1.053		
자해경험 (초등제외)	M	1.38	1.43	1.60	1.48	1.26	1.28	3.370	1.41	1.34	.929	
	(SD)	0.891	0.959	1.107	0.972	0.703	0.835	*	0.910	0.857		
자살욕구	M	1.59	1.89	2.27	1.72	1.48	1.38	13.100	1.60	1.57	.604	
	(SD)	1.088	1.189	1.277	1.186	0.930	0.967	***	1.105	1.062		
자살시도	M	1.21	1.40	1.36	1.27	1.18	1.10	5.750	1.21	1.20	.397	
	(SD)	0.649	0.812	0.725	0.751	0.609	0.438	***	0.665	0.626		
상담심리치료 요구도	M	1.60	1.63	2.18	1.64	1.58	1.47	6.647	1.63	1.56	1.319	
	(SD)	1.003	1.146	1.322	0.981	0.968	0.986	***	1.019	0.976		

\* $p < .05$  \*\* $p < .01$  \*\*\* $p < .001$

### 3.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부적응 영역의 긍정/부정

종합적으로 ‘1. 삶의 만족도’와 ‘2. 스트레스·부적응’ 문항의 응답 수와 비율은 다음 <표 3-15>, <표 3-16>과 같다(배경변인별 응답 수와 비율은 “[별책부록] 기초조사표”를 참고).

행복지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남시 청소년의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과 행복지수에 포함되었던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문항의 긍정 비율을 보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이 각각 72.2%, 74.5%로 부정 비율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합인 6.1%, 5.6%와 비교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행복지수(0.74)와 비교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3-15> 삶의 만족도 영역의 긍정/부정(명, %)

영역	문항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전체 <sup>18)</sup>
삶의 만족 도	a-3-1. 전반적으로 현재 행복함	92	324	1,084	1,500
		6.1%	21.6%	72.2%	99.9%
	*a-3-2.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음	84	298	1,119	1,501
		5.6%	19.9%	74.5%	100.0%
	a-3-3. 대체로 스스로에 만족	150	345	1,006	1,501
		10.0%	23.0%	67.0%	100.0%

\* 행복지수 산출 문항

18)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영역	문항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전체 <sup>18)</sup>
삶의 만족도	*a-3-4. 나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	189 <b>12.6%</b>	412 27.5%	898 <b>59.9%</b>	1,499 100.0%
	a-3-5. 나는 쓸모 있 는 사람이라 생각	170 <b>11.3%</b>	302 20.1%	1,030 68.6%	1,502 100.0%
	a-3-6.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생각	163 10.9%	443 29.5%	895 <b>59.6%</b>	1,501 100.0%
	*a-3-7. 주변 사람들 과 관계가 좋음	39 <b>2.6%</b>	236 15.7%	1,226 <b>81.7%</b>	1,501 100.0%
	*a-3-8. 건강상태가 좋음	93 <b>6.2%</b>	239 15.9%	1,168 77.9%	1,500 100.0%
	a-3-9. 학교생활에 만족	94 <b>6.3%</b>	289 19.3%	1,117 74.5%	1,500 100.0%
	*a-3-10. 자연재해, 범죄로부터 안전	32 <b>2.1%</b>	198 13.2%	1,270 <b>84.7%</b>	1,500 100.0%
	a-3-11.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됨	253 16.9%	405 27.0%	842 <b>56.1%</b>	1,500 100.0%
	*a-3-12. 가정, 학교, 사회 문제 참여기회	72 4.8%	390 26.0%	1,037 69.2%	1,499 100.0%
	*a-3-13. 여가생활에 대체로 만족	85 5.7%	240 16.0%	1,176 78.3%	1,501 100.0%
	a-3-14. 주거 생활에 불편함 없음	53 <b>3.5%</b>	201 13.4%	1,247 <b>83.1%</b>	1,501 100.0%

\* 행복지수 산출 문항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긍정 비율(‘그렇다’ 응답 비율과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합산)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자연재해, 범죄로부터 안전’(84.7%),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음’(83.1%),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음’(81.7%) 등이었고, 부정 비율(‘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과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을 합산)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미세먼

지나 공해가 걱정됨'(16.9%), '나는 장점이 많음'(12.6%),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11.3%) 등이었다.

부정 비율이 높았던 '환경문제 우려', '자기 장점 인정', '자기 유용성' 문항과, 부정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의 기저를 이루는 '주관적 건강'과 '학교생활 만족도' 문항에서 낮은 비율(6.2%, 6.3%)을 보였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만족 내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남시 청소년의 '전반적 스트레스' 수준은 긍정(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적응을 잘 하는) 비율이 55.7%, 부정(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비율이 22.7%로 나타나고 있어 '스트레스·부적응' 영역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표 3-16> 스트레스·부적응 영역의 긍정/부정(명, %)

영역	문항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전체 <sup>19)</sup>
스트레스 · 부적응	a4-1. 전반적 스트레스 심함	835	323	341	1,499
		55.7%	21.5%	22.7%	100.0%
	*a-4.2. 학업 스트레스 심함	603	348	548	1,499
		40.2%	23.2%	36.6%	100.0%
	a4-3. 친구관계 스트레스	962	297	242	1,501
		64.1%	19.8%	16.1%	100.0%
	a4-4. 체중 스트레스	859	313	329	1,501
		57.2%	20.9%	21.9%	100.0%

\* 행복지수 산출 문항

19)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영역	문항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전체 <sup>19)</sup>	
	*a-4-5. 외모 스트레스	943 63.0%	313 20.9%	241 16.1%	1,497 100.0%	
	*a-4-6.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	1,100 73.3%	251 16.7%	150 10.0%	1,501 100.0%	
	a-4-7. 부모님 관계, 가정환경스트레스	1,172 78.1%	202 13.5%	127 8.5%	1,501 100.0%	
	a-4-8. 전염병, 자연 재해 스트레스	860 57.4%	290 19.3%	349 23.3%	1,499 100.0%	
	*a-4-9. 미래 진로 불투명 스트레스	839 55.9%	310 20.7%	351 23.4%	1,500 100.0%	
	스트레스 · 부 적 응	a-4-10.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앎	479 32.0%	383 25.6%	636 42.5%	1,498 100.0%
		a-4-11. 가출 생각	1,066 71.1%	196 13.1%	238 15.9%	1,500 100.0%
		a-4-12. 가출 경험	1,380 92.1%	61 4.1%	58 3.9%	1,499 100.0%
		a-4-13. 자퇴 생각 (초등 제외)	511 65.5%	108 13.8%	161 20.6%	780 100.0%
a-4-14. 자해 생각 (초등 제외)		637 81.5%	77 9.8%	68 8.7%	782 100.0%	
a-4-15. 자해 경험 (초등 제외)		693 88.6%	48 6.1%	41 5.2%	782 100.0%	
a-4-16. 자살 생각		1,233 82.2%	124 8.3%	143 9.5%	1,500 100.0%	
a-4-17. 자살 시도		1,416 94.3%	53 3.5%	32 2.1%	1,501 100.0%	
a-4-18. 상담, 심리 치료 필요		1,226 81.8%	173 11.5%	100 6.7%	1,499 100.0%	

\* 행복지수 산출 문항

그러나 ‘가출’, ‘자퇴’(초등 제외), ‘자해’(초등 제외), ‘자살’을 생각



하는 극단적 스트레스·부적응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평균 13.7%로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나타나고,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 진로 불투명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도 상당 수준으로 조사되어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32.0%의 청소년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의 청소년에게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반면 ‘상담·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6.7%에 불과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부적응을 경감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재단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제4장

### 청소년 생활실태

1. 여가활동
2. 참여의식
3. 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교육 경험
4. 스마트폰 사용 실태
5. 체험활동
6. 독서활동
7. 온라인 활동



## 제4장 ■ 청소년 생활실태

### 1. 여가활동

성남시 청소년의 여가 시간 충분도는 5점 만점에 3.81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여가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여가 장소 충분도는 3.79로 여가를 즐길 장소가 비교적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 프로그램 만족도는 3.39로 여가시간과 여가장소 충분도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평균보다 높아 여가 프로그램도 풍부한 편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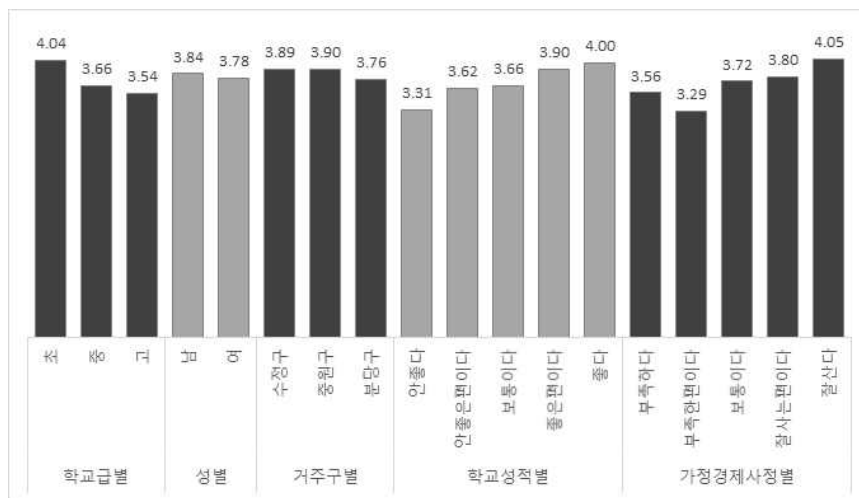
여가 시간 충분도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여가시간 충분도 평균이 3.84로, 여자 청소년의 3.7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구별로는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3.90으로 가장 높았고,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3.76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안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충분도가 3.31로 현저히 낮았고, 학교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충분도가 4.00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한 편이

다'로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3.29로 가장 낮고, '잘산다'로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4.05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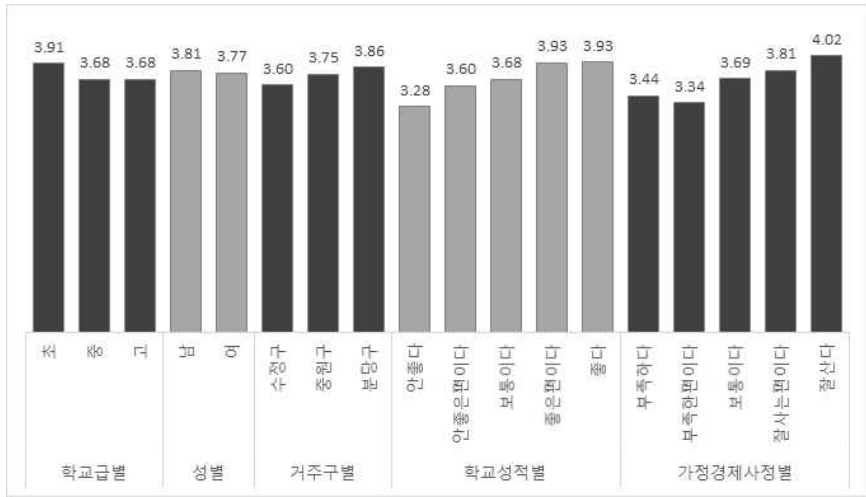
<표 4-1> 배경변인별 청소년 여가활동 만족도

구분		여가시간 충분도	여가장소 충분도	여가프로그램 충분도
전체		3.81	3.79	3.39
학교급별	초등학교	4.04	3.91	3.52
	중학교	3.66	3.68	3.30
	고등학교	3.54	3.68	3.24
성별	남자	3.84	3.81	3.38
	여자	3.78	3.77	3.39
거주구별	수정구	3.89	3.60	3.25
	중원구	3.90	3.75	3.37
	분당구	3.76	3.86	3.43
학교 성적별	안좋다	3.31	3.28	2.90
	안좋은편이다	3.62	3.60	3.14
	보통이다	3.66	3.68	3.25
	좋은편이다	3.90	3.93	3.49
가정경제 사정별	좋다	4.00	3.93	3.58
	부족하다	3.56	3.44	3.33
	부족한편이다	3.29	3.34	2.79
	보통이다	3.72	3.69	3.28
	잘사는편이다	3.80	3.81	3.45
	잘산다	4.05	4.02	3.58



[그림 4-1] 배경변인별 여가 시간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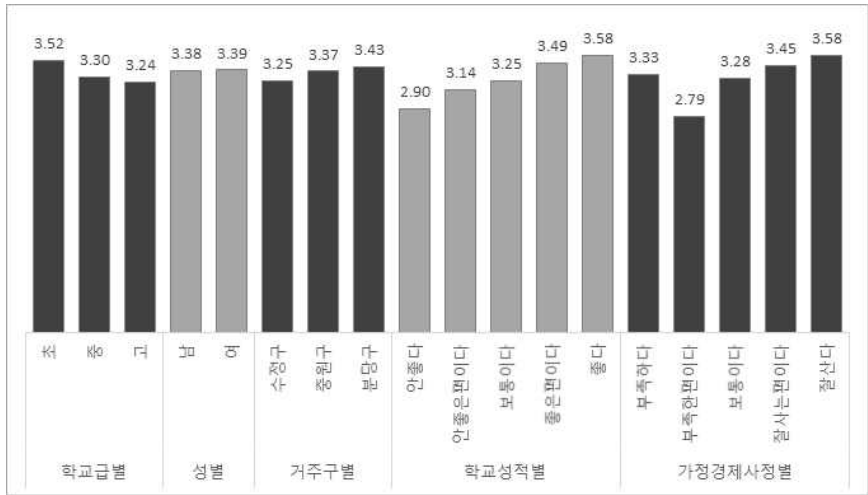
학교급별 여가 장소 충분도 평균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는데,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여가장소 충분도가 가장 높았고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여가장소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한 편’인 청소년의 여가장소 충분도가 3.34로 가장 낮았고, ‘잘사는’ 청소년의 충분도가 4.02로 가장 높았다.



[그림 4-2] 배경변인별 여가 장소 충분도

배경변인별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의 평균이 3.39로 남학생의 평균 3.38보다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3.43으로 가장 높았고,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충분도가 3.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성적별로는 ‘안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2.90으로 가장 낮았고,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3.58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한 편’인 청소년의 평균이 2.79로 가장 낮고, ‘잘산다’로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3.58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 배경변인별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

## 2. 참여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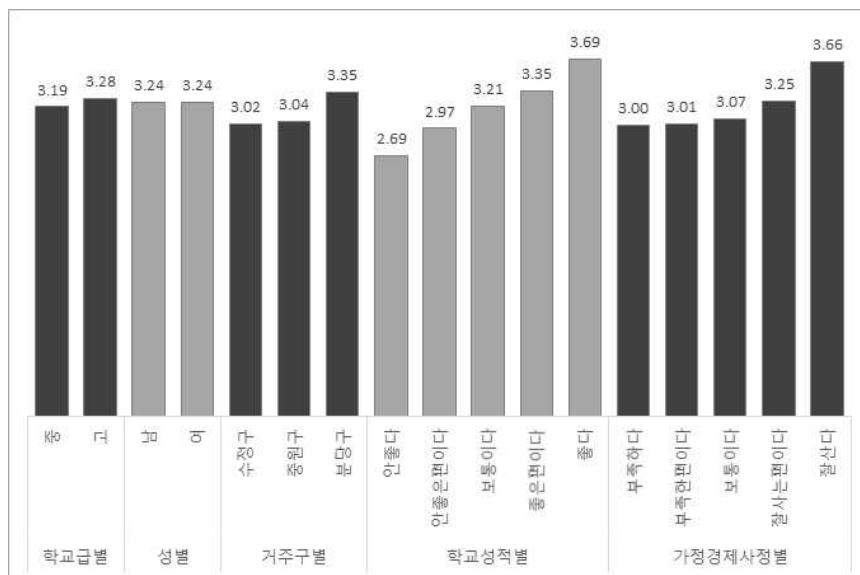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선거·참여의식 영역 3개 문항은 초등학교생을 제외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성남시 청소년의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3.24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는 4.30으로 상당히 높았다. 또 ‘선거연령인 만 18세가 될 때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겠다’라는 선거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도 4.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2> 배경변인별 참여의식

구분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 (초등제외)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 (초등제외)	투표 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 (초등제외)
전체	3.24	4.30	4.14
학교급별	중학교	3.19	4.32
	고등학교	3.28	4.27
성별	남자	3.24	4.28
	여자	3.24	4.31
거주구별	수정구	3.02	4.24
	중원구	3.04	4.26
	분당구	3.35	4.32
학교 성적별	안좋다	2.69	3.96
	안좋은편이다	2.97	4.14
	보통이다	3.21	4.28
	좋은편이다	3.35	4.35
	좋다	3.69	4.58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3.00	3.90
	부족한편이다	3.01	4.17
	보통이다	3.07	4.20
	잘사는편이다	3.25	4.29
	잘산다	3.66	4.58

배경변인별로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 관심도를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3.28, 중학생 3.19로 고등학생의 평균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녀 청소년의 관심도가 3.24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3.35로 가장 높았고, 중원구 거주 3.04, 수정구 거주 3.02로 중원구와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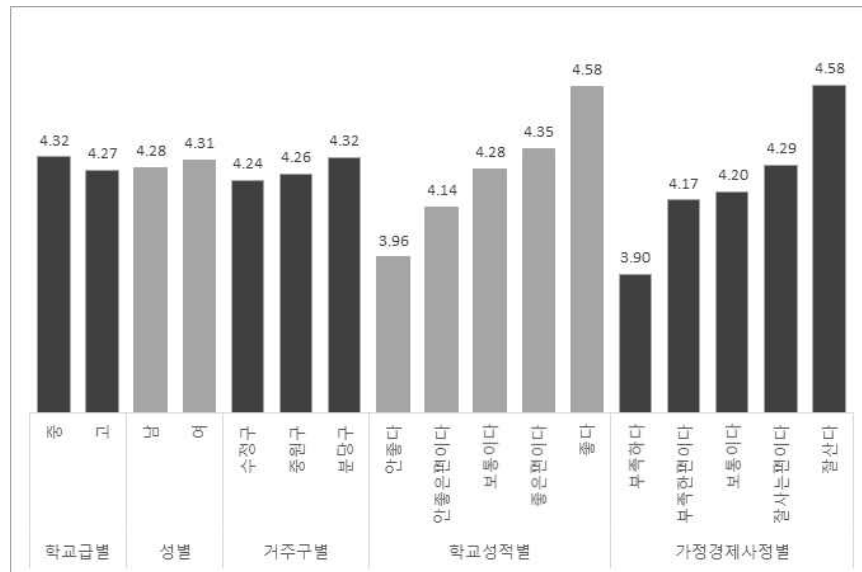
의식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잘살수록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배경변인별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라는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는 배경변인별로 집단 간 차이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평균이 4.32로 고등학생의 평균 4.27보다 다소 높았고,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4.31,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4.28로 여자 청소년의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가 약간 높았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중원구와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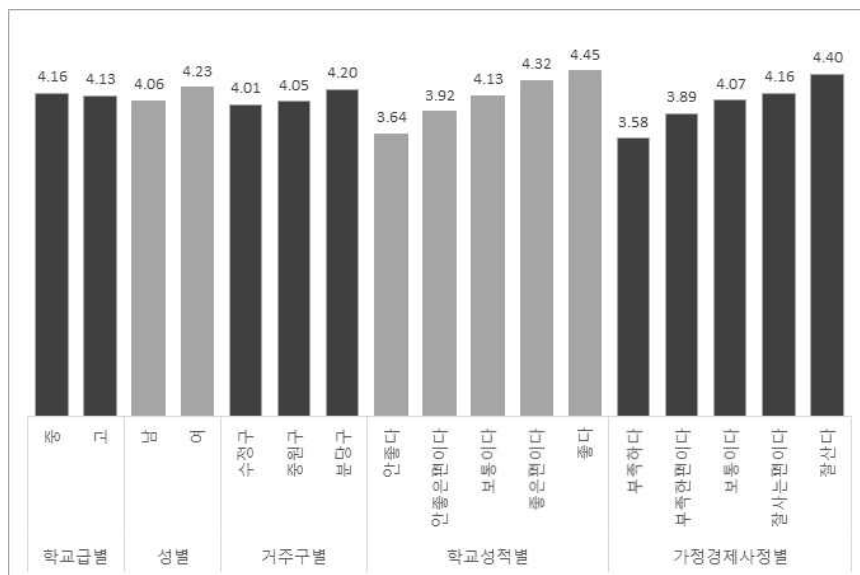
년의 평균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별 변인의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잘살수록 투표 가능 연령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이 두 변인의 집단 간 차이는 다소 크게 나타났다.



[그림 4-5] 배경변인별 투표 연령 인지도

배경변인별로 투표 가능 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는,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16으로 고등학생 4.13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 4.06보다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4.23으로 더 높았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4.20으로 가장 높았고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4.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성적별

로는 성적이 좋을수록(안 좋다 3.64, 좋다 4.45),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잘살수록(부족하다 3.58, 잘산다 4.40) 투표 의지가 높았고 집단 간 평균 차가 비교적 높았다.



[그림 4-6] 배경변인별 투표 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

### 3. 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교육 경험

성남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1주일 평균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경험을 묻는 3개 문항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등학교 78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1)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780명 중 76명 (9.7%)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704명, 90.3%)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배경변인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sup>20)</sup>
전체		76	704	780
		9.7%	90.3%	100.0%
학교급별	중학교	7	360	367
		1.9%	98.1%	100.0%
	고등학교	69	344	413
		16.7%	83.3%	100.0%
성별	남자	38	362	400
		9.5%	90.5%	100.0%
	여자	38	342	380
		10.0%	90.0%	100.0%
거주구별	수정구	24	104	128
		18.8%	81.3%	100.0%
	중원구	25	119	144
		17.4%	82.6%	100.0%
	분당구	28	481	509
		5.5%	94.5%	100.0%

20)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구분		있다	없다	전체 <sup>20)</sup>
전체		76	704	780
		9.7%	90.3%	100.0%
학교성적별	안좋다	11	63	74
		14.9%	85.1%	100.0%
	안좋은편이다	12	109	121
		9.9%	90.1%	100.0%
	보통이다	32	260	292
	11.0%	89.0%	100.0%	
	좋은편이다	11	132	143
		7.7%	92.3%	100.0%
	좋다	9	140	149
		6.0%	94.0%	100.0%
가정경제사정별	부족하다	5	9	14
		35.7%	64.3%	100.0%
	부족한편이다	9	33	42
		21.4%	78.6%	100.0%
	보통이다	40	308	348
	11.5%	88.5%	100.0%	
	잘사는편이다	12	198	210
		5.7%	94.3%	100.0%
	잘산다	9	157	166
		5.4%	94.6%	100.0%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367명 중 7명(1.9%), 고등학생 413명 중 69명(16.7%)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400명 중 38명(9.5%), 여학생 380명 중 38명(10.0%)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거주구별로는 수정구 거주 청소년 128명 중 24명(18.8%), 중원구 거주 청소년 144명 중 25명(17.4%), 분당구 거주 청소년 509명 중 28명(5.5%)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성적별로는 ‘안 좋다’로 응답한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74명 중 11명, 14.9%로 가장 높았고, ‘좋다’로 응답한 학생이 149명 중 9명, 6.0%로 가장 낮았다.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하다’로 응답한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14명 중 5명, 35.7%로 가장 높았고 잘살수록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잘산다’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66명 중 9명, 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1주일 평균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은 다음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1주일 평균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은 주 6-10시간이 74명 중 20명(27.0%)으로 가장 많았고, 주 11-15시간이 19명(25.7%), 주 3시간 이하가 16명(21.6%), 주 3-5시간이 12명(16.2%), 주 16시간 이상이 7명(9.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배경변인별 1주일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명, %)

구분		주 3시간 이하	주 3-5 시간	주 6-10 시간	주 11-15 시간	주 16시간 이상	전체 <sup>21)</sup>
전체		16 21.6%	12 16.2%	20 27.0%	19 25.7%	7 9.5%	74 100.0%
학교급별	중학교	6 85.7%	1 14.3%	0 .0%	0 .0%	0 .0%	7 100.0%
	고등학교	10 14.9%	11 16.4%	20 29.9%	19 28.4%	7 10.4%	67 100.0%

21)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구분		주 3시간 이하	주 3-5 시간	주 6-10 시간	주 11-15 시간	주 16시간 이상	전체 <sup>2)</sup>
전체		16	12	20	19	7	74
		21.6%	16.2%	<b>27.0%</b>	25.7%	9.5%	100.0%
성별	남자	9 23.1%	7 17.9%	8 20.5%	10 25.6%	5 12.8%	39 100.0%
	여자	8 20.5%	6 15.4%	13 33.3%	10 25.6%	2 5.1%	39 100.0%
거주구별	수정구	3 12.5%	7 29.2%	7 29.2%	4 16.7%	3 12.5%	24 100.0%
	중원구	5 20.8%	1 4.2%	7 29.2%	8 33.3%	3 12.5%	24 100.0%
	분당구	8 29.6%	5 18.5%	6 22.2%	7 25.9%	1 3.7%	27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3 27.3%	2 18.2%	2 18.2%	1 9.1%	3 27.3%	11 100.0%
	안좋은편이다	2 15.4%	3 23.1%	3 23.1%	2 15.4%	3 23.1%	13 100.0%
	보통이다	6 18.8%	6 18.8%	8 25.0%	10 31.3%	2 6.3%	32 100.0%
	좋은편이다	3 25.0%	0 .0%	5 41.7%	3 25.0%	1 8.3%	12 100.0%
	좋다	2 25.0%	2 25.0%	2 25.0%	2 25.0%	0 .0%	8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3 50.0%	1 16.7%	0 .0%	1 16.7%	1 16.7%	6 100.0%
	부족한편이다	2 20.0%	1 10.0%	2 20.0%	5 50.0%	0 .0%	10 100.0%
	보통이다	6 15.0%	9 22.5%	13 32.5%	9 22.5%	3 7.5%	40 100.0%
	잘사는편이다	3 23.1%	1 7.7%	3 23.1%	4 30.8%	2 15.4%	13 100.0%
	잘산다	4 40.0%	1 10.0%	2 20.0%	2 20.0%	1 10.0%	10 100.0%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7명 중 6명(85.7%)이 주 3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었고, 고등학생은 전체 67명 중 20명(29.9%)이 주 6-10시간 활동, 19명(28.4%)이 주 11-15시간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주 11-15시간(39명 중 10명, 25.6%), 여학생은 주 6-10시간(39명 중 13명, 33.3%)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었다. 거주구별로 살펴보면, 수정구 거주 학생은 주 3-5시간과 주 6-10시간(24명 중 각 7명, 29.2%), 중원구 거주 학생은 주 11-15시간(24명 중 8명, 33.3%), 분당구 거주 학생은 주 3시간 이하(27명 중 8명, 29.6%)가 가장 많았다.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 1주일 평균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은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 3) 아르바이트 중 권리 침해 경험

아르바이트 활동 중 임금 체불, 최저시급 미만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폭언이나 욕설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부정적인 경험은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경변인별 조사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중 경험한 인권과 노동권 침해 경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응답 인원 38명 중 19명(50.0%)로 가장 많았고, 초과근무나 계약 외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 수행한 경우도 28.9%(38명 중 11명)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해고, 폭언이나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경우도 각 4명(14.3%)이었다. 단, 임금체불이나 최저시

급 미만을 지급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5> 아르바이트 중 부정적 경험(명, %)

구분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초과근무 계약 외 업무지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폭언, 등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	전체 <sup>22)</sup>
전체		0 0.0%	11 28.0%	19 48.9%	4 11.2%	4 11.5%	38
학교급별	중학교	0 0%	1 43.5%	0 12.9%	1 43.5%	0 .0%	2 100.0%
	고등학교	0 0%	10 27.1%	18 51.4%	3 9.2%	4 12.3%	36 100.0%
성별	남자	0 0%	4 25.7%	9 58.5%	2 11.8%	1 4.1%	15 100.0%
	여자	0 0%	7 29.7%	10 42.8%	2 11.0%	4 16.6%	23 100.0%
거주구별	수정구	0 0%	2 17.5%	5 46.2%	1 13.1%	2 23.2%	11 100.0%
	중원구	0 0%	3 25.0%	6 54.6%	2 15.8%	1 4.6%	12 100.0%
	분당구	0 0%	6 37.8%	7 46.9%	1 6.6%	1 8.8%	15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0 0%	0 .0%	3 77.3%	0 11.4%	0 11.4%	4 100.0%
	안좋은편이다	0 0%	1 13.9%	2 62.0%	0 12.1%	0 12.1%	4 100.0%
	보통이다	0 0%	7 52.3%	4 29.3%	1 7.5%	1 10.9%	13 100.0%
	좋은편이다	0 0%	1 10.8%	4 43.1%	2 25.0%	2 21.1%	9 100.0%
	좋다	0 0%	2 28.7%	5 71.3%	0 .0%	0 .0%	7 100.0%

22)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구분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초과근무 계약 외 업무지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	전체(22)	
전체	0 0.0%	11 28.0%	19 48.9%	4 11.2%	4 11.5%	38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0 0%	0 .0%	4 85.1%	0 .0%	1 14.9%	4 100.0%
	부족한편이다	0 0%	1 9.4%	2 43.1%	1 21.8%	1 25.7%	6 100.0%
	보통이다	0 0%	6 29.6%	10 52.2%	3 15.8%	0 2.4%	19 100.0%
	잘사는편이다	0 0%	4 89.2%	0 .0%	0 .0%	0 10.8%	4 100.0%
	잘산다	0 0%	1 12.1%	3 57.7%	0 .0%	0 30.2%	4 100.0%

학교급별로는 전체 38건 중 고등학생이 36건(94.7%)으로, 중학생 2건(5.3%)에 비해 부당하고 비인격적 대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체 38건 중 남자 청소년이 15건(39.5%), 여자 청소년이 23건(60.5%)으로,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이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구별로는 수정구 거주 청소년이 11건(28.9%), 중원구 거주 청소년 12건(31.6%), 분당구 거주 청소년 15건(39.5%)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별로는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 38건 중 13건(34.2%)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성적이 ‘좋은 편’으로 응답한 학생이 9건(23.7%),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7건(18.4%) 순이었다.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보통’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38건 중 19건(50.0%)으로 가장 높았고 ‘부족한 편’인 청소년이 6명(15.8%)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 4) 노동·인권교육 경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중 노동·인권교육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는데(전체 75명 중 58명, 77.3%),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68명 중 54명(79.4%)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중학생은 7명 중 4명(57.1%)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고 3명(42.9%)이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78.9%(38명 중 30명), 여자 청소년의 75.7%(37명 중 28명)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별로는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84.0%(25명 중 21명),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73.9%(23명 중 17명)가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경우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이 70.4%(27명 중 19명)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안 좋은 편’인 학생의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이 83.3%(12명 중 10명)로 가장 높고, 학교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교육 경험 비율이 66.7%(9명 중 6명)로 가장 낮았다.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88.9%(9명 중 8명), ‘잘 사는 편’이라 응답한 청소년의 66.7%(12명 중 8명)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노동·인권교육 경험(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sup>23)</sup>
전체		58	17	75
		77.3%	22.7%	100.0%
학교급별	중학교	4	3	7
		57.1%	42.9%	100.0%
	고등학교	54	14	68
		79.4%	20.6%	100.0%
성별	남자	30	8	38
		78.9%	21.1%	100.0%
	여자	28	9	37
		75.7%	24.3%	100.0%
거주구별	수정구	17	6	23
		73.9%	26.1%	100.0%
	중원구	21	4	25
		84.0%	16.0%	100.0%
	분당구	19	8	27
		70.4%	29.6%	100.0%
학교성적별	안좋다	8	3	11
		72.7%	27.3%	100.0%
	안좋은편이다	10	2	12
		83.3%	16.7%	100.0%
	보통이다	25	8	33
	75.8%	24.2%	100.0%	
	좋은편이다	9	2	11
		81.8%	18.2%	100.0%
	좋다	6	3	9
		66.7%	33.3%	100.0%

23)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구분		있다	없다	전체 <sup>23)</sup>
전체		58	17	75
		77.3%	22.7%	100.0%
가정경제사정별	부족하다	4	1	5
		80.0%	20.0%	100.0%
	부족한편이다	8	1	9
		88.9%	11.1%	100.0%
	보통이다	30	10	40
75.0%	25.0%	100.0%		
잘사는편이다	8	4	12	
	66.7%	33.3%	100.0%	
잘산다	8	2	10	
	80.0%	20.0%	100.0%	

#### 4. 스마트폰 사용 실태

##### 1) 스마트폰 과의존

성남시 청소년의 72.7%(전체 1,502명 중 1,092명)는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보통’ 수준 이하의 곤란함을 겪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판단되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률은 27.3%(전체 1,502명 중 410명)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높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과의존율이 18.6%(720명 중 134명)로 가장 낮았고 중학생 35.5%(369명 중 131명), 고등학생 35.1%(413명 중 145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과의존율이 25.6%(772명 중 198명), 여자 청소년의 과의존율 29.1%(728명 중 212명)보다 다소 낮았다.

<표 4-7> 스마트폰 사용과 과의존(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24)</sup>
전체		357 23.8%	309 20.6%	426 28.4%	295 19.6%	115 7.7%	1,502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227 31.5%	174 24.2%	185 25.7%	102 14.2%	32 4.4%	720 100.0%
		61 16.5%	67 18.2%	110 29.8%	93 25.2%	38 10.3%	369 100.0%
	중학교	69 16.7%	68 16.5%	131 31.7%	100 24.2%	45 10.9%	413 100.0%
		181 23.4%	171 22.2%	222 28.8%	152 19.7%	46 6.0%	772 100.0%
	고등학교	176 24.2%	138 19.0%	202 27.7%	143 19.6%	69 9.5%	728 100.0%
		58 21.5%	41 15.2%	90 33.3%	60 22.2%	21 7.8%	270 100.0%
성별	수정구	58 20.6%	41 21.4%	90 25.3%	60 24.9%	21 7.8%	270 100.0%
		58 20.6%	60 21.4%	71 25.3%	70 24.9%	22 7.8%	281 100.0%
	중원구	241 25.4%	208 21.9%	264 27.8%	165 17.4%	71 7.5%	949 100.0%
		15 17.6%	11 12.9%	29 34.1%	17 20.0%	13 15.3%	85 100.0%
	분당구	18 13.2%	23 16.9%	43 31.6%	38 27.9%	14 10.3%	136 100.0%
		76 17.8%	77 18.0%	148 34.7%	94 22.0%	32 7.5%	427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69 22.9%	64 21.3%	81 26.9%	68 22.6%	19 6.3%	301 100.0%
		179 32.5%	134 24.3%	123 22.3%	78 14.2%	37 6.7%	551 100.0%
	안좋은편이다	179 32.5%	134 24.3%	123 22.3%	78 14.2%	37 6.7%	551 100.0%
		76 17.8%	77 18.0%	148 34.7%	94 22.0%	32 7.5%	427 100.0%
	보통이다	69 22.9%	64 21.3%	81 26.9%	68 22.6%	19 6.3%	301 100.0%
		179 32.5%	134 24.3%	123 22.3%	78 14.2%	37 6.7%	551 100.0%
좋은편이다	179 32.5%	134 24.3%	123 22.3%	78 14.2%	37 6.7%	551 100.0%	
	179 32.5%	134 24.3%	123 22.3%	78 14.2%	37 6.7%	551 100.0%	
좋다	179 32.5%	134 24.3%	123 22.3%	78 14.2%	37 6.7%	551 100.0%	
	179 32.5%	134 24.3%	123 22.3%	78 14.2%	37 6.7%	551 100.0%	

24)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24)</sup>
전체		357 23.8%	309 20.6%	426 28.4%	295 19.6%	115 7.7%	1,502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2 10.5%	2 10.5%	4 21.1%	5 26.3%	6 31.6%	19 100.0%
	부족한편이다	4 7.3%	11 20.0%	17 30.9%	13 23.6%	10 18.2%	55 100.0%
	보통이다	125 19.7%	119 18.7%	198 31.2%	134 21.1%	59 9.3%	635 100.0%
	잘사는편이다	95 23.1%	103 25.1%	114 27.7%	85 20.7%	14 3.4%	411 100.0%
	잘산다	130 34.2%	74 19.5%	92 24.2%	59 15.5%	25 6.6%	380 100.0%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과의존율이 24.9%(949명 중 236명)로 수정구 30.0%(270명 중 81명), 중원구 32.7%(281명 중 92명) 과의존율보다 낮았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으로 응답한 학생의 과의존율이 38.2%(136명 중 52명)로 가장 높았고,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과의존율이 20.9%(551명 중 115명)로 가장 낮았다. 가정경제사정별 과의존율은 ‘부족하다’로 응답한 청소년이 57.9%(19명 중 11명)로 가장 높았고,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과의존율이 22.1%(380명 중 84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 스마트폰 사용시간 자기조절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남시 전체 청소년의 27.6%가 ‘그렇다’를, 20.5%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보통이다’는 34.1%로 나타났는데, ‘보통’ 이상이 82.2%를 차지하여 스마트폰 사용시간 자기조절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4-8> 스마트폰 사용시간 자기조절(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25)</sup>
전체		76	191	511	414	308	1,500
		5.1%	12.7%	34.1%	27.6%	20.5%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42	73	244	176	184	719
		5.8%	10.2%	33.9%	24.5%	25.6%	100.0%
	중학교	13	54	120	126	56	369
		3.5%	14.6%	32.5%	34.1%	15.2%	100.0%
	고등학교	21	64	147	112	68	412
		5.1%	15.5%	35.7%	27.2%	16.5%	100.0%
성별	남자	45	94	259	217	156	771
		5.8%	12.2%	33.6%	28.1%	20.2%	100.0%
	여자	30	97	252	197	152	728
		4.1%	13.3%	34.6%	27.1%	20.9%	100.0%
거주구별	수정구	10	45	106	68	43	272
		3.7%	16.5%	39.0%	25.0%	15.8%	100.0%
	중원구	12	29	111	71	57	280
		4.3%	10.4%	39.6%	25.4%	20.4%	100.0%
	분당구	54	117	295	274	208	948
		5.7%	12.3%	31.1%	28.9%	21.9%	100.0%

25)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25)</sup>
전체		76 5.1%	191 12.7%	511 34.1%	414 27.6%	308 20.5%	1,500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3 3.6%	20 23.8%	28 33.3%	18 21.4%	15 17.9%	84 100.0%
	안좋은편이다	1 .7%	30 22.1%	56 41.2%	33 24.3%	16 11.8%	136 100.0%
	보통이다	18 4.2%	62 14.5%	170 39.8%	122 28.6%	55 12.9%	427 100.0%
	좋은편이다	12 4.0%	34 11.3%	116 38.5%	101 33.6%	38 12.6%	301 100.0%
	좋다	40 7.3%	45 8.2%	141 25.6%	140 25.4%	185 33.6%	551 100.0%
	부족하다	1 5.6%	3 16.7%	6 33.3%	5 27.8%	3 16.7%	18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한편이다	2 3.6%	15 26.8%	17 30.4%	16 28.6%	6 10.7%	56 100.0%
	보통이다	24 3.8%	94 14.8%	244 38.4%	167 26.3%	106 16.7%	635 100.0%
	잘사는편이다	21 5.1%	43 10.5%	146 35.6%	126 30.7%	74 18.0%	410 100.0%
	잘산다	28 7.4%	35 9.2%	98 25.8%	100 26.3%	119 31.3%	380 100.0%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률(‘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50.1%(719명 중 360명)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의 자기조절률이 43.7%(412명 중 180명)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자기조절률이 48.4%(771명 중 373명), 여자 청소년은 47.9%(728명 중 349명)로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자기조절률이 50.8%(948명 중 482명)로 가장

높았고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자기조절률이 40.8%(272명 중 111명)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을수록 자기조절률이 높았고,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자기조절률이 57.6%(380명 중 219명)로 가장 높고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자기조절률이 39.3%(56명 중 22명)로 가장 낮았다.

### 3) 스마트폰 사용과 계획 차질 정도

스마트폰 사용하느라 계획했던 일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지는 않은지 계획 차질 정도를 살펴보았다.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계획했던 일(공부, 숙제, 학원 등)을 하기 어렵다’라는 문항에 성남시 청소년의 29.7%(전체 1,498명 중 445명 응답)가 ‘전혀 그렇지 않다’로, 22.8%(1,498명 중 342명)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차질 없이 제대로 실행한 ‘계획실행률’은 52.5%(1,498명 중 787명)로 조사되었고, 성남시 청소년의 과반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장소를 조절하며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계획실행률이 70.1%(718명 중 503명)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32.8%(411명 중 135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계획실행률이 56.3%(773명 중 435명)로 여자 청소년 48.6%(728명 중 354명)보다 높았다. 거주구별로는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계획실행률이 48.7%(271명 중 132명)로 가장 낮았고, 중원구 거주 청소년이 53.9%(282명 중 152명), 분당구 거주 청소년

년이 53.2%(949명 중 505명)로 나타났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을수록 계획실행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인 학생의 계획실행률이 30.7%(137명 중 42명)로 가장 낮고 학교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계획실행률이 71.1%(551명 중 392명)로 현저히 높았다. 한편 가정경제사정별로는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계획실행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계획실행률이 29.6%(54명 중 16명)로 가장 낮았고 ‘잘산다’로 응답한 청소년의 계획실행률이 64.8%(381명 중 247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9> 스마트폰 사용과 계획 차질 정도(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26)</sup>
전체		445 29.7%	342 22.8%	417 27.8%	229 15.3%	65 4.3%	1,498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325 45.3%	178 24.8%	135 18.8%	67 9.3%	13 1.8%	718 100.0%
		58 15.7%	91 24.7%	125 33.9%	70 19.0%	25 6.8%	369 100.0%
	중학교	62 15.1%	73 17.8%	157 38.2%	92 22.4%	27 6.6%	411 100.0%
		245 31.7%	190 24.6%	201 26.0%	107 13.8%	30 3.9%	773 100.0%
	고등학교	201 27.6%	153 21.0%	217 29.8%	122 16.8%	35 4.8%	728 100.0%
		여자					

26)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26)</sup>
전체		445 29.7%	342 22.8%	417 27.8%	229 15.3%	65 4.3%	1,498 100.0%
거주구별	수정구	70 25.8%	62 22.9%	85 31.4%	44 16.2%	10 3.7%	271 100.0%
	중원구	78 27.7%	74 26.2%	71 25.2%	46 16.3%	13 4.6%	282 100.0%
	분당구	297 31.3%	208 21.9%	261 27.5%	140 14.8%	43 4.5%	949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18 21.4%	10 11.9%	31 36.9%	14 16.7%	11 13.1%	84 100.0%
	안좋은편이다	14 10.2%	28 20.4%	47 34.3%	39 28.5%	9 6.6%	137 100.0%
	보통이다	70 16.4%	97 22.7%	156 36.4%	84 19.6%	21 4.9%	428 100.0%
	좋은편이다	69 23.0%	90 30.0%	84 28.0%	48 16.0%	9 3.0%	300 100.0%
	좋다	274 49.7%	118 21.4%	99 18.0%	45 8.2%	15 2.7%	551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3 15.8%	4 21.1%	9 47.4%	3 15.8%	0 .0%	19 100.0%
	부족한편이다	8 14.8%	8 14.8%	22 40.7%	10 18.5%	6 11.1%	54 100.0%
	보통이다	141 22.2%	154 24.2%	207 32.5%	109 17.1%	25 3.9%	636 100.0%
	잘사는편이다	125 30.5%	97 23.7%	109 26.6%	66 16.1%	13 3.2%	410 100.0%
	잘산다	167 43.8%	80 21.0%	71 18.6%	42 11.0%	21 5.5%	381 100.0%

## 5. 체험활동

### 1) 체험활동 참여 경험

성남시 청소년의 2019-2020년 체험활동 참여 경험과 만족도를 살펴 보았다. 청소년 체험활동은 건강·보건,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인성)개발 활동 등 총 9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9개 체험활동 영역 중 (온라인/오프라인/온오프라인)참여 경험이 가장 높은 활동 영역은 건강·보건 활동 영역으로 전체 학생의 92.3% (전체 1,498명 중 1,382명)가 참여경험이 있었다. 반면 (온라인/오프라인/온오프라인)참여 경험이 가장 적었던 영역은 모험개척 활동 영역으로 34.4%(1,496명 중 514명)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5.6%(1,496명 중 982명)가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온라인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던 활동 영역은 건강·보건 활동 영역으로 21.4%(전체 1,498명 중 320명 참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고, 온라인 참여비율이 가장 낮은 활동 영역은 모험개척 활동 영역 7.6%(1,496명 중 113명)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 영역은 직업체험(41.0%, 전체 1,497명 중 614명 참여)과 봉사(38.9%, 1,495명 중 582명) 활동 영역 이었고, 오프라인 참여비율이 가장 낮은 활동 영역은 모험개척 활동 영역 19.0%(1,496명 중 284명 참여)이었다.

온오프라인 참여가 활발한 활동 영역은 건강·보건(39.5%, 전체 1,498명 중 592명 참여), 문화·예술(29.0%, 1,497명 중 434명), 직업 체험(28.5%, 1,497명 중 427명) 활동 순으로 나타났는데, 온오프라인 참여가 낮은 영역은 모험개척(7.8%, 1,496명 중 117명)과 환경보존(13.0%, 1,498명 중 194명) 활동 영역이었다.

<표 4-10> 청소년 체험활동 전체 참여도(명, %)

체험활동 영역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sup>27)</sup>
건강·보건	320	470	592	116	1,498
	21.4%	31.4%	39.5%	7.7%	100.0%
과학정보	180	495	243	583	1,501
	12.0%	33.0%	16.2%	38.8%	100.0%
교류	261	301	232	702	1,496
	17.4%	20.1%	15.5%	46.9%	100.0%
모험개척	113	284	117	982	1,496
	7.6%	19.0%	7.8%	65.6%	100.0%
문화·예술	203	545	434	315	1,497
	13.6%	36.4%	29.0%	21.0%	100.0%
봉사	165	582	216	532	1,495
	11.0%	38.9%	14.4%	35.6%	100.0%
직업체험	248	614	427	208	1,497
	16.6%	41.0%	28.5%	13.9%	100.0%
환경보존	166	536	194	602	1,498
	11.1%	35.8%	13.0%	40.2%	100.0%
자기(인성)개발	192	477	244	583	1,496
	12.8%	31.9%	16.3%	39.0%	100.0%

27)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가. 건강·보건활동

건강·보건활동의 배경변인별 참여 경험은, 학교급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각각 92.5%로 비슷했고 중학생의 경우 91.6%가 건강·보건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참여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고, 거주구별로는 중원구와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이 낮았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건강·보건활동 참여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1> 배경변인별 건강·보건활동 참여도(명, %)

배경변인		건강·보건활동 참여도				전체 <sup>28)</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320 21.4%	470 31.4%	592 39.5%	116 7.7%	1,498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75 24.4%	194 27.0%	295 41.1%	54 7.5%	718 100.0%
		65 17.6%	133 36.0%	140 37.9%	31 8.4%	369 100.0%
	중학교	80 19.5%	143 34.8%	157 38.2%	31 7.5%	411 100.0%
		80 19.5%	143 34.8%	157 38.2%	31 7.5%	411 100.0%
	고등학교	80 19.5%	143 34.8%	157 38.2%	31 7.5%	411 100.0%
		80 19.5%	143 34.8%	157 38.2%	31 7.5%	411 100.0%

28)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건강·보건활동 참여도				전체 <sup>28)</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320 21.4%	470 31.4%	592 39.5%	116 7.7%	1,498 100.0%
성별	남자	182 23.6%	232 30.1%	278 36.0%	80 10.4%	772 100.0%
	여자	138 19.0%	238 32.7%	314 43.2%	37 5.1%	727 100.0%
거주구별	수정구	54 19.9%	100 36.9%	82 30.3%	35 12.9%	271 100.0%
	중원구	58 20.7%	93 33.2%	111 39.6%	18 6.4%	280 100.0%
	분당구	208 21.9%	277 29.2%	399 42.1%	64 6.8%	948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20 23.8%	31 36.9%	24 28.6%	9 10.7%	84 100.0%
	안좋은편이다	19 14.0%	49 36.0%	56 41.2%	12 8.8%	136 100.0%
	보통이다	99 23.1%	149 34.8%	144 33.6%	36 8.4%	428 100.0%
	좋은편이다	59 19.7%	83 27.7%	130 43.3%	28 9.3%	300 100.0%
	좋다	124 22.5%	157 28.5%	238 43.2%	32 5.8%	551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8 40.0%	6 30.0%	4 20.0%	2 10.0%	20 100.0%
	부족한편이다	11 20.0%	22 40.0%	17 30.9%	5 9.1%	55 100.0%
	보통이다	129 20.3%	202 31.8%	250 39.4%	54 8.5%	635 100.0%
	잘사는편이다	93 22.7%	129 31.5%	162 39.5%	26 6.3%	410 100.0%
	잘산다	79 20.8%	111 29.2%	160 42.1%	30 7.9%	380 100.0%

## 나. 과학정보활동

배경변인별 과학정보활동 참여도를 살펴보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의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참여율이 여자 청소년의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고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과학정보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배경변인별 과학정보활동 참여도(명, %)

배경변인		과학정보활동 참여도				전체 <sup>29)</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180	495	243	583	1,501
		12.0%	33.0%	16.2%	38.8%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00	221	132	267	720
		13.9%	30.7%	18.3%	37.1%	100.0%
	중학교	43	124	63	138	368
		11.7%	33.7%	17.1%	37.5%	100.0%
	고등학교	37	150	48	178	413
		9.0%	36.3%	11.6%	43.1%	100.0%
성별	남자	105	243	136	286	770
		13.6%	31.6%	17.7%	37.1%	100.0%
	여자	74	252	106	296	728
		10.2%	34.6%	14.6%	40.7%	100.0%

29)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과학정보활동 참여도				전체 <sup>29)</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180	495	243	583	1,501
		12.0%	33.0%	16.2%	38.8%	100.0%
거주구별	수정구	32	79	34	125	270
		11.9%	29.3%	12.6%	46.3%	100.0%
	중원구	29	103	36	112	280
		10.4%	36.8%	12.9%	40.0%	100.0%
	분당구	119	312	172	345	948
		12.6%	32.9%	18.1%	36.4%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11	20	10	42	83
		13.3%	24.1%	12.0%	50.6%	100.0%
	안좋은편이다	10	46	21	60	137
		7.3%	33.6%	15.3%	43.8%	100.0%
	보통이다	39	148	58	182	427
		9.1%	34.7%	13.6%	42.6%	100.0%
	좋은편이다	38	95	50	117	300
		12.7%	31.7%	16.7%	39.0%	100.0%
	좋다	81	186	103	181	551
		14.7%	33.8%	18.7%	32.8%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1	4	4	11	20
		5.0%	20.0%	20.0%	55.0%	100.0%
	부족한편이다	2	21	5	26	54
		3.7%	38.9%	9.3%	48.1%	100.0%
	보통이다	86	182	97	269	634
		13.6%	28.7%	15.3%	42.4%	100.0%
	잘사는편이다	43	158	67	143	411
		10.5%	38.4%	16.3%	34.8%	100.0%
	잘산다	47	130	70	134	381
		12.3%	34.1%	18.4%	35.2%	100.0%

#### 다. 교류활동

교류활동의 배경변인별 참여 경험은,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거주구별로는 중원구 거주 청소년이,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동일한 배경변인의 다른 집단에 비해 교류활동에 참여율이 높았다.

<표 4-13> 배경변인별 교류활동 참여도(명, %)

배경변인		교류활동 참여도				전체 <sup>30)</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261 17.4%	301 20.1%	232 15.5%	702 46.9%	1,496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59 22.1%	152 21.2%	142 19.8%	265 36.9%	718 100.0%
	중학교	48 13.1%	82 22.4%	43 11.7%	193 52.7%	366 100.0%
	고등학교	54 13.1%	67 16.3%	47 11.4%	244 59.2%	412 100.0%
성별	남자	135 17.5%	140 18.2%	123 16.0%	372 48.3%	770 100.0%
	여자	127 17.4%	162 22.3%	109 15.0%	330 45.3%	728 100.0%
거주구별	수정구	33 12.2%	56 20.7%	34 12.6%	147 54.4%	270 100.0%
	중원구	48 17.2%	68 24.4%	39 14.0%	124 44.4%	279 100.0%
	분당구	180 19.0%	177 18.7%	159 16.8%	432 45.6%	948 100.0%

30)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교류활동 참여도				전체 <sup>30)</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261	301	232	702	1,496
		17.4%	20.1%	15.5%	46.9%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15	17	7	44	83
		18.1%	20.5%	8.4%	53.0%	100.0%
	안좋은편이다	15	28	26	68	137
		10.9%	20.4%	19.0%	49.6%	100.0%
	보통이다	59	93	55	220	427
		13.8%	21.8%	12.9%	51.5%	100.0%
	좋은편이다	59	59	42	140	300
		19.7%	19.7%	14.0%	46.7%	100.0%
	좋다	114	105	101	230	550
		20.7%	19.1%	18.4%	41.8%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5	3	5	5	18
		27.8%	16.7%	27.8%	27.8%	100.0%
	부족한편이다	6	9	3	36	54
		11.1%	16.7%	5.6%	66.7%	100.0%
	보통이다	114	113	97	311	635
		18.0%	17.8%	15.3%	49.0%	100.0%
	잘사는편이다	78	84	62	186	410
		19.0%	20.5%	15.1%	45.4%	100.0%
	잘산다	58	93	64	164	379
		15.3%	24.5%	16.9%	43.3%	100.0%

#### 라. 모험개척활동

모험개척활동의 참여율은 34.4%(전체 1,496명 중 514명 참여)로 9개 참여활동 영역 중 가장 낮았다.

배경변인별 참여 경험은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참여비율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참여비율이 다소 높았고, 거주구별로는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이 수정

구와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성적  
 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었고, 가정경제사  
 정별로는 잘살수록 모험개척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  
 데,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표 4-14> 배경변인별 모험개척활동 참여도(명, %)

배경변인		모험개척활동 참여도				전체 <sup>31)</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113 7.6%	284 19.0%	117 7.8%	982 65.6%	1,496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58 8.1%	179 25.0%	70 9.8%	409 57.1%	716 100.0%
	중학교	26 7.1%	57 15.5%	21 5.7%	264 71.7%	368 100.0%
	고등학교	29 7.0%	48 11.7%	26 6.3%	309 75.0%	412 100.0%
성별	남자	71 9.2%	146 19.0%	65 8.5%	487 63.3%	769 100.0%
	여자	41 5.6%	138 19.0%	52 7.2%	495 68.2%	726 100.0%
거주구별	수정구	21 7.8%	41 15.2%	28 10.4%	180 66.7%	270 100.0%
	중원구	29 10.4%	53 18.9%	27 9.6%	171 61.1%	280 100.0%
	분당구	62 6.5%	191 20.2%	63 6.7%	631 66.6%	947 100.0%

31)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  
 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모험게척활동 참여도				전체 <sup>31)</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113	284	117	982	1,496
		7.6%	19.0%	7.8%	65.6%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7	9	4	64	84
		8.3%	10.7%	4.8%	76.2%	100.0%
	안좋은편이다	11	19	10	97	137
		8.0%	13.9%	7.3%	70.8%	100.0%
	보통이다	23	80	29	296	428
		5.4%	18.7%	6.8%	69.2%	100.0%
	좋은편이다	21	47	26	206	300
		7.0%	15.7%	8.7%	68.7%	100.0%
	좋다	50	130	49	320	549
		9.1%	23.7%	8.9%	58.3%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1	1	3	14	19
		5.3%	5.3%	15.8%	73.7%	100.0%
	부족한편이다	2	11	1	41	55
		3.6%	20.0%	1.8%	74.5%	100.0%
	보통이다	51	105	51	429	636
		8.0%	16.5%	8.0%	67.5%	100.0%
	잘사는편이다	28	78	36	267	409
		6.8%	19.1%	8.8%	65.3%	100.0%
	잘산다	31	90	26	232	379
		8.2%	23.7%	6.9%	61.2%	100.0%

#### 마.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의 배경변인별 참여 경험은 다음 <표 4-15>와 같이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참여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현저히 높았다. 거주구별로는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이 가장 낮고 중원구와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중원구와 분당구 거주 청소년



년의 참여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중’거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정제사정별로는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15> 배경변인별 문화·예술활동 참여도(명, %)

배경변인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전체 <sup>32)</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203 13.6%	545 36.4%	434 29.0%	315 21.0%	1,497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04 14.5%	243 33.9%	237 33.1%	132 18.4%	716 100.0%
	중학교	49 13.3%	150 40.8%	90 24.5%	79 21.5%	368 100.0%
	고등학교	50 12.1%	152 36.8%	107 25.9%	104 25.2%	413 100.0%
성별	남자	113 14.7%	254 33.0%	205 26.6%	198 25.7%	770 100.0%
	여자	90 12.4%	291 40.0%	229 31.5%	117 16.1%	727 100.0%
거주구별	수정구	38 14.0%	91 33.6%	75 27.7%	67 24.7%	271 100.0%
	중원구	39 14.0%	110 39.6%	73 26.3%	56 20.1%	278 100.0%
	분당구	126 13.3%	343 36.2%	286 30.2%	192 20.3%	947 100.0%

32)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전체 <sup>32)</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203	545	434	315	1,497
		13.6%	36.4%	29.0%	21.0%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12	36	18	17	83
		14.5%	43.4%	21.7%	20.5%	100.0%
	안좋은편이다	14	47	41	35	137
		10.2%	34.3%	29.9%	25.5%	100.0%
	보통이다	50	153	109	115	427
		11.7%	35.8%	25.5%	26.9%	100.0%
	좋은편이다	50	110	90	51	301
		16.6%	36.5%	29.9%	16.9%	100.0%
	좋다	77	198	176	97	548
		14.1%	36.1%	32.1%	17.7%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3	4	7	5	19
		15.8%	21.1%	36.8%	26.3%	100.0%
	부족한편이다	3	19	19	14	55
		5.5%	34.5%	34.5%	25.5%	100.0%
	보통이다	104	212	172	147	635
		16.4%	33.4%	27.1%	23.1%	100.0%
	잘사는편이다	50	151	137	72	410
		12.2%	36.8%	33.4%	17.6%	100.0%
	잘산다	43	158	99	78	378
		11.4%	41.8%	26.2%	20.6%	100.0%

#### 바.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배경변인별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다른 참여활동과 달리 초등학생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았고, 중학생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참여비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다소 높았고, 거주구별 참여비율은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분당구, 수정구 거주 순으로 조사되었

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안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적이 ‘좋’거나 ‘좋은 편’인 학생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고 ‘부족한 편’인 청소년의 참여율이 가장 낮아 가정경제사정별 봉사활동 참여율의 경향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6> 배경변인별 봉사활동 참여도(명, %)

배경변인		봉사활동 참여도				전체 <sup>33)</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165 11.0%	582 38.9%	216 14.4%	532 35.6%	1,495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81 11.3%	218 30.4%	81 11.3%	337 47.0%	717 100.0%
	중학교	42 11.4%	181 49.3%	58 15.8%	86 23.4%	367 100.0%
	고등학교	42 10.2%	183 44.5%	77 18.7%	109 26.5%	411 100.0%
성별	남자	103 13.4%	260 33.7%	119 15.4%	289 37.5%	771 100.0%
	여자	63 8.7%	322 44.4%	97 13.4%	244 33.6%	726 100.0%
거주구별	수정구	32 11.9%	93 34.4%	34 12.6%	111 41.1%	270 100.0%
	중원구	28 10.0%	130 46.3%	35 12.5%	88 31.3%	281 100.0%
	분당구	106 11.2%	359 37.9%	148 15.6%	333 35.2%	946 100.0%

33)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봉사활동 참여도				전체 <sup>33)</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165	582	216	532	1,495
		11.0%	38.9%	14.4%	35.6%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10	30	13	29	82
		12.2%	36.6%	15.9%	35.4%	100.0%
	안좋은편이다	19	57	20	41	137
		13.9%	41.6%	14.6%	29.9%	100.0%
	보통이다	43	177	64	144	428
		10.0%	41.4%	15.0%	33.6%	100.0%
	좋은편이다	31	121	38	110	300
		10.3%	40.3%	12.7%	36.7%	100.0%
	좋다	63	197	81	209	550
		11.5%	35.8%	14.7%	38.0%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3	7	4	5	19
		15.8%	36.8%	21.1%	26.3%	100.0%
	부족한편이다	5	24	5	22	56
		8.9%	42.9%	8.9%	39.3%	100.0%
	보통이다	77	248	78	232	635
		12.1%	39.1%	12.3%	36.5%	100.0%
	잘사는편이다	36	153	72	148	409
		8.8%	37.4%	17.6%	36.2%	100.0%
	잘산다	46	150	58	126	380
		12.1%	39.5%	15.3%	33.2%	100.0%

### 사. 직업체험활동

직업체험활동 참여도는 9개 체험활동 중 높은 편이었는데, 배경변인별 직업체험활동 참여도를 살펴보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의 참여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참여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고, 거주구별 참여율은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순이었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을수록 직업체험활동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가정경제사정 별로는 ‘부족하다’로 응답한 청소년과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았다.

<표 4-17> 배경변인별 직업체험활동 참여도(명, %)

배경변인		직업체험활동 참여도				전체 <sup>34)</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248 16.6%	614 41.0%	427 28.5%	208 13.9%	1,497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28 17.9%	303 42.3%	195 27.2%	91 12.7%	717 100.0%
	중학교	53 14.4%	155 42.2%	119 32.4%	40 10.9%	367 100.0%
	고등학교	67 16.2%	156 37.8%	113 27.4%	77 18.6%	413 100.0%
성별	남자	136 17.7%	288 37.4%	213 27.7%	133 17.3%	770 100.0%
	여자	112 15.4%	325 44.8%	214 29.5%	75 10.3%	726 100.0%
거주구별	수정구	43 15.9%	108 39.9%	72 26.6%	48 17.7%	271 100.0%
	중원구	40 14.3%	143 51.3%	63 22.6%	33 11.8%	279 100.0%
	분당구	165 17.4%	362 38.3%	292 30.9%	127 13.4%	946 100.0%

34)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직업체험활동 참여도				전체 <sup>34)</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248 16.6%	614 41.0%	427 28.5%	208 13.9%	1,497 100.0%	
학교 성적별	안 좋다	17 20.7%	27 32.9%	18 22.0%	20 24.4%	82 100.0%	
		16 11.7%	48 35.0%	50 36.5%	23 16.8%	137 100.0%	
	보통이다	71 16.6%	186 43.5%	108 25.2%	63 14.7%	428 100.0%	
		50 16.6%	129 42.9%	86 28.6%	36 12.0%	301 100.0%	
	좋다	94 17.2%	223 40.7%	165 30.1%	66 12.0%	548 100.0%	
		2 11.1%	6 33.3%	8 44.4%	2 11.1%	18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8 14.8%	24 44.4%	11 20.4%	11 20.4%	54 100.0%
			118 18.6%	255 40.2%	173 27.2%	89 14.0%	635 100.0%
		보통이다	64 15.6%	167 40.8%	129 31.5%	49 12.0%	409 100.0%
			56 14.8%	161 42.5%	105 27.7%	57 15.0%	379 100.0%

#### 아. 환경보존활동

환경보존활동 참여도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보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참여도가 남자 청소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거주구별로는 중원구와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이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

났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환경보존활동 참여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참여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8> 배경변인별 환경보존활동 참여도(명, %)

배경변인		환경보존활동 참여도				전체 <sup>35)</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166	536	194	602	1,498
		11.1%	35.8%	13.0%	40.2%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80	313	98	227	718
		11.1%	43.6%	13.6%	31.6%	100.0%
	중학교	42	128	49	149	368
		11.4%	34.8%	13.3%	40.5%	100.0%
	고등학교	44	95	47	226	412
		10.7%	23.1%	11.4%	54.9%	100.0%
성별	남자	100	242	118	311	771
		13.0%	31.4%	15.3%	40.3%	100.0%
	여자	66	294	76	290	726
		9.1%	40.5%	10.5%	39.9%	100.0%
거주구별	수정구	22	97	32	119	270
		8.1%	35.9%	11.9%	44.1%	100.0%
	중원구	30	103	40	107	280
		10.7%	36.8%	14.3%	38.2%	100.0%
	분당구	114	335	121	376	946
		12.1%	35.4%	12.8%	39.7%	100.0%

35)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환경보존활동 참여도				전체 <sup>35)</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166 11.1%	536 35.8%	194 13.0%	602 40.2%	1,498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13 15.7%	18 21.7%	10 12.0%	42 50.6%	83 100.0%
		12 8.8%	40 29.2%	19 13.9%	66 48.2%	137 100.0%
	안좋은편이다	45 10.5%	137 32.0%	50 11.7%	196 45.8%	428 100.0%
		31 10.3%	115 38.3%	40 13.3%	114 38.0%	300 100.0%
	보통이다	66 12.0%	226 41.1%	74 13.5%	184 33.5%	550 100.0%
		2 10.5%	6 31.6%	2 10.5%	9 47.4%	19 100.0%
	부족하다	6 11.1%	11 20.4%	2 3.7%	35 64.8%	54 100.0%
		80 12.6%	227 35.8%	78 12.3%	249 39.3%	634 100.0%
	부족한편이다	34 8.3%	144 35.2%	59 14.4%	172 42.1%	409 100.0%
		44 11.6%	147 38.7%	52 13.7%	137 36.1%	380 100.0%
보통이다					634	
					409	
잘사는편이다					409	
					380	
잘산다					380	
					380	

#### 자. 자기(인성)개발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 정도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보았는데,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의 참여도가 가장 높고 초등학생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참여도가 높았고, 거주구별로  
 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다른 구 거주 청소년보다 자기(인성)개발활  
 동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좋은 편’인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안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아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도에 경향이나 추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19> 배경변인별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도(명, %)

배경변인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도				전체 <sup>36)</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192 12.8%	477 31.9%	244 16.3%	583 39.0%	1,496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6 13.4%	206 28.8%	117 16.3%	297 41.5%	716 100.0%
		44 12.0%	128 34.9%	64 17.4%	131 35.7%	367 100.0%
	중학교	52 12.6%	143 34.6%	63 15.3%	155 37.5%	413 100.0%
		111 14.4%	212 27.6%	130 16.9%	316 41.1%	769 100.0%
	고등학교	81 11.2%	264 36.4%	114 15.7%	267 36.8%	726 100.0%
		26 9.6%	89 33.0%	37 13.7%	118 43.7%	270 100.0%
성별	수정구	42 15.0%	84 30.0%	43 15.4%	111 39.6%	280 100.0%
		124 13.1%	304 32.1%	164 17.3%	354 37.4%	946 100.0%
	중원구	26 9.6%	89 33.0%	37 13.7%	118 43.7%	270 100.0%
		42 15.0%	84 30.0%	43 15.4%	111 39.6%	280 100.0%
	분당구	124 13.1%	304 32.1%	164 17.3%	354 37.4%	946 100.0%
		26 9.6%	89 33.0%	37 13.7%	118 43.7%	270 100.0%

36)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도				전체 <sup>36)</sup>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오프라인)	없다	
전체		192 12.8%	477 31.9%	244 16.3%	583 39.0%	1,496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12	20	14	37	83
		14.5%	24.1%	16.9%	44.6%	100.0%
	안좋은편이다	15	46	22	53	136
		11.0%	33.8%	16.2%	39.0%	100.0%
	보통이다	55	138	55	179	427
		12.9%	32.3%	12.9%	41.9%	100.0%
	좋은편이다	38	101	54	108	301
		12.6%	33.6%	17.9%	35.9%	100.0%
	좋다	72	170	99	207	548
		13.1%	31.0%	18.1%	37.8%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3	6	6	4	19
		15.8%	31.6%	31.6%	21.1%	100.0%
	부족한편이다	6	14	9	26	55
		10.9%	25.5%	16.4%	47.3%	100.0%
	보통이다	90	202	83	260	635
		14.2%	31.8%	13.1%	40.9%	100.0%
	잘사는편이다	44	150	75	140	409
		10.8%	36.7%	18.3%	34.2%	100.0%
	잘산다	49	105	71	154	379
		12.9%	27.7%	18.7%	40.6%	100.0%

## 2) 체험활동 만족도

배경변인별 체험활동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성남시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은 체험활동 영역은 직업체험(28.5%) 활동이었고,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체험활동은 환경보존(2.3%), 교류(3.3%), 모험개척(4.7%) 등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직업체험활동 만족도가 34.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의 직업체험활동 만족도가 29.4%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교급별 체험활동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중학생의 교류활동(1.1%), 고등학생의 교류활동(1.5%) 영역이었는데, 초등학생의 환경보존활동(2.2%), 중학생의 환경보존활동(2.2%), 고등학생의 환경보존활동(2.4%) 영역의 체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직업체험활동(31.8%)과 문화·예술활동(29.3%) 영역의 만족도가 높았고, 남자 청소년은 직업체험활동(25.4%)과 과학정보활동(18.3%)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구별로는 지역에 관계없이 직업체험활동 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수정구 29.6%, 중원구 35.7%, 분당구 26.1%).

<표 4-20> 배경변인별 체험활동 만족도(명, %)

구분	건강 보건	과학 정보	교류	모험 개척	문화 예술	봉사	직업 체험	환경 보존	자기 (인성) 개발	
전체	109	177	50	70	301	115	<b>427</b>	34	214	
	7.3%	11.8%	3.3%	4.7%	20.1%	7.7%	<b>28.5%</b>	2.3%	14.3%	
학교급	초	61	86	40	37	125	34	249	16	69
		8.5%	12.0%	5.6%	5.2%	17.4%	4.7%	34.7%	2.2%	9.6%
	중	18	37	4	21	83	30	108	8	58
		4.9%	10.1%	1.1%	5.7%	22.6%	8.2%	<b>29.4%</b>	2.2%	15.8%
	고	30	54	6	12	93	51	70	10	87
		7.3%	13.1%	1.5%	2.9%	<b>22.5%</b>	12.3%	16.9%	2.4%	21.1%
성별	남	69	141	25	47	88	60	196	22	123
		8.9%	18.3%	3.2%	6.1%	11.4%	7.8%	<b>25.4%</b>	2.9%	16.0%
	여	40	37	25	23	213	55	231	12	90
	5.5%	5.1%	3.4%	3.2%	29.3%	7.6%	<b>31.8%</b>	1.7%	12.4%	

구분	건강 보건	과학 정보	교류	모험 개척	문화 예술	봉사	직업 체험	환경 보존	자기 (인성) 개발	
전체	109	177	50	70	301	115	427	34	214	
	7.3%	11.8%	3.3%	4.7%	20.1%	7.7%	28.5%	2.3%	14.3%	
거주구별	수정구	30	19	4	11	61	18	80	4	43
		11.1%	7.0%	1.5%	4.1%	22.6%	6.7%	29.6%	1.5%	15.9%
	중원구	28	26	6	12	44	26	100	7	31
		10.0%	9.3%	2.1%	4.3%	15.7%	9.3%	35.7%	2.5%	11.1%
	분당구	51	133	39	46	196	71	247	23	141
		5.4%	14.0%	4.1%	4.9%	20.7%	7.5%	26.1%	2.4%	14.9%
학교성적별	안좋다	5	9	1	4	22	9	19	0	15
		6.0%	10.7%	1.2%	4.8%	26.2%	10.7%	22.6%	.0%	17.9%
	안좋은 편이다	14	11	2	7	30	12	31	3	27
		10.2%	8.0%	1.5%	5.1%	21.9%	8.8%	22.6%	2.2%	19.7%
	보통 이다	31	34	11	17	86	40	124	10	75
		7.2%	7.9%	2.6%	4.0%	20.1%	9.3%	29.0%	2.3%	17.5%
	좋은 편이다	25	37	16	14	69	23	76	4	36
		8.3%	12.3%	5.3%	4.7%	23.0%	7.7%	25.3%	1.3%	12.0%
	좋다	35	86	19	28	95	31	178	17	61
		6.4%	15.6%	3.5%	5.1%	17.3%	5.6%	32.4%	3.1%	11.1%
가정경제사정별	부족하다	4	1	2	1	4	2	2	0	4
		20.0%	5.0%	10.0%	5.0%	20.0%	10.0%	10.0%	.0%	20.0%
	부족한 편이다	5	5	1	1	12	6	14	0	10
		9.3%	9.3%	1.9%	1.9%	22.2%	11.1%	25.9%	.0%	18.5%
	보통이다	50	57	15	30	119	57	191	15	101
		7.9%	9.0%	2.4%	4.7%	18.7%	9.0%	30.1%	2.4%	15.9%
잘사는 편이다	26	53	15	23	101	21	109	8	52	
	6.4%	13.0%	3.7%	5.6%	24.8%	5.1%	26.7%	2.0%	12.7%	
잘산다	24	62	16	14	65	30	111	11	47	
	6.3%	16.3%	4.2%	3.7%	17.1%	7.9%	29.2%	2.9%	12.4%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안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문화·예술활동(26.2%)과 직업체험활동(22.6%) 영역의 만족도가 높았고 그 외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 이상인 집단에서는 직업체험활동 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안 좋은 편 22.6%, 보통 29.0%, 좋은 편 25.3%, 좋다 32.4%).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청소년 집단에서는 건강·보건활동, 문화·예술활동과 자기(인성)개발활동 영역의 만족도가 20.0%로 높았고, 그 외 다른 집단에서는 가정경제사정에 관계없이 직업체험활동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족한 편 25.9%, 보통 30.1%, 잘사는 편 26.7%, 잘산다 29.2%).

### 3) 체험활동 선호도

체험활동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하고 싶은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2순위까지 선택하게 하였다.

온라인 방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1순위 체험활동은 건강·보건활동(24.9%)과 문화·예술활동(16.6%)이었고, 2순위 체험활동은 과학정보활동(17.1%)과 자기(인성)개발활동(14.3%), 문화·예술활동(13.7%)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방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1순위 체험활동은 직업체험활동(22.9%)과 문화·예술활동(17.3%)이었고, 2순위 체험활동은 1순위와 마찬가지로 직업체험활동(18.0%)과 문화·예술활동(14.1%)으로 나타났다.

<표 4-21> 배경변인별 온/오프라인 체험활동 선호도(명, %)

구분		건강 보건	과학 정보	교류	모험 개척	문화 예술	봉사	직업 체험	환경 보존	자기 (인성) 개발
온 라인	1순위	373	236	142	81	249	60	155	35	169
		24.9%	15.7%	9.5%	5.4%	16.6%	4.0%	10.3%	2.3%	11.3%
	2순위	194	256	182	134	205	73	148	93	214
		12.9%	17.1%	12.1%	8.9%	13.7%	4.9%	9.9%	6.2%	14.3%
오프 라인	1순위	201	170	102	203	260	94	343	51	75
		13.4%	11.3%	6.8%	13.5%	17.3%	6.3%	22.9%	3.4%	5.0%
	2순위	82	206	116	197	211	162	270	121	135
		5.5%	13.7%	7.7%	13.1%	14.1%	10.8%	18.0%	8.1%	9.0%

## 6. 독서활동

### 1) 연간 독서량

1년 동안 교과서, 학습참고서 또는 수험서를 제외하고 일반도서(잡지, 만화책 제외)를 몇 권이나 읽었는지, 연간 독서량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료는 최소 0권에서 최대 1,000권까지 분포하고 있었는데, 사분위수범위(IQR, Inter Quartile Range)를 활용하여  $Q3+3*IQR$  초과값을 강한 이상치로 판단하고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sup>37)</sup>.

37)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국민독서 실태조사, p. 58, “학생 조사의 경우 자기기업 조사의 특성상 주관식 문항(예: 매체 이용시간, 독서량 등)에 이상치나 극단값이 발생한 비율이 2.0% 정도였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학년의 ‘평균값’ 대체 또는 ‘최빈값’ 대체함.”

<표 4-22> 연간 독서량(권)

학교급	평균	N	(SD)	전국평균 <sup>38)</sup>
전체	23.3	1,500	32.901	32.4
초	38.9	719	40.875	69.8
중	12.6	368	13.557	20.1
고	5.9	413	5.765	8.8

성남시 청소년의 평균 독서량은 연간 23.3권이였다. 초등학생은 38.9권, 중학생 12.6권, 고등학생 5.9권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줄었는데, 특히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독서량이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1$ ). 성별로는 남학생(24.5)이 여학생(22.1)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있었는데, 이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26.3)의 연간 독서량이 수정구(17.3)와 중원구(19.4)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독서량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단, 수정구와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연간 독서량 평균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 연간 독서량에 유의한 평균 차가 있었다( $p<.001$ ). 학교성적별로는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인 학생의 연간 독서량 평균이 가장 낮고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연간 독서량 평균이 가장 낮고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38)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국민독서 실태조사, p. 76, [표 2-12]에서 인용.

<표 4-23> 배경변인에 따른 연간 독서량

구분	연간 독서량		t/F
	M	(SD)	
전체	23.3	32.901	
학교급별	초	38.9	199.544*** a>b>c
	중	12.6	
	고	5.9	
성별	남	24.5	1.455
	여	22.1	
거주구별	수정구	17.3	10.474*** a,b<c
	중원구	19.4	
	분당구	26.3	
학교성적별	안좋더	8.2	75.918*** b,a,c<d<e
	안좋은편이다	6.7	
	보통이다	11.4	
	좋은편이다	21.4	
	좋다	40.1	
가정경제사정별	부족하다	8.4	16.518*** b,c<d,e a<e
	부족한편이다	6.3	
	보통이다	18.1	
	잘사는편이다	26.9	
	잘산다	31.6	

\* $p<.05$  \*\* $p<.01$  \*\*\* $p<.001$

## 2) 독서활동 평가

### 가. 독서량 충분도

성남시 청소년 중 자신의 독서량이 충분하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을 합산)고 생각하는 비율은 35.2%로, 부족하다(‘매



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고 생각하는 비율 38.4%보다 다소 낮았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독서량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교과목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개별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독서량을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비율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4-24> 배경변인별 독서량 충분도(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39)</sup>
전체		287 19.1%	290 19.3%	395 26.3%	244 16.3%	285 19.0%	1,501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4 13.1%	103 14.3%	209 29.1%	135 18.8%	178 24.8%	719 100.0%
		83 22.6%	76 20.7%	88 23.9%	68 18.5%	53 14.4%	368 100.0%
	중학교	110 26.6%	111 26.8%	98 23.7%	41 9.9%	54 13.0%	414 100.0%
		144 18.7%	135 17.5%	210 27.2%	115 14.9%	168 21.8%	772 100.0%
고등학교	143 19.6%	155 21.3%	184 25.3%	129 17.7%	117 16.1%	728 100.0%	
	61 22.5%	66 24.4%	77 28.4%	30 11.1%	37 13.7%	271 100.0%	
성별	남자	71 25.4%	56 20.0%	69 24.6%	38 13.6%	46 16.4%	280 100.0%
	여자	155 16.3%	169 17.8%	247 26.0%	176 18.5%	202 21.3%	949 100.0%
거주구별	수정구	71 25.4%	56 20.0%	69 24.6%	38 13.6%	46 16.4%	280 100.0%
	중원구	155 16.3%	169 17.8%	247 26.0%	176 18.5%	202 21.3%	949 100.0%
	분당구	61 22.5%	66 24.4%	77 28.4%	30 11.1%	37 13.7%	271 100.0%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39)</sup>
전체		287	290	395	244	285	1,501
		19.1%	19.3%	26.3%	16.3%	19.0%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45	15	12	6	8	86
		52.3%	17.4%	14.0%	7.0%	9.3%	100.0%
	안좋은편이다	43	33	38	14	7	135
		31.9%	24.4%	28.1%	10.4%	5.2%	100.0%
	보통이다	97	114	129	47	41	428
		22.7%	26.6%	30.1%	11.0%	9.6%	100.0%
	좋은편이다	45	60	77	78	41	301
		15.0%	19.9%	25.6%	25.9%	13.6%	100.0%
	좋다	57	69	137	99	189	551
		10.3%	12.5%	24.9%	18.0%	34.3%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9	4	3	0	3	19
		47.4%	21.1%	15.8%	.0%	15.8%	100.0%
	부족한편이다	21	11	11	9	3	55
		38.2%	20.0%	20.0%	16.4%	5.5%	100.0%
	보통이다	142	151	176	78	88	635
		22.4%	23.8%	27.7%	12.3%	13.9%	100.0%
	잘사는편이다	53	80	121	79	77	410
12.9%		19.5%	29.5%	19.3%	18.8%	100.0%	
잘산다	61	44	82	79	114	380	
	16.1%	11.6%	21.6%	20.8%	30.0%	100.0%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다른 구 거주 청소년보다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39)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나. 독서 선호도

성남시 청소년의 독서 선호도는 독서를 좋아한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을 합산)는 응답이 40.4%, 좋아하지 않는다(‘그  
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는 응답이  
30.6%로, 독서를 좋아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4-25> 배경변인별 독서 선호도(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40)</sup>
전체		230 15.3%	230 15.3%	434 28.9%	305 20.3%	302 20.1%	1501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20 16.7%	111 15.4%	203 28.2%	127 17.7%	158 22.0%	719 100.0%
	중학교	50 13.6%	58 15.8%	100 27.2%	88 23.9%	72 19.6%	368 100.0%
	고등학교	60 14.5%	61 14.7%	131 31.6%	90 21.7%	72 17.4%	414 100.0%
성별	남자	145 18.8%	120 15.6%	222 28.8%	135 17.5%	149 19.3%	771 100.0%
	여자	85 11.7%	110 15.1%	212 29.1%	169 23.2%	153 21.0%	729 100.0%
거주구별	수정구	59 21.8%	51 18.8%	80 29.5%	45 16.6%	36 13.3%	271 100.0%
	중원구	56 20.0%	44 15.7%	90 32.1%	48 17.1%	42 15.0%	280 100.0%
	분당구	116 12.2%	134 14.1%	264 27.8%	210 22.2%	224 23.6%	948 100.0%

40)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40)</sup>
전체		230	230	434	305	302	1501
		15.3%	15.3%	28.9%	20.3%	20.1%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33	11	22	7	11	84
		39.3%	13.1%	26.2%	8.3%	13.1%	100.0%
	안좋은편이다	19	33	38	31	15	136
		14.0%	24.3%	27.9%	22.8%	11.0%	100.0%
	보통이다	69	81	148	86	43	427
		16.2%	19.0%	34.7%	20.1%	10.1%	100.0%
	좋은편이다	46	46	84	62	63	301
		15.3%	15.3%	27.9%	20.6%	20.9%	100.0%
	좋다	62	59	141	118	171	551
		11.3%	10.7%	25.6%	21.4%	31.0%	100.0%
가정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8	2	3	3	3	19
		42.1%	10.5%	15.8%	15.8%	15.8%	100.0%
	부족한편이다	13	16	11	12	3	55
		23.6%	29.1%	20.0%	21.8%	5.5%	100.0%
	보통이다	119	111	198	121	87	636
		18.7%	17.5%	31.1%	19.0%	13.7%	100.0%
	잘사는편이다	46	49	127	91	97	410
		11.2%	12.0%	31.0%	22.2%	23.7%	100.0%
	잘산다	43	52	95	78	113	381
		11.3%	13.6%	24.9%	20.5%	29.7%	100.0%

학교급별로 독서 불호 비율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중학생의 독서 선호 비율은 43.5%로 초등학생(39.6%)과 고등학생(39.1%)의 선호도 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독서 선호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거주구별로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독서 선호도가 수정구와 중원구 거주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 살수록 독서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온라인 활동

### 1) 온라인 활동 실태

성남시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수준은 ‘많이 했다’ 26.2%, ‘매우 많이 했다’ 20.9%로, 전체 47.1%(전체 1,500명 중 707명 응답)의 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고,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19.9%) 거의 하지 않은(10.4%) 청소년은 30.3%(전체 1,500명 중 454명)로 나타났다.

<표 4-26> 온라인 활동 실태(명, %)

구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sup>41)</sup>
전체(평균)	298 19.9%	156 10.4%	340 22.6%	393 26.2%	314 20.9%	1,500 100.0%
커뮤니케이션/소통	248 16.5%	153 10.2%	356 23.7%	400 26.7%	343 22.9%	1,500 100.0%
자료 및 정보 탐색	245 16.3%	209 13.9%	431 28.7%	404 26.9%	211 14.1%	1,500 100.0%
여가활동	54 3.6%	60 4.0%	256 17.1%	595 39.6%	536 35.7%	1,501 100.0%
교육/학습	115 7.7%	182 12.1%	432 28.8%	413 27.5%	360 24.0%	1,502 100.0%
크리에이터 활동	829 55.3%	175 11.7%	223 14.9%	151 10.1%	121 8.1%	1,499 100.0%

41)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커뮤니케이션·소통을 ‘많이 했다’와 ‘매우 많이 했다’는 각각 26.7%, 22.9%로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위해 49.5%의 청소년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및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발히 이용하는 청소년은 41.0%였고, 여가를 목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청소년은 75.3%이었는데 온라인 활동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학습을 위해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한 비율은 51.5%였고, 온라인을 통해 크리에이터 활동을 주로 한 청소년 비율은 18.1%로 다른 동기에 비해 활동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 배경변인에 따라 온라인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 <표 4-27>에서 <표 4-31>의 결과를 얻었다.

성남시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은 활동 동기와 내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소통, 자료와 정보 획득 활동, 여가활동, 교육·학습 활동과 크리에이터 활동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여가활동과 교육·학습 활동을 제외한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p<.001$ ), 자료 및 정보 획득 활동( $p<.001$ ), 크리에이터 활동( $p<.001$ ) 영역에서 초·중·고등학생의 평균에 유의한 차가 있었는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p<.001$ ), 여가활동( $p<.01$ ) 영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에 유의한 차가 있었고, 자료 및 정보 획득 활동, 교육·학습 활동, 크리에이터 활동 영역에서 성별 간 온라인 활동 수준에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온라인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거주구별로 온라인 활동 수준은 차이가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소통 영역에서는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평균이 가장 높았고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자료 및 정보 획득을 위한 온라인 활동은 거주구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가활동 영역에서의 온라인 활동은 수정구 거주 청소년이 가장 활발했고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교육·학습을 위한 온라인 활동은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온라인 크리에이터 활동은 수정구 거주 청소년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구역별 크리에이터 활동의 평균 차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학교성적별 온라인 활동은 학교성적이 ‘안 좋은’ 학생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활동 영역에서 활발했고, 교육·학습 영역에서는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활동 영역에서는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인 학생들이 온라인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었다.

가정경제사정별로는,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편’인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교육·학습 목적의 온라인 활동은 가정경제사정이 ‘잘살’거나 ‘잘사는 편’인 청소년의 평균이 ‘부족’하거나 ‘보통’인 청소년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단,

자료 및 정보 획득 활동과 크리에이터 활동 수준은 가정경제사정별로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7> 배경변인에 따른 온라인 활동 수준 - 커뮤니케이션 · 소통

구분	커뮤니케이션 · 소통 활동		t/F
	M	(SD)	
전체	3.29	1.364	
학교급	초	2.90	66.666*** a<b<c
	중	3.54	
	고	3.77	
성별	남	3.11	-5.461***
	여	3.49	
거주구	수정구	3.53	8.760*** a,b>c
	중원구	3.43	
	분당구	3.18	
학교성적	안좋다	3.92	22.713*** a,b>c,d>e
	안좋은편이다	3.84	
	보통이다	3.48	
	좋은편이다	3.26	
	좋다	2.93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3.93	7.221*** b,c>d,e
	부족한이다	3.82	
	보통이다	3.42	
	잘사는편이다	3.18	
	잘산다	3.10	

\* $p<.05$  \*\* $p<.01$  \*\*\* $p<.001$



<표 4-28> 배경변인에 따른 온라인 활동 수준-자료 및 정보 획득

구분	자료 및 정보 획득		t/F
	M	(SD)	
전체	3.08	1.272	
학교급	초	2.71	66.789*** a<b,c
	중	3.39	
	고	3.47	
성별	남	3.03	-1.647
	여	3.14	
거주구	수정구	2.97	2.315
	중원구	3.02	
	분당구	3.14	
학교성적	안좋다	3.43	2.808* a>c
	안좋은편이다	3.22	
	보통이다	3.08	
	좋은편이다	3.11	
	좋다	2.99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3.42	1.157
	부족한이다	3.35	
	보통이다	3.04	
	잘사는편이다	3.07	
	잘산다	3.12	

\* $p < .05$  \*\* $p < .01$  \*\*\* $p < .001$

<표 4-29> 배경변인에 따른 온라인 활동 수준 - 여가활동

구분	여가활동		t/F
	M	(SD)	
전체	4.00	1.005	
학교급	초	3.94	1.033
	중	4.04	.946
	고	4.07	1.003
성별	남	4.07	.971
	여	3.93	1.036
거주구	수정구	4.19	.847
	중원구	4.11	.957
	분당구	3.91	1.050
학교성적	안좋다	4.33	.838
	안좋은편이다	4.19	.907
	보통이다	3.97	.924
	좋은편이다	4.03	.994
	좋다	3.91	1.100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4.04	1.355
	부족한이다	4.37	.685
	보통이다	4.02	.931
	잘사는편이다	3.99	1.014
	잘산다	3.92	1.120

\* $p < .05$  \*\* $p < .01$  \*\*\* $p < .001$

<표 4-30> 배경변인에 따른 온라인 활동 수준 - 교육·학습 활동

구분	교육·학습 활동		t/F
	M	(SD)	
전체	3.48	1.198	
학교급	초	3.54	1.997
	중	3.38	
	고	3.46	
성별	남	3.44	-1.440
	여	3.52	
거주구	수정구	3.23	8.538*** a>c
	중원구	3.42	
	분당구	3.57	
학교성적	안좋다	3.23	9.641*** b,a,c,d<e
	안좋은편이다	3.17	
	보통이다	3.37	
	좋은편이다	3.42	
	좋다	3.71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2.89	9.867*** a<c c<d,e
	부족한이다	3.25	
	보통이다	3.30	
	잘사는편이다	3.63	
	잘산다	3.69	

\* $p < .05$  \*\* $p < .01$  \*\*\* $p < .001$

<표 4-31> 배경변인에 따른 온라인 활동 수준 - 크리에이터 활동(콘텐츠생산)

구분	크리에이터 활동		t/F
	M	(SD)	
전체	2.04	1.352	
학교급	초	1.89	9.005*** a<b,c
	중	2.15	
	고	2.21	
성별	남	2.08	1.336
	여	1.99	
거주구	수정구	2.18	3.700* -
	중원구	2.15	
	분당구	1.97	
학교성적	안좋다	2.13	7.605*** b>d,e c>e
	안좋은편이다	2.43	
	보통이다	2.17	
	좋은편이다	2.04	
	좋다	1.82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2.05	1.303
	부족한이다	2.34	
	보통이다	2.08	
	잘사는편이다	1.94	
	잘산다	2.03	

\* $p < .05$  \*\* $p < .01$  \*\*\* $p < .001$

-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음.

## 2) 온라인 이용 서비스

온라인 활동에 어떤 서비스(사이트, 앱)를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4-32> 온라인 활동 이용 서비스

사이트/앱	빈도(명) <sup>42)</sup>	비율(%)
전체	2,679	100.0%
유튜브	958	35.7%
카카오톡	392	14.6%
네이버	385	14.4%
구글	253	9.4%
페이스북	141	5.3%
인스타그램	109	4.1%
페이스북메신저	90	3.3%
넷플릭스	88	3.3%
틱톡	82	3.1%
트위치	52	1.9%
트위터	44	1.7%
밴드	22	0.8%
인스타그램DM	19	0.7%
V LIVE	17	0.6%
네이버TV	11	0.4%
다음	9	0.3%
아프리카TV	8	0.3%

42)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성남시 청소년은 유튜브(35.7%, 전체 2,679명 중 958명 응답)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카카오톡(14.6%, 392명), 네이버(14.4%, 385명), 구글(9.4%, 253명), 페이스북(5.3%, 141명), 인스타그램(4.1%, 109명) 순으로 이용도가 높았다.

### 3) 온라인 경험

온라인 활동 중 사생활 공유, 사생활 유출, 가짜 정보 등 부정적인 경험을 알아보았다. 성남시 청소년의 대부분은 타인의 사생활을 공유한 경험이 없고(매우 그렇지 않다 74.1%, 그렇지 않다 13.9%), 자신의 사생활을 유출 등 피해 경험도 없어(매우 그렇지 않다 76.9%, 그렇지 않다 11.1%), 건강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에는 가짜정보가 ‘많다’(29.4%)와 ‘매우 많다’(23.0%)고 생각하는 비율이 52.4%로, 과반이 온라인상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온라인 활동 중 부정적 경험(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sup>43)</sup>
온라인 상 타인 비방 타인 사생활 유포	1,111	208	109	49	22	1,499
	74.1%	13.9%	7.3%	3.3%	1.5%	100.0%
온라인 상 비방, 헐담, 사생활 유출 경험	1,152	166	103	54	24	1,499
	76.9%	11.1%	6.9%	3.6%	1.6%	100.0%
온라인 상 가짜 정보 많음	141	137	436	441	345	1,500
	9.4%	9.1%	29.1%	29.4%	23.0%	100.0%

43)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제 5 장

#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

1. 생활습관 변화
2. 학습활동
3. 코로나 대응방식



## 제5장 |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

### 1. 생활습관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생활습관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수면시간 증가 여부는 2.87(5점 만점)로 평균보다 다소 낮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수면시간이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했다.

등교하지 않는 날 정상적인 식사 여부의 전체 평균은 3.87로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날에도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식사를 정상적으로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시간 감소 여부는 3.33으로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시간이 다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전자기기의 사용시간이 증가했다는 문항의 평균이 3.62로 나타나 면대면 활동이 어려워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위(無爲)시간이 늘었는지에 대한 응답은 3.13으로 보통 이상의 평균을 보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시간이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변인에 따른 생활습관 변화를 분석하여 <표 5-1>에서 <표 5-5>의 결과를 얻었는데, 수면 시간 증가 여부와 정상적인 식사 여부,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무위(無爲)시간 증가 등 4개 항목에서 학교급에 따라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1$ ,  $p<.001$ ,  $p<.001$ ,  $p<.05$ )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이 오히려 줄었고, 고등학생만 수면시간이 증가했는데,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간 수면시간 증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1$ ).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식사 여부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식사를 더 잘 챙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 ).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정상적인 식사 평균은 유의한 차가 없었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정상적인 식사 여부에 대한 평균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별 신체활동 시간 감소 여부는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해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초·중·고등학생 모두 의미 있는 증가가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시간의 증가폭에 비해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증가폭이 컸고 중학생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급별 무위(無爲)시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p<.05$ ) 고등학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식사 여부 문항과 신체활동 시간 감소 문항에서만 유의한( $p<.01$ ,  $p<.05$ ) 차가 있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등교하지 않는 날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신체활동 시간이 더 많이 감소했다.

거주구별로는 수면시간의 증가, 정상적인 식사 여부, 무위(無爲)시간 증가 등 3개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 차가 유의한( $p<.001$ ,  $p<.05$ ,  $p<.01$ )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 시간 감소와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문항에서는 거주구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원구와 수정구 거주 청소년이 분당구 거주 청소년보다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고,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수정구 거주 청소년보다 동교하지 않는 날에도 식사를 잘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중원구 거주 청소년은 분당구 거주 청소년에 비해 무위(無爲)시간이 더 많이 증가했다.

학교성적별로는 신체활동 시간 감소 문항을 제외한 수면시간의 증가, 정상적인 식사 여부,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무위(無爲)시간 증가 등 4개 항목에서 학교성적별 집단 간 유의한( $p<.01$ ,  $p<.001$ ,  $p<.001$ ,  $p<.001$ ) 평균 차가 있었다. 학교성적이 ‘안 좋은 편’이거나 ‘보통’인 학생의 수면시간은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정상적인 식사 여부는 학교성적이 ‘좋은 편’이거나 ‘좋은’ 학생들이 더 잘 챙기고 있었다. 또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은 다른 성적의 학생 집단에 비해 전자기기 사용 시간과 무위(無爲)시간이 작게 증가했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경제사정별로 살펴보면, 수면시간 증가 문항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식사 여부, 신체활동 시간 감소,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무위(無爲)시간 증가 등 4개 문항에서 경제사정별로 평균에 유의( $p<.001$ ,  $p<.05$ ,  $p<.001$ ,  $p<.001$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신체활동 시간 감소 문항은 사후검정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확

인할 수 없었다. 가정경제사정이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다른 가정경제사정 응답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식사를 훨씬 더 잘 챙기고 있었고, ‘부족한 편’이거나 ‘보통’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과 무위(無爲)시간이 ‘잘사는’ 청소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 배경변인별 수면시간 증가

구분	수면시간 증가		t/F
	M	(SD)	
전체	2.87	1.381	
학교급	초	2.79	4.711** a<c
	중	2.85	
	고	3.05	
성별	남	2.86	-.259
	여	2.88	
거주구	수정구	3.05	8.682*** b,a>c
	중원구	3.09	
	분당구	2.76	
학교성적	안좋다	3.02	4.906** b,c>e
	안좋은편이다	3.16	
	보통이다	2.95	
	좋은편이다	2.94	
	좋다	2.68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2.60	.764
	부족한편이다	2.95	
	보통이다	2.91	
	잘사는편이다	2.90	
	잘산다	2.79	

\* $p < .05$  \*\* $p < .01$  \*\*\* $p < .001$

<표 5-2> 배경변인별 정상적인 식사 여부

구분	정상적인 식사 여부		t/F
	M	(SD)	
전체	3.87	1.231	
학교급	초	4.09	23.815*** a>b,c
	중	3.75	
	고	3.60	
성별	남	3.95	2.680**
	여	3.78	
거주구	수정구	3.70	3.267* a<c
	중원구	3.88	
	분당구	3.92	
학교성적	안좋다	3.62	25.452*** b,c<d<e a<e
	안좋은편이다	3.35	
	보통이다	3.59	
	좋은편이다	3.93	
	좋다	4.22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2.96	26.389*** a<d<e b<c<d<e
	부족한이다	3.09	
	보통이다	3.66	
	잘사는편이다	3.95	
	잘산다	4.30	

\* $p<.05$  \*\* $p<.01$  \*\*\* $p<.001$

<표 5-3> 배경변인별 신체활동 시간 감소

구분	신체활동 시간 감소		t/F
	M	(SD)	
전체	3.33	1.392	
학교급	초	3.26	1.526
	중	3.41	
	고	3.35	
성별	남	3.25	-2.220*
	여	3.41	
거주구	수정구	3.35	.083
	중원구	3.31	
	분당구	3.32	
학교성적	안좋다	3.08	1.371
	안좋은편이다	3.32	
	보통이다	3.33	
	좋은편이다	3.45	
	좋다	3.29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3.13	2.566*
	부족한이다	3.68	
	보통이다	3.41	
	잘사는편이다	3.29	
	잘산다	3.18	

\* $p < .05$  \*\* $p < .01$  \*\*\* $p < .001$

-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음.



<표 5-4> 배경변인별 전자기기 사용시간 증가

구분	전자기기 사용시간 증가		t/F
	M	(SD)	
전체	3.62	1.201	
학교급	초	3.47	10.839*** a<c,b
	중	3.80	
	고	3.71	
성별	남	3.61	-.181
	여	3.62	
거주구	수정구	3.62	1.368
	중원구	3.72	
	분당구	3.58	
	안정구	3.83	
학교성적	안좋은편이다	3.92	8.357*** b,a,d,c>e
	보통이다	3.68	
	좋은편이다	3.73	
	좋다	3.40	
	부족하다	3.94	
가정경제사정	부족한이다	4.05	5.944*** b>d,e c>e
	보통이다	3.72	
	잘사는편이다	3.57	
	잘산다	3.42	
		1.344	

\* $p<.05$  \*\* $p<.01$  \*\*\* $p<.001$

<표 5-5> 배경변인별 무위(無爲)시간 증가

구분	무위(無爲)시간 증가		t/F
	M	(SD)	
전체	3.13	1.379	
학교급	초	3.05	4.533* a<c
	중	3.08	
	고	3.30	
성별	남	3.07	-1.784
	여	3.19	
거주구	수정구	3.14	6.943** b>c
	중원구	3.39	
	분당구	3.04	
학교성적	안좋다	3.43	6.894*** a,b,c,d>e
	안좋은편이다	3.42	
	보통이다	3.23	
	좋은편이다	3.18	
	좋다	2.91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3.27	5.560*** b,c>e
	부족한이다	3.56	
	보통이다	3.26	
	잘사는편이다	3.06	
	잘산다	2.91	

\* $p<.05$  \*\* $p<.01$  \*\*\* $p<.001$

## 2. 학습활동

### 1) 온라인수업(원격수업)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원격수업)이 시급하게 진행되면서 ‘온라인수업(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교육격차 지표로 고려된다. 성남시 청소년 86.8%(전체 1,500명 중 1,302명 응답)가 자신만이 쓰는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온라인 학습 환경에 격차는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온라인수업용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명, %)

배경변인		자신만이 쓰는 기기가 있음	가족과 같이 쓰거나 기기가 없음	전체 <sup>44)</sup>
전체		1,302	198	1,500
		86.8%	13.2%	100.0%
학교급	초	578	141	719
		80.4%	19.6%	100.0%
	중	334	35	369
		90.5%	9.5%	100.0%
	고	390	22	412
		94.7%	5.3%	100.0%
성별	남	661	111	772
		85.6%	14.4%	100.0%
	여	641	87	728
		88.0%	12.0%	100.0%

44)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자신만이 쓰는 기기가 있음	가족과 같이 쓰거나 기기가 없음	전체 <sup>44)</sup>
전체		1,302	198	1,500
		86.8%	13.2%	100.0%
거주 구별	수정구	231	40	271
		85.2%	14.8%	100.0%
	중원구	253	27	280
		90.4%	9.6%	100.0%
	분당구	818	131	949
		86.2%	13.8%	100.0%
학교 성적	안좋다	74	11	85
		87.1%	12.9%	100.0%
	안좋은 편이다	123	14	137
		89.8%	10.2%	100.0%
	보통 이다	384	43	427
		89.9%	10.1%	100.0%
좋은 편이다	259	42	301	
	86.0%	14.0%	100.0%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하다	15	4	19
		78.9%	21.1%	100.0%
	부족한 편이다	52	3	55
		94.5%	5.5%	100.0%
	보통 이다	551	84	635
		86.8%	13.2%	100.0%
잘사는 편이다	356	55	411	
	86.6%	13.4%	100.0%	
잘산다	328	52	380	
	86.3%	13.7%	100.0%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만 쓰는 디지털 기기를 보유한 경우가 중·고등학생보다 현저히 낮고 전체 평균과 차이가 있었다. 또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만 쓰는 디지털

기기를 보유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78.9%) 반면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94.5%).

## 2) 온라인수업(원격수업) 도움 요청 대상

‘온라인수업(원격수업)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중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성남시 청소년은 ‘부모님’을 선택한 경우가 31.2%(전체 1,291명 중 403명 응답)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혼자 해결’(27.9%, 1,291명 중 360명), ‘학교 선생님’(27.0%, 1,291명 중 348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3.3%(1,291명 중 42명)로 응답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45.6%로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생은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33.6%와 36.1%로 가장 많았는데, 학업 내용과 과제의 어려움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성별, 거주구별이나 가정경제사정별로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학교성적별로는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학교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성적이 ‘보통’인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좋은 편’이거나 ‘좋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께 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표 5-7> 온라인 수업 중 어려움 해결 요청(명, %)

배경변인		학교 선생님	학원 공부방 선생님	부모님	형제 자매	혼자 해결	해결 못하고 넘어감	전체 <sup>45)</sup>
전체		348 27.0%	67 5.2%	403 31.2%	71 5.5%	360 27.9%	42 3.3%	1,291 100.0%
학교급	초	127 19.3%	23 3.5%	300 45.6%	44 6.7%	149 22.6%	15 2.3%	658 100.0%
	중	101 33.6%	20 6.6%	63 20.9%	18 6.0%	86 28.6%	13 4.3%	301 100.0%
	고	120 36.1%	24 7.2%	40 12.0%	9 2.7%	125 37.7%	14 4.2%	332 100.0%
성별	남	190 28.0%	28 4.1%	205 30.2%	31 4.6%	204 30.0%	21 3.1%	679 100.0%
	여	158 25.8%	39 6.4%	198 32.4%	40 6.5%	156 25.5%	21 3.4%	612 100.0%
거주 구별	수정구	65 28.4%	16 7.0%	70 30.6%	18 7.9%	53 23.1%	7 3.1%	229 100.0%
	중원구	58 24.7%	13 5.5%	79 33.6%	14 6.0%	63 26.8%	8 3.4%	235 100.0%
	분당구	225 27.2%	38 4.6%	254 30.8%	39 4.7%	243 29.4%	27 3.3%	826 100.0%
학교 성적	안좋다	18 27.7%	4 6.2%	11 16.9%	3 4.6%	20 30.8%	9 13.8%	65 100.0%
	안좋은 편이다	32 28.8%	3 2.7%	22 19.8%	9 8.1%	39 35.1%	6 5.4%	111 100.0%
	보통 이다	114 31.9%	29 8.1%	78 21.8%	18 5.0%	100 28.0%	18 5.0%	357 100.0%
	좋은 편이다	80 30.7%	11 4.2%	80 30.7%	14 5.4%	71 27.2%	5 1.9%	261 100.0%
	좋다	104 21.0%	20 4.0%	212 42.7%	26 5.2%	129 26.0%	5 1.0%	496 100.0%

45)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학교 선생님	학원 공부방 선생님	부모님	형제 자매	혼자 해결	해결 못하고 넘어감	전체 <sup>45)</sup>
전체		348	67	403	71	360	42	1,291
		27.0%	5.2%	<b>31.2%</b>	5.5%	<b>27.9%</b>	3.3%	100.0%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하다	6	1	3	0	6	2	18
		33.3%	5.6%	16.7%	.0%	33.3%	11.1%	100.0%
	부족한 편이다	15	5	7	4	15	1	47
		31.9%	10.6%	14.9%	8.5%	31.9%	2.1%	100.0%
	보통 이다	160	28	148	33	144	24	537
		29.8%	5.2%	27.6%	6.1%	26.8%	4.5%	100.0%
잘사는 편이다	93	21	129	19	91	5	358	
	26.0%	5.9%	36.0%	5.3%	25.4%	1.4%	100.0%	
잘산다	75	12	116	15	103	10	331	
	22.7%	3.6%	35.0%	4.5%	31.1%	3.0%	100.0%	

### 3)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 외 학원, 과외 수업이나 학습지 과외 시간에 영향이 있었는지’, 사교육 시간의 증감을 살펴보았다. 성남시 청소년의 사교육 시간은 코로나-19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55.5%, 전체 1,497명 중 831명 응답), ‘늘었다’(19.2%)는 응답이 ‘줄었다’(11.0%)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다. ‘늘었다’는 응답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와 대면 수업이 불규칙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교교육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대안적인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사교육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학원 집합 금지, 학원 영업제한 또는 대면 수업 금지 조치와 일대일 대면 접촉 기피 등으로 이전에 진행하던 사교육을 전처럼 지속할 수 없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표 5-8> 코로나-19 전후 사교육 시간(명, %)

배경변인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하지 않음	전체 <sup>46)</sup>
전체		288 19.2%	831 55.5%	165 11.0%	213 14.2%	1,497 100.0%
학교급	초	138 19.3%	396 55.3%	102 14.2%	80 11.2%	716 100.0%
	중	76 20.6%	227 61.5%	24 6.5%	42 11.4%	369 100.0%
	고	74 18.0%	208 50.5%	39 9.5%	91 22.1%	412 100.0%
성별	남	171 22.2%	407 52.7%	77 10.0%	117 15.2%	772 100.0%
	여	117 16.1%	425 58.5%	89 12.3%	95 13.1%	726 100.0%
거주구별	수정구	41 15.2%	142 52.6%	28 10.4%	59 21.9%	270 100.0%
	중원구	46 16.4%	147 52.5%	34 12.1%	53 18.9%	280 100.0%
	분당구	201 21.2%	542 57.2%	104 11.0%	100 10.6%	947 100.0%
학교 성적	안좋다	19 22.4%	33 38.8%	7 8.2%	26 30.6%	85 100.0%
	안좋은 편이다	22 16.1%	70 51.1%	16 11.7%	29 21.2%	137 100.0%
	보통이다	76 17.8%	240 56.2%	35 8.2%	76 17.8%	427 100.0%
	좋은 편이다	59 19.7%	163 54.5%	37 12.4%	40 13.4%	299 100.0%
	좋다	113 20.6%	325 59.2%	71 12.9%	40 7.3%	549 100.0%

46)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하지 않음	전체 <sup>46)</sup>
전체		288	831	165	213	1,497
		19.2%	55.5%	11.0%	14.2%	100.0%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하다	5	7	1	6	19
		26.3%	36.8%	5.3%	31.6%	100.0%
	부족한 편이다	9	25	6	15	55
		16.4%	45.5%	10.9%	27.3%	100.0%
	보통 이다	109	344	68	114	635
		17.2%	54.2%	10.7%	18.0%	100.0%
	잘사는 편이다	74	236	50	49	409
		18.1%	57.7%	12.2%	12.0%	100.0%
잘산다	90	219	42	27	378	
	23.8%	57.9%	11.1%	7.1%	100.0%	

배경변인별로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증감 여부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성적이 ‘안 좋다’고 응답한 집단과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하다’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학교 수업 외 학원,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 사교육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4) 코로나-19 종식 후 학교 수업 방식

‘코로나-19 종식 후, 어떤 학교 수업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학생의 36.6%(전체 1,498명 중 549명 응답)가 코로나-19 전처럼 ‘매일 등교’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같이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29.2%(1,498명 중 437명)로 높게 나타났다. ‘특별한 의견이 없는’ 청소년도

16.2%(1,492명 중 243명)로 ‘원격수업(온라인수업)만으로 충분’하다 (14.9%, 1,492명 중 223명)는 의견보다 높았다.

<표 5-9> 코로나-19 종식 후 선호하는 학교 수업 방식(명, %)

배경변인		매일 등교	등교와 온라인 병행	온라인 으로 충분	홈스쿨링 대안교육	특별한 의견 없음	전체(47)
전체		549 36.6%	437 29.2%	223 14.9%	46 3.1%	243 16.2%	1,498 100.0%
학교급	초	304 42.3%	199 27.7%	81 11.3%	14 1.9%	120 16.7%	718 100.0%
	중	116 31.5%	109 29.6%	68 18.5%	11 3.0%	64 17.4%	368 100.0%
	고	129 31.3%	129 31.3%	74 18.0%	21 5.1%	59 14.3%	412 100.0%
성별	남	276 35.9%	207 26.9%	120 15.6%	20 2.6%	146 19.0%	769 100.0%
	여	273 37.6%	230 31.7%	103 14.2%	25 3.4%	95 13.1%	726 100.0%
거주 구별	수정구	106 39.1%	84 31.0%	29 10.7%	7 2.6%	45 16.6%	271 100.0%
	중원구	101 36.2%	86 30.8%	36 12.9%	6 2.2%	50 17.9%	279 100.0%
	분당구	342 36.1%	268 28.3%	158 16.7%	32 3.4%	147 15.5%	947 100.0%
학교 성적	안좋다	13 15.7%	26 31.3%	24 28.9%	3 3.6%	17 20.5%	83 100.0%
	안좋은 편이다	36 26.3%	38 27.7%	29 21.2%	8 5.8%	26 19.0%	137 100.0%
	보통 이다	153 35.8%	126 29.5%	61 14.3%	14 3.3%	73 17.1%	427 100.0%
	좋은 편이다	109 36.3%	95 31.7%	40 13.3%	4 1.3%	52 17.3%	300 100.0%
	좋다	238 43.4%	152 27.7%	69 12.6%	16 2.9%	73 13.3%	548 100.0%

배경변인		매일 등교	등교와 온라인 병행	온라인 으로 충분	홈스쿨링 대안교육	특별한 의견 없음	전체 <sup>47)</sup>
전체		549 36.6%	437 29.2%	223 14.9%	46 3.1%	243 16.2%	1,498 100.0%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하다	3 15.8%	6 31.6%	5 26.3%	2 10.5%	3 15.8%	19 100.0%
	부족한 편이다	16 29.6%	24 44.4%	6 11.1%	1 1.9%	7 13.0%	54 100.0%
	보통 이다	232 36.5%	182 28.7%	99 15.6%	12 1.9%	110 17.3%	635 100.0%
	잘사는 편이다	151 36.9%	117 28.6%	64 15.6%	12 2.9%	65 15.9%	409 100.0%
	잘산다	146 38.5%	109 28.8%	49 12.9%	19 5.0%	56 14.8%	379 100.0%

학교급별로는 초·중학생의 경우 ‘매일 등교’하는 방식을 선호 (42.3%, 31.5%)하였고, 고등학생은 ‘매일 등교’와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31.3%로 동일했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 학교 수업 방식 선호에 차이가 없었고, 거주구별로도 선호에 차이가 없이 ‘매일 등교’하는 방식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성적과 가정경제사정별로는 학교 수업 방식 선호에 차이가 있었다. 학교성적이 ‘안 좋’거나 ‘안 좋은 편’인 학생과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하거나 ‘부족한 편’인 청소년은 코로나-19 상황에서와 같이 ‘등교와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호하였고, 학교성적이 ‘보통 이상’인 학생과 가정경제사정이 ‘보통 이상’인 청소년은 코로나-19 이전처럼

47)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매일 등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26.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3. 코로나 대응방식

#### 1) 코로나-19 확산 이후 힘든 부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든 부분’을 12개 항목 중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성남시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점으로 ‘친구를 못 만남’(20.7%, 전체 2,992명 중 620명 응답)을 들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외출을 못해 답답함’(14.8%, 2,992명 중 443명), ‘생활리듬 깨짐’(12.5%, 2,992명 중 373명), ‘원격수업(온라인수업)으로 인한 성적관리’(11.3%, 2,992명 중 33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별, 학교성적별로 어려움의 순서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집단 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활리듬 깨짐’(19.1%)을, 그 다음으로 ‘원격수업(온라인수업)으로 인한 성적관리’(13.5%)를 들고 있어, ‘보통’, ‘잘사는 편’과 ‘잘사는’ 집단의 우선순위(1순위 ‘친구를 못 만남’, 2순위 ‘외출을 못해 답답함’)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하다’로 응답한 청소년은 1순위를 ‘친구를 못 만남’(28.1%), 2순위를 ‘원격수업(온라인수업)으로 인

한 성적관리'(13.6%)를 들어 다른 집단과 우선순위가 다소 달랐다.

<표 5-10> 가정경제사정별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2가지 선택)

구분	가정경제사정별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 <sup>48)</sup>										전체 <sup>49)</sup>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잘산다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친구 못 만남	11	<b>28.1</b>	13	12.2	251	19.8	184	22.5	161	21.3	620	<b>20.7</b>
성적관리	5	<b>13.6</b>	15	<b>13.5</b>	149	11.7	91	11.1	79	10.5	339	11.3
생활리듬 붕괴	3	7.3	21	<b>19.1</b>	157	12.4	105	12.8	88	11.6	373	12.5
외출불가	2	4.9	4	3.8	186	14.6	120	14.7	131	17.3	443	<b>14.8</b>
코로나 지속불안	1	2.4	10	9.5	113	8.9	67	8.2	63	8.3	255	8.5
진로탐색 어려움	3	8.3	10	9.2	43	3.4	18	2.2	22	2.8	96	3.2
감염위험	0	0.0	5	4.6	76	6.0	53	6.5	44	5.8	178	6.0
개인방역	2	5.4	11	10.3	135	10.6	80	9.8	71	9.4	299	10.0
걱정·스트레스	3	7.1	6	5.2	62	4.9	28	3.4	28	3.7	126	4.2
가족과 다툼	1	3.3	3	2.9	25	1.9	12	1.4	14	1.9	55	1.8
체험활동불가	2	6.4	8	7.7	63	4.9	53	6.4	50	6.6	176	5.9
점심식사 해결	5	<b>13.2</b>	2	2.2	12	0.9	7	0.8	7	0.9	33	<b>1.1</b>
전체	38	100.0	110	100.0	1,269	100.0	818	100.0	758	100.0	2,992	100.0

48) 전체 내용은 “[별책부록] 기초조사표”를 참고

49)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한편 주목할 점으로 전체 2,992명 중 33명(1.1%)의 청소년이 ‘점심 식사 해결’을 어려움으로 들었는데,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별로 집단 간 비율에 차이는 크게 없었으나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집단 간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학교성적이 ‘안 좋다’와 ‘안 좋은 편’으로 응답한 학생의 ‘점심식사 해결’ 문제 비율은 각 2.5%와 2.3%로, ‘보통’ 이상의 집단에서 차지하는 평균(보통 1.1%, 좋은 편 0.9%, 좋음 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점심식사 해결’ 문제 비율은 13.2%로, ‘부족한 편’ 이상의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부족한 편 2.2%, 보통 0.9%, 잘사는 편 0.8%, 잘살 0.9%)과 비교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 2)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험한 감정

성남시 청소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감정으로 짜증(22.3%)과 불안(14.2%), 우울(11.7%) 등을 들었다. 배경변인별로 경험한 감정에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변화 없음’(13.6%)과 ‘평온’(10.9%)의 비율도 의외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변인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험한 감정은 <표 5-11>과 같다.

<표 5-11>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험한 감정(2가지 선택)

감정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험한 감정 <sup>50)</sup>				전체 <sup>51)</sup>	
	남자		여자			
	건	%	건	%	건	%
불안	191	12.9%	217	15.6%	408	<b>14.2%</b>
두려움	84	5.7%	118	8.5%	202	7.0%
우울	130	8.8%	207	14.8%	337	<b>11.7%</b>
짜증	340	22.9%	301	21.6%	641	<b>22.3%</b>
분노	142	9.6%	81	5.8%	222	7.7%
감사	61	4.1%	52	3.7%	112	3.9%
평온	181	12.2%	131	9.4%	312	10.9%
배려	19	1.3%	16	1.2%	35	1.2%
침착	113	7.6%	100	7.2%	213	7.4%
변화없음	221	14.9%	171	12.3%	392	13.6%
전체	1,481	100.0%	1,395	100.0%	2,876	100.0%

### 3) 코로나-19 확산 이후 놀이 및 여가활동 장소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소년의 놀이 및 여가활동 장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았다. 성남시 청소년은 ‘본인집’(66.5%), ‘친구집’(10.4%), ‘놀이터·공원’(7.4%)과 ‘체육시설(운동장, 농구장 등)’(5.4%) 순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놀이 및 여가활동 장소’의 비율 분포

50) 전체 내용은 “[별책부록] 기초조사표”를 참고

51)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는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단, 학교급별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본인집’(66.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놀이터·공원’(12.5%)을 선택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학교성적이 ‘좋은 편’인 학생의 경우 역시 ‘본인집’(69.6%)과 ‘놀이터·공원’(8.8%)을, 그리고 가정경제 형편이 ‘부족한 편’인 청소년의 경우 ‘본인집’(71.2%)과 ‘친구집’(5.8%), ‘카페’(5.8%)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른 비교집단의 응답과 차이가 있었다.

<표 5-12> 학교급별 코로나-19 확산 이후 놀이 및 여가활동 장소

구분	학교급별 코로나-19 확산 이후 놀이 및 여가활동 장소 <sup>52)</sup>						전체 <sup>53)</sup>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	%	건	%	건	%	건	%
본인집	441	66.3%	235	66.6%	267	66.9%	943	66.5%
친구집	74	11.1%	32	9.1%	41	10.3%	147	10.4%
PC방	10	1.5%	8	2.3%	12	3.0%	30	2.1%
노래방	4	0.6%	4	1.1%	7	1.8%	15	1.1%
오락실	2	0.3%	0	0.0%	3	0.8%	5	0.4%
영화관극장	3	0.5%	2	0.6%	9	2.3%	14	1.0%
놀이터공원	83	12.5%	15	4.2%	7	1.8%	105	7.4%
카페	6	0.9%	21	5.9%	29	7.3%	56	4.0%
만화방만화카페	0	0.0%	1	0.3%	2	0.5%	3	0.2%
쇼핑몰	9	1.4%	8	2.3%	6	1.5%	23	1.6%
체육시설	33	5.0%	27	7.6%	16	4.0%	76	5.4%
청소년수련관등	0	0.0%	0	0.0%	0	0.0%	0	0.0%
전체	665	100.0%	353	100.0%	399	100.0%	1,417	100.0%

52) 전체 내용은 “[별책부록] 기초조사표”를 참고

53)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생활변화는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문항별로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소외계층 청소년은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위(無爲)시간’이 ‘잘사는’ 청소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온라인수업(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에서는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청소년의 21.1%가 자신만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온라인수업(원격수업)에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혼자서 해결’하는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코로나-19 종식 후 학교 수업 방식 중 ‘등교와 온라인수업 병행’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수업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아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덧붙여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성적관리’가 코로나-19 확산 후 어려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가정경제사정이 어려운 소외계층 청소년은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시간관리, 온라인수업을 위한 학습지도,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온라인 학습 지도와 진로 지도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학습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6장

#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1.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의  
인지도
2.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의  
활용도
3.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성남시청소년재단에의 요구



## 제6장 ■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 1.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의 인지도

#### 1)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의 인지도

성남시 청소년은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sup>54)</sup>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성남시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재단과 운영 시설에 대해 ‘전혀 모른다’ 36.6%, ‘모른다’ 11.8%, ‘이름만 알고 있다’ 26.6%, ‘알고 있다’ 8.7%, ‘잘 알고 있다’ 16.4%로 응답하였다. 재단과 운영시설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단과 운영시설의 지리적 위치가 접근성이 높고 이름의 노출도가 높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다’의 비율이 높지 않아 재단과 시설의 운영 정보나 상세한 이용방법

54) ①성남시청소년재단, ②성남형교육지원단, ③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④(수정, 중원, 분당서현, 분당정자, 분당판교, 분당야탑 등 6개)청소년수련관, ⑤(양지동, 은행동 2개)청소년문화의집, ⑥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에 대해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찾는다면 앞으로 인지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성남시 청소년의 41.9%는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32.6%) ‘모른다’(9.3%)고 응답했고, ‘이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5%였다. 반면,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의 비율은 8.5%와 13.1%로 ‘어느 정도 안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은 21.6%였다.

배경변인별로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인지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별로 ‘전혀 모르거나’와 ‘이름만 알고 있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6-1>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명, %)

배경변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					전체 <sup>55)</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490 32.6%	139 9.3%	548 36.5%	127 8.5%	197 13.1%	1,501 100.0%
학교급	초	250 34.7%	72 10.0%	235 32.6%	71 9.9%	92 12.8%	720 100.0%
	중	121 32.8%	36 9.8%	137 37.1%	24 6.5%	51 13.8%	369 100.0%
	고	119 28.9%	31 7.5%	176 42.7%	32 7.8%	54 13.1%	412 100.0%
성별	남	272 35.2%	76 9.8%	249 32.3%	50 6.5%	125 16.2%	772 100.0%
	여	218 29.9%	63 8.7%	299 41.1%	76 10.4%	72 9.9%	728 100.0%

55)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					전체 <sup>55)</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490 32.6%	139 9.3%	548 36.5%	127 8.5%	197 13.1%	1,501 100.0%
거주 구별	수정구	99 36.5%	23 8.5%	85 31.4%	32 11.8%	32 11.8%	271 100.0%
	중원구	83 29.6%	25 8.9%	97 34.6%	32 11.4%	43 15.4%	280 100.0%
	분당구	308 32.4%	91 9.6%	366 38.5%	63 6.6%	122 12.8%	950 100.0%
학교 성적	안좋다	35 41.7%	5 6.0%	35 41.7%	6 7.1%	3 3.6%	84 100.0%
	안좋은 편이다	37 26.8%	12 8.7%	65 47.1%	12 8.7%	12 8.7%	138 100.0%
	보통 이다	138 32.2%	46 10.7%	158 36.9%	40 9.3%	46 10.7%	428 100.0%
	좋은 편이다	107 35.5%	31 10.3%	91 30.2%	35 11.6%	37 12.3%	301 100.0%
	좋다	173 31.4%	46 8.3%	199 36.1%	34 6.2%	99 18.0%	551 100.0%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하다	11 57.9%	1 5.3%	4 21.1%	0 .0%	3 15.8%	19 100.0%
	부족한 편이다	9 16.4%	4 7.3%	26 47.3%	8 14.5%	8 14.5%	55 100.0%
	보통 이다	201 31.6%	52 8.2%	253 39.7%	56 8.8%	75 11.8%	637 100.0%
	잘사는 편이다	143 34.8%	48 11.7%	135 32.8%	39 9.5%	46 11.2%	411 100.0%
	잘산다	126 33.1%	35 9.2%	130 34.1%	24 6.3%	66 17.3%	381 100.0%

둘째,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얼마나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40.7%의 청소년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9.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

는' 청소년의 비율은 14.9%로 높지 않았다. 배경변인별로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한 인지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별로 '전혀 모른다'와 '이름만 알고 있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6-2> 성남형교육지원단 인지도(명, %)

배경변인		성남형교육지원단 인지도					전체 <sup>56)</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612 40.7%	219 14.6%	447 29.8%	109 7.3%	115 7.7%	1,502 100.0%
학교급	초	296 41.1%	97 13.5%	206 28.6%	67 9.3%	54 7.5%	720 100.0%
	중	149 40.4%	59 16.0%	111 30.1%	21 5.7%	29 7.9%	369 100.0%
	고	167 40.4%	63 15.3%	130 31.5%	21 5.1%	32 7.7%	413 100.0%
성별	남	336 43.5%	102 13.2%	211 27.3%	53 6.9%	71 9.2%	773 100.0%
	여	275 37.8%	117 16.1%	236 32.4%	56 7.7%	44 6.0%	728 100.0%
거주구별	수정구	112 41.3%	36 13.3%	84 31.0%	17 6.3%	22 8.1%	271 100.0%
	중원구	114 40.7%	41 14.6%	76 27.1%	29 10.4%	20 7.1%	280 100.0%
	분당구	386 40.6%	142 14.9%	287 30.2%	63 6.6%	72 7.6%	950 100.0%

56)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성남형교육지원단 인지도					전체 <sup>56)</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612 40.7%	219 14.6%	447 29.8%	109 7.3%	115 7.7%	1,502 100.0%
학교 성적	안좋다	43 50.6%	9 10.6%	27 31.8%	4 4.7%	2 2.4%	85 100.0%
	안좋은 편이다	50 36.5%	19 13.9%	53 38.7%	10 7.3%	5 3.6%	137 100.0%
	보통 이다	185 43.3%	73 17.1%	116 27.2%	31 7.3%	22 5.2%	427 100.0%
	좋은 편이다	124 41.3%	39 13.0%	85 28.3%	27 9.0%	25 8.3%	300 100.0%
	좋다	210 38.1%	78 14.2%	166 30.1%	37 6.7%	60 10.9%	551 100.0%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하다	9 47.4%	3 15.8%	3 15.8%	1 5.3%	3 15.8%
부족한 편이다		19 34.5%	8 14.5%	21 38.2%	5 9.1%	2 3.6%	55 100.0%
보통 이다		256 40.3%	96 15.1%	204 32.1%	36 5.7%	44 6.9%	636 100.0%
잘사는 편이다		175 42.6%	64 15.6%	107 26.0%	41 10.0%	24 5.8%	411 100.0%
잘산다		152 40.0%	48 12.6%	113 29.7%	26 6.8%	41 10.8%	380 100.0%

셋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7.5%였다. 배경변인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별로 ‘이름만 알고 있다’와 ‘전혀 모른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6-3>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명, %)

배경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					전체 <sup>57)</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445	163	479	205	207	1,499
		29.7%	10.9%	32.0%	13.7%	13.8%	100.0%
학교급	초	228	85	212	95	99	719
		31.7%	11.8%	29.5%	13.2%	13.8%	100.0%
	중	108	34	121	56	48	367
		29.4%	9.3%	33.0%	15.3%	13.1%	100.0%
	고	109	44	146	54	60	413
		26.4%	10.7%	35.4%	13.1%	14.5%	100.0%
성별	남	248	88	249	83	104	772
		32.1%	11.4%	32.3%	10.8%	13.5%	100.0%
	여	197	76	230	121	104	728
		27.1%	10.4%	31.6%	16.6%	14.3%	100.0%
거주구별	수정구	82	27	82	40	40	271
		30.3%	10.0%	30.3%	14.8%	14.8%	100.0%
	중원구	82	24	84	41	51	282
		29.1%	8.5%	29.8%	14.5%	18.1%	100.0%
	분당구	281	113	314	124	118	950
		29.6%	11.9%	33.1%	13.1%	12.4%	100.0%
학교성적	안좋다	28	10	35	5	6	84
		33.3%	11.9%	41.7%	6.0%	7.1%	100.0%
	안좋은 편이다	35	10	53	26	13	137
		25.5%	7.3%	38.7%	19.0%	9.5%	100.0%
	보통이다	129	59	134	59	46	427
	30.2%	13.8%	31.4%	13.8%	10.8%	100.0%	
	좋은 편이다	84	35	80	52	49	300
		28.0%	11.7%	26.7%	17.3%	16.3%	100.0%
	좋다	169	50	176	63	94	552
		30.6%	9.1%	31.9%	11.4%	17.0%	100.0%

57)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					전체 <sup>5)</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445	163	479	205	207	1,499
		29.7%	10.9%	32.0%	13.7%	13.8%	100.0%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하다	8	3	4	1	2	18
		44.4%	16.7%	22.2%	5.6%	11.1%	100.0%
	부족한 편이다	9	6	23	9	8	55
		16.4%	10.9%	41.8%	16.4%	14.5%	100.0%
	보통이다	183	66	224	87	76	636
		28.8%	10.4%	35.2%	13.7%	11.9%	100.0%
잘사는 편이다	132	48	122	59	50	411	
	32.1%	11.7%	29.7%	14.4%	12.2%	100.0%	
잘산다	112	41	105	49	72	379	
	29.6%	10.8%	27.7%	12.9%	19.0%	100.0%	

넷째, (수정, 중원, 분당서현, 분당정자, 분당관교, 분당야탑 등 6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61.9%로 ‘청소년수련관’의 인지도는 재단과 다른 운영시설의 인지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청소년수련관’의 위치, 이름, 운영내용 등 모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청소년수련관 인지도(명, %)

배경변인		청소년수련관 인지도					전체 <sup>58)</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220 14.6%	81 5.4%	272 18.1%	204 13.6%	725 48.3%	1,502 100.0%		
학교급	초	127 17.6%	51 7.1%	120 16.7%	93 12.9%	329 45.7%	720 100.0%		
		58 15.7%	19 5.1%	66 17.9%	53 14.4%	173 46.9%	369 100.0%		
	고	35 8.5%	11 2.7%	86 20.8%	58 14.0%	223 54.0%	413 100.0%		
		성별		남	131 17.0%	49 6.3%	151 19.6%	95 12.3%	346 44.8%
	여	88 12.1%	32 4.4%	121 16.6%	109 15.0%	378 51.9%	728 100.0%		
		거주 구별	수정구	48 17.7%	17 6.3%	47 17.3%	40 14.8%	119 43.9%	271 100.0%
31 11.0%	10 3.6%			50 17.8%	50 17.8%	140 49.8%	281 100.0%		
분당구	140 14.8%		53 5.6%	175 18.5%	115 12.1%	465 49.1%	948 100.0%		
	학교 성적		안좋다	17 20.2%	6 7.1%	18 21.4%	9 10.7%	34 40.5%	84 100.0%
안좋은 편이다	17 12.4%		5 3.6%	32 23.4%	22 16.1%	61 44.5%	137 100.0%		
	보통 이다		70 16.4%	24 5.6%	94 22.0%	56 13.1%	183 42.9%	427 100.0%	
좋은 편이다		44 14.7%	16 5.3%	47 15.7%	55 18.3%	138 46.0%	300 100.0%		
	좋다	72 13.0%	29 5.3%	81 14.7%	62 11.2%	308 55.8%	552 100.0%		

58)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에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명)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청소년수련관 인지도					전체 <sup>58)</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220 14.6%	81 5.4%	272 18.1%	204 13.6%	725 48.3%	1,502 100.0%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하다	3 15.0%	2 10.0%	4 20.0%	1 5.0%	10 50.0%	20 100.0%
		7 12.7%	3 5.5%	16 29.1%	8 14.5%	21 38.2%	55 100.0%
	보통 이다	86 13.5%	37 5.8%	131 20.6%	102 16.0%	280 44.0%	636 100.0%
		59 14.4%	18 4.4%	69 16.9%	48 11.7%	215 52.6%	409 100.0%
	잘사는 편이다	64 16.8%	21 5.5%	52 13.6%	45 11.8%	199 52.2%	381 100.0%

다섯째, 성남시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를 살펴보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고,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1%로 낮게 나타났다. 배경변인 별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인지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별로 ‘전혀 모른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이름만 알고 있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6-5>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명, %)

배경변인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					전체 <sup>59)</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670 44.6%	215 14.3%	359 23.9%	98 6.5%	159 10.6%	1,501 100.0%
학교급	초	357 49.6%	103 14.3%	160 22.2%	45 6.3%	55 7.6%	720 100.0%
	중	163 44.3%	57 15.5%	81 22.0%	20 5.4%	47 12.8%	368 100.0%
	고	150 36.3%	55 13.3%	118 28.6%	33 8.0%	57 13.8%	413 100.0%
성별	남	367 47.5%	90 11.7%	178 23.1%	46 6.0%	91 11.8%	772 100.0%
	여	303 41.6%	124 17.0%	181 24.9%	52 7.1%	68 9.3%	728 100.0%
거주 구별	수정구	117 43.3%	41 15.2%	62 23.0%	23 8.5%	27 10.0%	270 100.0%
	중원구	103 36.8%	36 12.9%	67 23.9%	25 8.9%	49 17.5%	280 100.0%
	분당구	449 47.4%	138 14.6%	229 24.2%	50 5.3%	82 8.6%	948 100.0%
학교 성적	안좋다	40 47.1%	6 7.1%	28 32.9%	4 4.7%	7 8.2%	85 100.0%
	안좋은 편이다	44 32.1%	28 20.4%	42 30.7%	7 5.1%	16 11.7%	137 100.0%
	보통 이다	183 42.8%	62 14.5%	107 25.0%	32 7.5%	44 10.3%	428 100.0%
	좋은 편이다	150 49.8%	46 15.3%	66 21.9%	17 5.6%	22 7.3%	301 100.0%
	좋다	253 46.0%	72 13.1%	117 21.3%	38 6.9%	70 12.7%	550 100.0%

59)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					전체 <sup>59)</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670	215	359	98	159	1,501
		44.6%	14.3%	23.9%	6.5%	10.6%	100.0%
가정경제사정	부족하다	8	4	3	1	4	20
		40.0%	20.0%	15.0%	5.0%	20.0%	100.0%
	부족한 편이다	15	8	19	3	10	55
		27.3%	14.5%	34.5%	5.5%	18.2%	100.0%
	보통이다	257	99	165	42	73	636
		40.4%	15.6%	25.9%	6.6%	11.5%	100.0%
잘사는 편이다	201	55	96	28	30	410	
	49.0%	13.4%	23.4%	6.8%	7.3%	100.0%	
잘산다	189	49	76	23	42	379	
	49.9%	12.9%	20.1%	6.1%	11.1%	100.0%	

여섯째, 2019년 최근에 설립된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전혀 모른다’ 57.2%, ‘모른다’ 16.3%로 알지 못하는 비율이 73.4%였고, ‘알고 있다’ 2.5%, ‘잘 알고 있다’ 5.0%로 아는 비율은 7.5%로 상당히 낮았으며 이 비율은 재단과 다른 운영시설의 인지도와 비교해 가장 낮았다. 배경변인별로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에 대한 인지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별로 ‘전혀 모른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청소년의 ‘잘 알고 있다’ 비율은 11.1%로 다른 배경변인 집단에서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해 현저히 높았다.

<표 6-6>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 인지도(명, %)

배경변인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 인지도					전체 <sup>60)</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858	244	287	37	75	1,501
		57.2%	16.3%	19.1%	2.5%	5.0%	100.0%
학교급	초	426	113	126	20	35	720
		59.2%	15.7%	17.5%	2.8%	4.9%	100.0%
	중	209	65	69	7	19	369
		56.6%	17.6%	18.7%	1.9%	5.1%	100.0%
	고	223	66	92	10	21	412
		54.1%	16.0%	22.3%	2.4%	5.1%	100.0%
성별	남	446	113	148	19	45	771
		57.8%	14.7%	19.2%	2.5%	5.8%	100.0%
	여	410	131	138	18	30	727
		56.4%	18.0%	19.0%	2.5%	4.1%	100.0%
거주 구별	수정구	153	47	47	10	12	269
		56.9%	17.5%	17.5%	3.7%	4.5%	100.0%
	중원구	147	47	62	9	15	280
		52.5%	16.8%	22.1%	3.2%	5.4%	100.0%
	분당구	556	150	177	19	47	949
		58.6%	15.8%	18.7%	2.0%	5.0%	100.0%
학교 성적	안좋다	56	8	20	1	0	85
		65.9%	9.4%	23.5%	1.2%	.0%	100.0%
	안좋은 편이다	66	28	33	4	5	136
		48.5%	20.6%	24.3%	2.9%	3.7%	100.0%
	보통 이다	251	65	82	13	16	427
		58.8%	15.2%	19.2%	3.0%	3.7%	100.0%
좋은 편이다	169	66	48	3	14	300	
	56.3%	22.0%	16.0%	1.0%	4.7%	100.0%	
좋다	315	77	103	16	40	551	
	57.2%	14.0%	18.7%	2.9%	7.3%	100.0%	

60)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배경변인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 인지도					전체 <sup>60)</sup>
		전혀 모른다	모른다	이름만 알고있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858	244	287	37	75	1,501
		57.2%	16.3%	19.1%	2.5%	5.0%	100.0%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하다	11	1	4	0	2	18
		61.1%	5.6%	22.2%	.0%	11.1%	100.0%
	부족한 편이다	33	8	11	2	1	55
		60.0%	14.5%	20.0%	3.6%	1.8%	100.0%
	보통이다	349	116	123	17	30	635
		55.0%	18.3%	19.4%	2.7%	4.7%	100.0%
잘사는 편이다	245	68	77	10	10	410	
	59.8%	16.6%	18.8%	2.4%	2.4%	100.0%	
잘산다	219	50	71	8	32	380	
	57.6%	13.2%	18.7%	2.1%	8.4%	100.0%	

## 2) 2018/2020년 인지도 변화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 변화를 2018년 실태조사<sup>61)</sup>와 2020년 본 조사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재단과 운영시설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묶어 재단과 각 센터별로 하나의 문항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본 조사와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부정확하지만 대안으로 비슷한 내용의 선택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응답지의 응답비율의 합계를 비교하였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의 경우, 2020년 본 조사에서 ‘①전혀 모른다’, ‘②모른다’, ‘③이름만 알고 있다’로 응답한 ‘미인지 응답률’을 더하고,

61) 최창욱 외(2018).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성남시청소년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년 실태조사<sup>62)</sup>의 ‘④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와 ‘⑤전혀 모른다’의 ‘미인지 응답률’을 더하여, 두 조사의 ‘미인지 응답률’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지도 변화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 변화 비교 방식과 같이, 먼저 문항의 선택지 중 비슷한 내용의 선택지를 선정하고 선정한 선택지의 응답비율의 합계를 비교하였다. 즉 2020년 본 조사의 ‘①전혀 모른다’와 ‘②모른다’, ‘③이름만 알고 있다’로 응답한 ‘미인지 응답률’을 더하고, 2018년 실태조사의 ‘①모른다’와 ‘②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의 ‘미인지 응답률’을 비교하여 ‘미인지 응답률’의 변화

62) 2018년 실태조사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 II. 청소년 활동과 참여영역 —

3. 여러분은 성남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동아리, 자치기구 등)
- ②재단에서 하는 일(체험활동, 캠프, 강좌, 축제 등 문화행사 등)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 ③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동아리연습실 등)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 ④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 ⑤전혀 모른다.

4. 다음은 성남지역 청소년시설·기관을 알고 있는지와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청소년수련관(수정, 중원, 분당서현, 분당정자, 분당관교)
- 2) 청소년문화의집(양지동, 은행동)
- 3)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①모른다
  - ②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 ③이용한 경험이 있다
  - ④자주 이용하고 있다(월 2-3회 이하)
  - ⑤거의 매일 이용한다(주 1-2회 이상)

를 살펴보았다.

<표 6-7> 재단과 운영시설 인지도 변화(2018/2020년, %)

연도	2018년 실태조사				2020년 본 조사			미인지 응답률 변화 (2018- 2020)
	① 모른다	②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④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이름만 알고 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제외	제외	40.3%	32.4%	32.6%	9.3%	36.5%	-5.7%
청소년 수련관	10.7%	18.3%	제외	제외	14.6%	5.4%	18.1%	-9.1%
청소년 문화의집	50.6%	27.9%	제외	제외	44.6%	14.3%	23.9%	-4.3%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8.6%	53.2%	제외	제외	29.7%	10.9%	32.0%	19.2%

대략적으로 비교하면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인지도는 2018년보다 2020년 조사에서 ‘모른다’로 해석할 수 있는 미인지 응답률이 5.7% 늘어 인지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미인지 응답률은 각각 9.1%, 4.3% 증가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미인지 응답률은 19.2% 줄어 인지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2018년 실태조사와 2020년 본 조사의 설문 문항과 선택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관계로 실제 인지도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미인지 응답률의 수치를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다.

## 2.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의 활용도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활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용해 본 시설을 모두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재단 운영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6개소의 이용률이 총 62.5%(1,222건/1,955건)로 나타나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의 이용률 4.8%(93건/1,955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의 이용률 2.2%(43건/1,955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0.6%(598건/1,955건)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어떤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시설별로는 '중원청소년수련관' 이용 경험이 15.4%(300건/1,955건)로 가장 높았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14.4%(282건/1,955건), '수정청소년수련관' 11.7%(229건/1,95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중원청소년수련관'을 가장 많이 이용(17.5%)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을 가장 많이 이용(24.6%, 2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이용 시설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자 청소년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을 (15.2%), 여자 청소년은 '중원청소년수련관'을(17.8%)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거주구별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구의 '청소년수련관'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수정구 거주 청소년은 '수정청소년수련관'을(38.9%), 중원구 거주 청소년은 '중원청소년수련관'을(38.8%), 분당구 거주 청

소년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을(21.6%)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경우 거주 구의 ‘청소년수련관’ 이용률(38.9%, 38.8%)이 ‘이용 경험 없음’ 비율(29.8%, 23.2%)보다 높았고, 분당구 거주 청소년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과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등 4개소 이용률이 51.4%로 상당히 높았다.

학교성적별로 재단 운영시설 활용도를 살펴보면, 학교성적이 ‘안 좋’거나 ‘안 좋은 편’인 학생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비교적 높았고(‘안 좋다’ 15.9%, ‘안 좋은 편이다’ 21.3%), 학교성적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중원청소년수련관’ 이용률(‘보통이다’ 16.3%, ‘좋은 편이다’ 16.8%, ‘좋다’ 15.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중원청소년수련관’(28.2%)과 ‘수정청소년수련관’(14.2%), ‘양지동청소년문화의 집’(13.2%)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였고,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편’과 ‘보통’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원청소년수련관’(‘부족한 편’ 21.0%, ‘보통’ 16.9%)과 ‘수정청소년수련관’(‘부족한 편’ 16.0%, ‘보통’ 15.6%)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잘사는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중원청소년수련관’(15.9%)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15.3%)을, ‘잘산다’로 응답한 청소년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19.2%),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11.3%)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11.3%)을 다른 시설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배경변인별 성남시 청소년시설 활용도(건, %)

시설	수정 청소년 수련관	중원 청소년 수련관	분당서현 청소년 수련관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	분당판교 청소년 수련관	분당야탑 청소년 수련관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이용 경험없음	전체 <sup>63)</sup>	
전체	229	300	155	282	164	91	50	43	43	598	1,955	
	11.7%	15.4%	8.0%	14.4%	8.4%	4.7%	2.5%	2.2%	2.2%	30.6%	100.0%	
학교 급별	초	116	151	82	38	58	64	6	4	27	317	863
		13.4%	17.5%	9.5%	4.4%	6.7%	7.5%	.7%	.5%	3.2%	36.8%	100.0%
	중	41	58	24	124	39	14	25	26	8	144	503
		8.2%	11.5%	4.7%	24.6%	7.8%	2.9%	4.9%	5.2%	1.6%	28.6%	100.0%
	고	72	92	50	121	66	12	19	13	7	137	590
		12.2%	15.5%	8.5%	20.5%	11.2%	2.1%	3.2%	2.3%	1.2%	23.2%	100.0%

63)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엔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시설		수정 청소년 수련관	중원 청소년 수련관	분당서현 청소년 수련관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	분당관교 청소년 수련관	분당야탑 청소년 수련관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이용 경험없음	전체 <sup>63)</sup>
전체		<b>229</b>	<b>300</b>	155	<b>282</b>	164	91	50	43	43	<b>598</b>	1,955
		<b>11.7%</b>	<b>15.4%</b>	8.0%	<b>14.4%</b>	8.4%	4.7%	2.5%	2.2%	2.2%	<b>30.6%</b>	100.0%
성별	남	98	128	82	150	78	51	23	19	19	343	990
		9.9%	12.9%	8.3%	15.2%	7.9%	5.1%	2.3%	1.9%	1.9%	34.6%	100.0%
	여	131	172	74	132	86	40	27	24	24	255	965
		13.6%	17.8%	7.6%	13.7%	8.9%	4.2%	2.8%	2.5%	2.5%	26.4%	100.0%
거주 구별	수정구	132	47	7	6	8	3	15	12	8	101	338
		38.9%	14.0%	2.0%	1.8%	2.2%	.9%	4.3%	3.4%	2.5%	29.8%	100.0%
	중원구	54	152	10	11	12	6	21	26	9	91	393
		13.8%	38.8%	2.5%	2.9%	3.1%	1.5%	5.3%	6.6%	2.4%	23.2%	100.0%
	분당구	44	100	139	265	144	82	14	6	25	406	1,224
		3.6%	8.2%	11.3%	21.6%	11.8%	6.7%	1.2%	.5%	2.0%	33.2%	100.0%

시설	수정 청소년 수련관	중원 청소년 수련관	분당서현 청소년 수련관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	분당관교 청소년 수련관	분당야탑 청소년 수련관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이용 경험없음	전체 <sup>63)</sup>	
전체	<b>229</b>	<b>300</b>	155	<b>282</b>	164	91	50	43	43	<b>598</b>	1,955	
	<b>11.7%</b>	<b>15.4%</b>	8.0%	<b>14.4%</b>	8.4%	4.7%	2.5%	2.2%	2.2%	<b>30.6%</b>	100.0%	
학교 성적별	안좋다	11	13	5	17	6	2	4	3	2	42	105
		10.7%	12.2%	4.4%	15.9%	5.8%	2.1%	3.8%	3.3%	1.4%	40.4%	100.0%
	안좋은 편이다	30	23	7	41	24	7	9	8	4	42	194
		15.3%	12.1%	3.5%	21.3%	12.3%	3.4%	4.7%	3.9%	2.2%	21.4%	100.0%
	보통 이다	71	91	34	82	42	14	21	18	7	178	558
		12.8%	16.3%	6.0%	14.8%	7.4%	2.5%	3.8%	3.2%	1.3%	32.0%	100.0%
좋은 편이다	46	60	19	54	25	12	4	3	10	122	354	
	12.9%	16.8%	5.5%	15.2%	7.0%	3.5%	1.0%	.8%	2.9%	34.3%	100.0%	
좋다	72	114	91	88	67	56	12	11	19	214	745	
	9.6%	15.3%	12.2%	11.9%	9.0%	7.5%	1.6%	1.5%	2.6%	28.7%	100.0%	



시설	수정 청소년 수련관	중원 청소년 수련관	분당서현 청소년 수련관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	분당관교 청소년 수련관	분당야탑 청소년 수련관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이용 경험없음	전체 <sup>63)</sup>	
전체	<b>229</b>	<b>300</b>	155	<b>282</b>	164	91	50	43	43	<b>598</b>	1,955	
	<b>11.7%</b>	<b>15.4%</b>	8.0%	<b>14.4%</b>	8.4%	4.7%	2.5%	2.2%	2.2%	<b>30.6%</b>	100.0%	
가정 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4	7	2	2	0	1	3	2	0	5	26
		14.2%	28.2%	6.9%	7.4%	1.2%	3.0%	13.2%	6.0%	1.2%	18.9%	100.0%
	부족한 편이다	12	16	7	6	4	2	4	3	1	22	78
		16.0%	21.0%	8.5%	7.1%	5.0%	3.1%	5.6%	3.9%	1.2%	28.7%	100.0%
	보통 이다	129	140	46	99	57	29	25	23	23	258	829
		15.6%	16.9%	5.5%	11.9%	6.9%	3.5%	3.0%	2.8%	2.8%	31.1%	100.0%
잘사는 편이다	48	83	45	80	46	39	14	10	6	154	525	
	9.2%	15.9%	8.6%	15.3%	8.7%	7.4%	2.7%	1.9%	1.2%	29.3%	100.0%	
잘산다	36	53	56	96	56	20	3	6	12	159	497	
	7.2%	10.7%	11.3%	19.2%	11.3%	4.1%	.6%	1.1%	2.4%	31.9%	100.0%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활동<sup>64)</sup>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활동에 참여경험 있음/없음을 표시하도록’ 했는데, 성남시 청소년은 ‘①작은도서관’ 활동을 20.8%(612건/2,940건)로 가장 많이 하였고 ‘②각종 강좌수업’에도 활발히 참여(17.6%, 518건/2,940건)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중학생은 ‘①작은도서관’(초 20.6%, 중 21.6%)과 ‘②각종 강좌수업’(초 19.5%, 중 16.4%)을 주로 활용하였고, 고등학생은 ‘①작은도서관’(20.6%)과 ‘③놀이·문화 공간’(13.8%), ‘⑥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13.7%)을 주로 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참여 활동에 큰 차이가 없었고,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①작은도서관’(20.2%, 21.4%)과 ‘②각종 강좌수업’(18.7%, 16.5%)을 주로 활용했다.

또 거주구별로는 수정구와 분당구 거주 청소년은 ‘①작은도서관’(수정구 17.6%, 분당구 23.1%)을, 중원구 거주 청소년은 ‘②각종 강좌수업’(18.8%)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 활동 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①작은도서관’과 ‘②각종 강좌수업’에 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4) 참여활동은 ①작은도서관, ②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수업, ③문화놀이터, 자립문화공간 등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사용, ④어울림마당, 창의과학축제, 통고구마축제 등 행사 참여, ⑤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행복의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⑥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⑦코끼리, 청바지프로젝트, 목공, 생존수영 등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학교연계활동, ⑧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⑨또래상담,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6-9> 배경변인별 성남시 청소년시설 활동내용(건, %)

구분	작은 도서관	각종 강좌수업	놀이문화 공간사용	행사참여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자치조직동아리활동	학교연계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상담 심리지원 활동	전체 <sup>65)</sup>	
전체	612	518	354	226	165	289	288	323	165	2,940	
	20.8%	17.6%	12.1%	7.7%	5.6%	9.8%	9.8%	11.0%	5.6%		
학교 급별	초	357	338	195	129	84	150	184	205	92	1,736
		20.6%	19.5%	11.2%	7.4%	4.8%	8.7%	10.6%	11.8%	5.3%	100.0%
	중	135	102	80	51	43	59	59	56	39	624
		21.6%	16.4%	12.8%	8.1%	7.0%	9.5%	9.5%	8.9%	6.2%	100.0%
	고	120	77	80	46	38	79	45	62	34	581
		20.6%	13.3%	13.8%	8.0%	6.5%	13.7%	7.7%	10.7%	5.8%	100.0%

65)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구분		작은 도서관	각종 강좌수업	놀이문화 공간사용	행사참여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자치조직동 아리활동	학교연계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상담 심리지원 활동	전체 <sup>65)</sup>
전체		612 20.8%	518 17.6%	354 12.1%	226 7.7%	165 5.6%	289 9.8%	288 9.8%	323 11.0%	165 5.6%	2,940
성별	남	302 20.2%	278 18.7%	170 11.4%	118 7.9%	93 6.3%	137 9.2%	144 9.7%	160 10.7%	88 5.9%	1,491 100.0%
	여	310 21.4%	240 16.5%	184 12.7%	109 7.5%	71 4.9%	152 10.5%	144 9.9%	163 11.2%	77 5.3%	1,449 100.0%
거주 구별	수정구	105 17.6%	104 17.4%	64 10.8%	51 8.6%	37 6.2%	67 11.3%	57 9.7%	73 12.3%	36 6.1%	595 100.0%
	중원구	100 17.2%	109 18.8%	64 11.1%	48 8.2%	32 5.6%	54 9.3%	69 11.8%	68 11.8%	37 6.3%	581 100.0%
	분당구	407 23.1%	305 17.3%	226 12.8%	127 7.2%	96 5.4%	167 9.5%	162 9.2%	182 10.3%	92 5.2%	1,764 100.0%

구분		작은 도서관	각종 강좌수업	놀이문화 공간사용	행사참여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자치조직동아리활동	학교연계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상담 심리지원 활동	전체 <sup>65)</sup>
전체		612 20.8%	518 17.6%	354 12.1%	226 7.7%	165 5.6%	289 9.8%	288 9.8%	323 11.0%	165 5.6%	2,940
학교 성적별	안좋다	31 20.1%	21 13.9%	19 12.3%	14 8.8%	13 8.4%	14 9.2%	14 9.1%	18 11.9%	10 6.3%	155 100.0%
	안좋은 편이다	48 18.2%	40 15.2%	35 13.1%	22 8.3%	17 6.4%	35 13.1%	22 8.2%	29 11.1%	17 6.5%	266 100.0%
	보통이다	139 22.6%	112 18.3%	81 13.1%	46 7.5%	35 5.7%	61 9.9%	49 7.9%	60 9.8%	32 5.1%	614 100.0%
	좋은 편이다	142 21.7%	121 18.5%	76 11.5%	48 7.3%	34 5.2%	68 10.3%	56 8.6%	79 12.0%	32 4.9%	657 100.0%
	좋다	251 20.1%	222 17.8%	144 11.5%	97 7.8%	65 5.2%	111 8.9%	148 11.8%	136 10.9%	74 5.9%	1,249 100.0%

구분	작은 도서관	각종 강좌수업	놀이문화 공간사용	행사참여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자치조직동 아리활동	학교연계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상담 심리지원 활동	전체 <sup>65)</sup>	
전체	612 20.8%	518 17.6%	354 12.1%	226 7.7%	165 5.6%	289 9.8%	288 9.8%	323 11.0%	165 5.6%	2,940	
가정 경제 사정별	부족하다	8 18.1%	6 14.9%	3 8.0%	4 10.2%	4 9.1%	5 10.7%	4 8.4%	7 15.9%	2 4.8%	43 100.0%
	부족한 편이다	18 22.0%	9 10.7%	9 10.7%	8 10.2%	5 5.5%	10 12.8%	9 10.7%	6 7.7%	8 9.7%	81 100.0%
	보통 이다	234 19.8%	200 17.0%	152 12.8%	89 7.5%	69 5.9%	119 10.1%	112 9.4%	140 11.9%	67 5.7%	1182 100.0%
	잘사는 편이다	180 22.2%	152 18.7%	83 10.2%	60 7.3%	43 5.3%	83 10.2%	83 10.3%	86 10.6%	42 5.2%	811 100.0%
	잘산다	173 21.0%	151 18.3%	108 13.1%	65 7.9%	44 5.4%	72 8.8%	81 9.9%	84 10.2%	45 5.5%	823 100.0%

### 3.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재단과 운영시설에 어떤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재단과 운영시설 활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을 선정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표 6-10>과 같다.

배경변인 중 학교급별( $r=.094, p<.01$ ), 성별( $r=.96, p<.01$ )과 거주구별( $r=-.061, p<.05$ ) 변인이 재단 시설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재단 시설을 더 많이 활용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분당구 거주 청소년보다 수정구 거주 청소년이 재단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는 자기 장점 인정( $r=.097, p<.01$ ), 타인의 인정( $r=.084, p<.01$ ), 주변과의 관계( $r=.075, p<.01$ ), 학교생활 만족도( $r=.064, p<.05$ )와 지역사회 참여기회 충분도( $r=.055, p<.05$ )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자기 장점을 인정할수록,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할수록,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재단 시설 이용도가 높았다. 스트레스·부적응 영역에서는 전체적인 스트레스(불안, 우울감),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트레스,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등 4개 스트레스·부적응 변인 모두 재단 시설 활용도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가 시간·장소·프로그램 만족도 등 3개 변인 모두 재단 시설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 영역에서는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록( $r=.093, p<.01$ ) 재단 시설을 보다 많이 활용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재단 시설 활용도에 부적 관련( $r=-.076, p<.05$ )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수록 재단 시설을 적게 이용하고 있었다.

<표 6-10> 재단 시설 활용도 변인 간 상관관계

관련 (예상) 변인		재단 시설 활용도
배경변인	학교급	.094**
	성별	.096**
	거주구	-.061*
	학교성적	.015
	가정경제사정	-.014
삶의 만족도	자기장점 인정	.097***
	타인의 인정	.084**
	주변과의 관계	.075**
	학교생활 만족도	.064*
	참여기회 충분도	.055*
스트레스 · 부적응	전반적 불안·우울감	.005
	학업 스트레스	-.003
	교우관계 스트레스	.035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003
여가	여가시간 충분도	-.005
	여가장소 충분도	.014
	여가프로그램 충분도	.048
참여	사회·정치문제 관심	.093**
복지	아르바이트 경험	-.076*

\* $p<.05$  \*\* $p<.01$



청소년의 재단 시설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11>에서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Hosmer와 Lemeshow 적합도 검정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 가 .05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정하는데, [모형 1]의  $p$ 는 .795로 .05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모형 2]의  $p=.896$ , [모형 3]의  $p=.807$ , [모형 4]의  $p=.587$ 로 모두 .05보다 커 적합한 모형으로 판별되었다.

[모형 1]에서 배경변인이 재단 시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Nagelkerke  $R^2$ )은 1.9%였지만, 배경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없어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는 배경변인과 삶의 만족도가 재단의 시설 활용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배경변인의 성별 변수( $\text{Exp}(B)=1.428$ ,  $p<.05$ )와 삶의 만족도 영역 중 자기 장점 인정 정도( $\text{Exp}(B)=1.340$ ,  $p<.05$ ) 변수가 재단의 시설 활용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재단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이 1.428배 높았고, 자기 장점을 인정하는 수준이 한 수준씩 올라갈수록 재단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이 1.340배 상승하였다. [모형 2]의 설명력은 3.8%로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1.9% 증가했다.

[모형 3]에서는 배경변인, 삶의 만족도와 사회 참여의식 변수가 재단 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배경변인에서는 성별( $\text{Exp}(B)=1.425$ ,  $p<.05$ ) 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는 자기 장점 인정 정도( $\text{Exp}(B)=1.320$ ,  $p<.05$ ) 변수가 재단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재단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이

1.425배 높았고, 자신의 장점을 더 강하게 인정할수록 재단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은 1.320배 높아졌다.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재단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재단 시설 활용 여부와는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모형 3]의 설명력은 3.7%로 [모형 2]보다 설명력이 0.5% 상승했다.

[모형 4]는 배경변인, 삶의 만족도, 사회 참여의식과 함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가 재단의 운영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배경변인에서는 성별( $\text{Exp}(B)=1.423, p<.05$ ) 변수와 삶의 만족도에서는 자기 장점 인정 정도( $\text{Exp}(B)=1.308, p<.05$ ) 변수가 재단의 시설 이용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재단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1.423배 높았고, 자기 장점을 인정하는 수준이 한 수준씩 올라갈수록 재단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이 1.30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는 재단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이 변인과 재단 시설 활용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모형 4]의 설명력은 4.3%로 [모형 3]보다 설명력이 0.6% 늘어났다.

최종 [모형 4]의 설명력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재단의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들 중 시설활용 여부에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진 성별 및 자기 장점 인정도, 2개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11> 재단 시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Exp(B)	p	Exp(B)	p	Exp(B)	p	Exp(B)	p	
상수	.367	.090	.210*	.020	.196*	.015	.605	.573	
배경변인	학교급	1.338	.056	1.324	.069	1.306	.085	1.207	.240
	성별	1.328	.060	1.428*	.021	1.425*	.022	1.423*	.023
	거주구	1.005	.959	.996	.971	.985	.882	1.022	.837
	학교성적	1.133	.058	1.085	.239	1.066	.364	1.067	.358
	가정경제사정	1.003	.969	.980	.822	.970	.732	.984	.861
삶의만족도	자기장점 인정			1.340*	.016	1.320*	.023	1.308*	.028
	타인의 인정			.843	.206	.847	.220	.846	.217
	주변과의 관계			.882	.333	.875	.301	.872	.292
	학교생활 만족도			1.114	.304	1.124	.269	1.139	.219
	참여기회 충분도			1.102	.360	1.079	.474	1.077	.488
참여	사회·정치문제 관심					1.117	.089	1.122	.079
복지	아르바이트 경험							.567	.055
Hosmer와 Lemeshow 적합도 검정		$\chi^2$	p	$\chi^2$	p	$\chi^2$	p	$\chi^2$	p
		4.641	.795	3.542	.896	4.524	.807	6.539	.587
Cox와 Snell의 R <sup>2</sup>		.014		.027		.031		.036	
Nagelkerke R <sup>2</sup>		.019		.038		.043		.049	

\*p<.05

#### 4. 성남시청소년재단에의 요구

성남시 청소년들은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을 보다 자유롭게 활발히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활동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를 희망하였다.

추가되어야 할 활동공간으로는 체육시설(1인 수영장, 농구장, 탁구장, 작은체육관 등), 음악·댄스 연습실, 1인 휴식공간(게임방, 수면실,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 독서실과 공부방 등을 제안하였고, 개설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경제교육, 베이킹과 목공예, DIY, 게임만들기 강좌, 재미있는 봉사활동, 심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교육 등을 들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홍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개인위생교육, 실내운동, 후유증 극복 프로그램 개설, 다른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 지역 청소년 축제와 영화제 개최 등이 있었다.

## 제 7 장

###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제7장 |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4차 산업혁명과 고도 자본주의 체제로 대변되는 같은 사회경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도와 생활실태, 특히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조사하여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한 삶,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정책에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주관적 행복도(A)<sup>66</sup>, 생활실태(B)<sup>67</sup>,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생활변화(C), 배경변인(D) 등 4개 영역으로 설문지를 설계하였고, 거주구별, 학교급별로 편의적 표집 방식을 적용하고 이후 눈덩이 표집 방식을 사용하여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1,842명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중복 응답과 무성의 응답을 클리닝하여 최종 1,500개의 데이터로 정리되었고, 모집단의 인구통계학적

66)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부적응 문항을 포함

67) 여가, 참여의식, 아르바이트 실태, 스마트폰 사용, 체험활동, 독서활동, 온라인 활동,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 시설 인지도와 활용도 문항으로 구성

변인별 크기와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 설정하였다.

### 1) 청소년의 행복과 스트레스

성남시 청소년의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4.03(5점 만점),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4.09로 현재보다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이 다소 높았다.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 배경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은 거주구별 변인을 제외하고 학교급별, 성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성별에 따른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의 유의수준은  $p<.01$ 이고, 그 외는 유의수준  $p<.001$ 임).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현재·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이 모두 높았다. 거주구별로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은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성적별로는 현재와 미래 행복감 모두 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보통 이하의 학생보다 높았다. 가정경제사정별로는 잘사는 학생의 현재와 미래 행복감이 보통 수준 이하로 응답한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추가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이용 경험 여부에 따라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에는 유의한 차가 있었다( $p < .05$ ).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은 현재에도 행복하고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긍정 비율(‘그렇다’ 응답 비율과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합산)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자연재해, 범죄로부터 안전’(84.7%),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음’(83.1%),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음’(81.7%) 등이었고, 부정 비율(‘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과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을 합산)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됨’(16.9%), ‘나는 장점이 많음’(12.6%),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11.3%) 등이었다.

부정 비율이 높았던 ‘환경문제 우려’, ‘자기 장점 인정’, ‘자기 유용성’ 문항과, 부정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의 기저를 이루는 ‘주관적 건강’과 ‘학교생활 만족도’ 문항에서 낮은 비율(6.2%, 6.3%)을 보였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만족 내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집단과 대상인원을 추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현재의 주관적 만족감’이 낮고 ‘미래의 주관적 만족감’ 수준이 낮은 집단을 다음 <표 7-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7-1>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만족감(명, %)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전체 <sup>68)</sup>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7 0.5%	7 0.5%	5 0.3%	2 0.1%	2 0.1%	23 1.5%
그렇지 않다 (2점)	2 0.1%	19 1.3%	25 1.7%	14 0.9%	7 0.5%	67 4.5%
보통이다 (3점)	5 0.3%	32 2.1%	152 10.1%	101 6.7%	34 2.3%	324 21.6%
그렇다 (4점)	0 0.0%	10 0.7%	96 6.4%	278 18.6%	119 7.9%	503 33.6%
매우 그렇다 (5점)	1 0.1%	0 0.0%	20 1.3%	107 7.1%	453 30.2%	581 38.8%
전체	15 1.0%	68 4.5%	298 19.9%	502 33.5%	615 41.1%	1,498 100.0%

가장 시급하게 개입하고 지원해야 할 집단은 ‘현재 주관적 만족감’과 ‘미래 주관적 만족감’이 모두 매우 낮은 집단으로, (현재, 미래) 주관적 만족감을 (1,1)로 응답한 집단으로 비율이 약 0.5%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자아개념을 함께 키워 줘야 할 청소년으로 이 비율을 성남시 학령기 인구(약 10만 명) 대비 환산하면 약 500명이 최우선 지원 대상 청소년 인원이 된다. 그리고 (현재, 미래) 주관적 만족감이 모두 낮은 편인 (1,1), (1,2), (2,1), (2,2)로 응답한 4개 집

68)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역별 가중 설정으로 전체 응답 인원내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전체 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 인원과 비율을 기술하였다. 인원(명)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단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며 살펴야 할 청소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의 비율을 합하면 약 2.3%인데 성남시 학령기 인구 대비 환산하면 약 2,300명 정도의 인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현재, 미래) 주관적 만족감을 (1,1), (1,2), (2,1), (2,2), (3,1), (3,2)로 응답한 6개 집단을 한정할 수 있는데, 이 여섯 집단의 비율을 합하면 약 4.8%가 되고 성남시 학령기 인구에 대비, 환산하면 대상 인원은 약 4,800명이 된다. 즉 성남시청소년재단이 관심을 기울이고 특성에 맞게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성남시 청소년은 약 5천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생의 평균은 거의 동일했는데 집단 간 평균 차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여자 청소년보다 높았고( $p < .001$ ), 거주구별로는 집단 간 평균 차가 없었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안 좋은 편’인 학생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 성적이 좋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p < .001$ ), 가정경제사정별로는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 .001$ ). 또 재단 운영시설의 이용 경험 유무는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행복지수 데이터의 특성을 보고자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남시 청소년 전체 데이터는 2-6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화 할 수 있었는데

데 클러스터 대푯값의 차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클러스터 수는 5개였다.

[클러스터 1]은 행복지수가 0.91로 5개 클러스터 중 가장 높았고, [클러스터 2]와 [클러스터 3]의 행복지수는 각각 0.70과 0.69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두 클러스터 간 차는 크지 않았다. [클러스터 4]의 행복지수는 0.62였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5]의 행복지수는 0.43으로 5개 클러스터 중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하면, 행복지수로만 판단할 때 [클러스터 1]이 상위에,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과 [클러스터 4]가 중위권을 형성하고, [클러스터 5]가 하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클러스터 1-5]의 모든 클러스터에서 ‘안전’과 ‘관계’ 영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클러스터별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클러스터 1], [클러스터 3]과 [클러스터 4]에서는 ‘교육/학습’ 영역, [클러스터 2]에서는 ‘외모’ 영역, [클러스터 5]는 ‘미래진로’ 영역이었는데, 대체로 ‘교육/학습’, ‘미래진로’, ‘자아개념’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보다 세분하여 학교급별로 클러스터를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는 2-3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화할 수 있었는데, 클러스터 대푯값의 차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클러스터 수는 각각 3개였다. 초·중·고등학생의 클러스터의 유형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성남시 청소년 전체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행복지수의 하위영역별로 ‘안전’ 영역의 지수가 가장 높고 ‘교육/학습’ 영역의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행복지수가 높은 클러스터는 초-k2,

중-k2, 고-k3 클러스터였는데, 초-k2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사정이 초-k 클러스터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단 시설 활용 수준도 가장 높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는 초-k 클러스터 중 가장 낮았다. 중-k2는 중-k 클러스터 중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학업성적, 가정경제사정, 재단 운영시설 활용 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의식이 중-k 클러스터 중 가장 낮았고 반면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를 가장 덜 겪고 있었다. 고-k3 클러스터는 학생 수가 가장 적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사정은 높은 수준이었고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재단 운영시설 활용 수준과 참여의식은 고-k 클러스터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던 클러스터는 초-k1, 중-k3, 고-k1이었다. 초-k1은 클러스터별 학생 수가 가장 적었다. 초-k1 클러스터는 다른 두 초-k 클러스터에 비해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고, 가정경제사정도 부족한 편이었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었고, 재단시설의 활용 수준은 다른 초-k 클러스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k3은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사정이 중-k1, 중-k2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고, 재단 운영시설 활용 정도도 가장 낮았다. 그러나 참여의식이 중-k 클러스터 중 가장 높았고,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 정도는 중-k1보다 작고 중-k2보다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k1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집단으로, 학업성취, 가정경제사정이 고-k 클러스터 중 가장 낮았고, 참여의식,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 재단 운영시설 활용 수준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k, 중-k, 고-k 클러스터 간 성별, 거주구별

분포에 유의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남시 청소년의 전반적인 스트레스도는 2.40(5점 척도)로 보통 미만 수준이었다. 스트레스 유형별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는 숙제나 시험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2.85)였고, 진로 불확실로 인한 스트레스도 2.3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모관계와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1.76)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1.90)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변인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살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 $p<.001$ ), 성별이나 거주구별, 재단시설 이용 경험은 평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2) 생활실태

성남시 청소년의 여가시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1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장소 충분도는 3.79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가 프로그램 만족도도 3.39로 평균보다 높았다.

선거·참여의식 영역의 3개 문항은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자료를 수집했는데, 성남시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3.24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는 4.30으로 상당히 높았다. 또 선거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도 4.14로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중·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응답자 780명 중 76명(9.7%)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

험이 없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1주일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주 6-10시간이 20명(27.0%)으로 가장 많았고, 주 11-15시간이 19명(25.7%), 주 3시간 이하가 16명(21.6%),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활동 중 임금 체불, 최저시급 미만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폭언이나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를 당한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50.0%(19명/3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부분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77.3%)고 응답했는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79.4%, 중학생 57.1%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청소년의 72.7%는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보통’ 미만의 곤란함을 겪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낮았으며, 스마트폰 사용시간 자기조절 정도는 성남시 전체 청소년의 82.2%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자기조절률이 높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했던 일에 차질이 생긴 경우(‘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응답한 경우)는 19.6%에 그쳐 성남시 청소년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장소를 잘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청소년의 2019-2020년 체험활동<sup>69)</sup> 참여 경험은 건강·보건 활동 영역의 참여가 가장 높았고(92.3%), 모험개척 활동의 참여가 가장 낮았다(34.4%). 온라인 체험활동이 가장 활발한 영역은 건강·보

69) 체험활동은 건강·보건,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인성)개발 활동 등 총 9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건 활동(21.4%)이었고, 오프라인 참여비율은 직업체험 활동(41.0%)과 봉사 활동(38.9%)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참여가 활발한 활동 영역은 건강·보건(39.5%)이었다.

체험활동 만족도는 직업체험(28.5%) 활동에서 가장 높았고, 환경보존(2.3%), 교류(3.3%), 모험개척(4.7%) 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체험활동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온라인 방식에서는 건강·보건활동(24.9%)과 문화·예술활동(16.6%)을,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직업체험활동(22.9%)과 문화·예술활동(17.3%)을 1순위로 선택했다.

성남시 청소년의 평균 독서량은 연간 23.3권이었다. 초등학생 38.9권, 중학생 12.6권, 고등학생 5.9권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줄었는데, 특히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독서량이 급감하였다. 성남시 청소년의 35.3%는 자신의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독서 선호도는 ‘좋아한다’는 응답이 40.4%,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6%로, ‘좋아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성남시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수준은 ‘많이 했다’ 26.2%, ‘매우 많이 했다’ 20.9%로, 47.1%의 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였고, 성별로는 커뮤니케이션·소통과 여가활동 영역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거주구별로는 커뮤니케이션·소통과 여가활동 영



역에서 수정구 거주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평균이 가장 높았다. 또 교육·학습을 위한 온라인 활동은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경제사정별로는, 가정형편이 ‘부족’한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활동 영역의 평균이 높았고, 교육·학습 목적의 온라인 활동은 가정형편이 ‘잘사는’ 청소년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온라인 활동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튜브(35.7%)였고, 그 다음으로 카카오톡(14.6%), 네이버(14.4%) 순이었다. 온라인 활동 중 사생활 공유, 사생활 유출과 같은 부정적 경험은 거의 없었으나(‘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 88.0%, 88.0%), 온라인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과반으로(52.4%) 온라인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

코로나-19로 인해 성남시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했다(2.87/5.0), 그리고 등교하지 않는 날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더 나아진(3.87/5.0)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시간은 평균 3.33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소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전자기기의 사용시간(3.62/5.0)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3.13/5.0)은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수업(원격수업)이 시급하게 진행되면서 온

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가 교육격차 지표로 고려되는데, 성남시 청소년의 86.8%는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온라인수업 기기로 인한 교육격차는 전반적으로 심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온라인수업과 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어려움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3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혼자서 해결(27.9%)하거나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27.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 외 사교육 시간이 '늘었다'는 의견이 19.2%, 줄었다는 의견이 11.0%로 조사되었으나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후 학교 수업 방식 선호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36.6%가 코로나-19 전과 같이 '매일 등교'를 원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처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2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안 좋'거나 '안 좋은 편'인 학생과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하거나 '부족한 편'인 청소년은 코로나-19 상황에서와 같이 '등교와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호하였고, 학교성적이 '보통 이상'인 학생과 가정경제사정이 '보통 이상'인 청소년은 코로나-19 이전처럼 '매일 등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26.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친구를 못 만남

(20.7%)’이었고, ‘외출을 못해 답답함’(14.8%)을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특히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생활리듬이 깨짐’(19.1%)과 ‘원격수업(온라인수업)으로 인한 성적관리’(13.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어 다른 집단과 우선순위가 달랐다.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감정으로 짜증(22.3%)과 불안(26.9%), 우울(11.7%) 등을 들고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경험한 감정에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변화 없음’(13.6%)과 ‘평온’(10.9%)의 비율도 의외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소년의 여가활동 장소는 ‘본인 집’(66.5%), ‘친구집’(10.4%), ‘놀이터·공원’(7.4%)과 ‘체육시설(운동장, 농구장 등)’(5.4%) 순이었는데 배경변인별로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생활변화는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문항별로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취약계층 청소년은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위(無爲)시간’이 ‘잘사는’ 청소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온라인수업(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에서는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청소년의 21.1%가 자신만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온라인수업(원격수업)에서 과

제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혼자서 해결'하는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코로나-19 종식 후 학교 수업 방식 중 '등교와 온라인수업 병행'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수업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아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덧붙여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성적관리'가 코로나-19 확산 후 어려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가정경제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은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시간관리,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습지도,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온라인 학습 지도와 진로 지도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학습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성남시 청소년은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이름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전혀 모른다' 36.6%, '모른다' 11.8%, '이름만 알고 있다' 26.6%, '알고 있다' 8.7%, '잘 알고 있다' 16.4%로 응답하였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61.9%로 '청소년수련관'의 인지도는 재단과 다른 운영시설의 인지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인지도는 2018년보다 2020년 조사에서 '모른다'로 해석할 수 있는 미인지 응답률이 5.7% 늘어 인지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미인지 응답률은 각각 9.1%, 4.3% 증가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미인지 응답률은 19.2% 줄어 인지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2018년 실태조사와 2020년 본 조사의 설문 문항과 선택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관계로 실제 인지도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의 활용도는 ‘청소년수련관’ 6개소의 이용률이 총 62.5%(1,222건/1,955건)로 나타나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의 이용률 4.8%(93건/1,955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의 이용률 2.2%(43건/1,955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0.6%(598건/1,955건)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시설 이용 내용을 보면, ‘작은도서관’ 활동을 20.8%(612건/2,940건)로 가장 많이 하였고 ‘각종 강좌수업’에도 활발히 참여(17.6%, 518건/2,940건)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중학생은 ‘작은도서관’(초 20.6%, 중 21.6%)과 ‘각종 강좌수업’(초 19.5%, 중 16.4%)을 주로 활용하였고, 고등학생은 ‘작은도서관’(20.6%)과 ‘놀이·문화 공간’(13.8%),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13.7%)을 주로 하고 있었다. 성별, 거주구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 시설 이용 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청소년의 재단 운영시설 활용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는 다수 변인들 중 시설활용 여부에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진 성별 및 자기 장점 인정도, 2개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재단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1.423배 높았고, 자기 장점을 인정하는 수준이 한 수준씩 올라갈수록 재단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이 1.30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책제언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가족 구성의 다양화와 소규모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책임지던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보호 기능이 점차 학교와 사회로 이관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교육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교육생태계 안팎의 변화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대상과 현안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남시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의 경영전략과 전략과제와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제안할 수 있는 주제는 다음 <표 7-2>와 같다.

<표 7-2> 성남시청소년재단 경영전략, 전략과제 및 정책제안

경영전략	전략과제	정책제안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	· 청소년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	·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의식 강화 - 건강한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의식 강화 - 청소년 시민 핵심역량 체계 구축 - 청소년 참여기구 내실화
	·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와 지원 -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 - 다양하고 세분된 학습 지원 · 청소년 특성 및 수요 맞춤 서비스 제공 -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선호도와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플랫폼	·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의식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	·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의식 강화
	·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와 지원 · 청소년 참여기구 내실화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 청소년 특성 및 수요 맞춤 서비스 제공 · 청소년 참여기구 내실화 · 홍보 방법의 다각화
	·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

## 1)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의식 강화

- 건강한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의식 강화
- 청소년 시민 핵심역량 체제 구축
- 청소년 참여기구 내실화

본 연구에서 성남시 청소년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청소년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3.99/5점 만점),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3.24로 평균 이상이였다. 그러나 도·농 간 교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53.1%로 보통 수준 정도로 나타났고,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 5.6%에 불과했다. 따라서 성남시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이슈와 정치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건강한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의식, 정치참여 프로그램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성남시 청소년의 시민의식 강화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실행과제로 설정한 청소년의 시민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청소년 시민 핵심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남시 청소년의 시민 핵심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사회정서활동 등이 어떻게 성남시 청소년의 시민 핵심역량과 연계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



며,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 전후에 청소년 시민 핵심역량을 진단하여 재단과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시민핵심역량 개발에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남시 청소년 시민 핵심역량 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투입, 평가, 환류 체계를 구조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 핵심역량 교육과 함께 현재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행복의회 등 청소년 주도의 참여기구를 내실화하여 지역사회 이슈와 정치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와 보다 공격적인 청소년 관련 이슈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2)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와 지원

-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
- 다양하고 세분화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도시 재개발로 인해 지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역과 교육 구도의 재편이 요구된다. 성남시의 급격한 사회, 문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이전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소년 집단과 다른 시각에서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인지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편부모조손가정, 학교 밖 청소년, 거주지와 학교권역이 분리돼 등하굣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신체적 보호·물리적 지원과 함께 부적응·스트레스 상담, 자아탐색, 진로지도 등 심리적 지원 기능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 성남시 청소년이 주로 어느 상황, 어느 때, 어떤 목적으로 재단과 운영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시설의 이용 요일과 시간대, 이용 목적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운영 요일이나 시간을 취약계층 청소년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휴관일(휴관시간)을 교차(순번)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교육청, 지자체,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만족도, 스트레스·부적응 등)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 도시락이나 쿠폰 제공을 통한 ‘한끼해결’ 정책이나 건강·보건 체험활동, 교류 체험활동, 상담·심리치료 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6.2%) ‘학교 생활에 불만족’(6.3%), ‘현재 행복하지 않음’(6.1%)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비율 자체는 다른 응답에 비해 높지 않으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감은 웰빙의 기본을 이루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생활변화는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한 편’인 청소년은 ‘잘사는 편’인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변화 양상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온라인 수업(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유, 온라인 학습 실태, 학교수업 외 보충학습 등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성적관리’가 코로나-19 확산 후 어려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종식 후 학교 수업 방식은 ‘잘사는 편’인 청소년이 ‘매일 등교’를 선호하는 데 반해 ‘등교와 온라인수업 병행’, ‘온라인수업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로 보아, 가정경제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과 체계적인 학습 지원 체계가 미비한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시간 관리, 온라인수업을 위한 학습지도,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온라인 학습 지도와 진로 지도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학습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청소년 특성 및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선호도와 만족도 제고

본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

서 학교급별, 가정경제사정별로 청소년의 행복도, 스트레스와 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초등학생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 부적응도가 높은 중·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달라야 한다.

예를 들면,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부정 비율이 높았던 ‘환경문제 걱정’(56.1%), ‘자기 장점 인정’(12.6%), ‘자기 유용성’(11.3%) 문항은 불만족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즉,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환경보존 참여활동, 환경 동아리 활동이나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자기 장점’과 ‘자기 유용성’을 낮게 평가한 청소년은 자기탐색, 자기표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리더십 캠프 등 체험활동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반적 스트레스’ 비율을 보면, 긍정(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적응을 잘 하는) 비율이 55.7%, 부정(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비율이 22.7%로 나타나고 있어 ‘스트레스·부적응’ 영역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출’, ‘자퇴’(초등 제외), ‘자해’(초등 제외), ‘자살’을 생각하는 극단적 스트레스·부적응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평균 13.7%로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나타나고,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 진로 불투명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도 상당 수준으로 조사되어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32.0%의 청소년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의 청소년에게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반면 ‘상담·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6.7%에 불과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부적응을

경감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재단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몇 영역에서 거주구별로 유의한 특성이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 영역에서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만족도가 다른 구 거주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자기 장점 인정’, ‘자기 유용성’, ‘안전감’ 등 항목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수정구와 중원구 거주 청소년의 ‘자기 장점 인정’과 ‘자기 유용성’ 항목은 청소년수련관과 재단시설의 ‘건강·보건’, ‘자기(인성)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체험활동과 ‘상담·심리지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안전감’은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노력과 현장체험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업 스트레스’는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원구 거주 청소년이 가장 낮았고, ‘사회적 이슈와 정치 참여의식’은 분당구 거주 청소년이 가장 높고 수정구·중원구 거주 청소년은 다소 낮았다. 즉,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시설 활용도가 가장 높은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문화놀이터, 자립문화공간 등 여가활동 관련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여가활동 장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정구와 중원구뿐 아니라 분당구까지 포함하여 성남시 전체 청소년수련관에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의식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시민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거주구별로 연간 독서량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분당구 거주 청소년의 연간 독서량 평균은 26.3권, 중원구 19.4권, 수정구 17.3권으로

편차가 상당히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독서시간을 따로 두어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있고, 성남시의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연계를 위하여 재단 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설치된 2015년 이래 독서교육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쏟아 왔으나,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영향이 상당한 정도로 작용하여 가정환경에 따른 편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지역별 독서현황 격차는 ‘성남시 관내 도서관 도서대출현황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분당구의 도서관의 평균 대출권수는 중원구와 수정구 도서관의 대출권수에 현격하게 높았고<sup>70)</sup>, 특히 주된 40대 여성 이용자에서 격차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도서 대출이 본인을 위한 것이건 자녀를 위한 것이건, 자녀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독서가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믿을만한 방법이며, 문해력과 논리력,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거주구별 독서량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 활동은 수정구 거주 청소년이 다른 구 거주 청소년에 비해 가장 활발했는데 스스로 조절하는 건전한 온라인 활동과 사생활 보호, 보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건강, 인터넷 편익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이루는 자기주도적 온라인 활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성남시 청소년은 체험활동 중 ‘건강·보건’ 활동에 가

---

70) 성남시 정책기획과(2019), “여러 지표에서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칭하는 수정구, 중원구와 신도심으로 불리는 분당구의 지역 간 독서 양극화는 상당함. … 전체 대출량의 70.6%가 분당구에서 대출되었고, …, (1인당 대출권수) 수정구 1.19, 중원구 1.04, 분당구 3.61, … 대출 건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40대, 10대, 0-9세 집단으로 나타남.”

장 많이 참여(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포함, 92.3%)하고 ‘모험·개척’ 활동에 가장 적게 참여(34.4%)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참여 후 만족도는 ‘건강·보건’ 활동이 7.3%로 높지 않았고, ‘교류’ 활동 만족도가 3.3%로 가장 낮았다. 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진로 탐색과 직업체험’ 활동(28.5%)은 ‘문화·예술’ 활동과 함께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었다.

청소년을 수요자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원하는 내용과 절차로, 청소년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현실적인 문제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면서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최신의 콘텐츠를 보강하거나 이전과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겠으나, 불만족 집단에 대한 타게팅(targeting)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의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소한의 변화로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최선책이며, 다시 말하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콘텐츠, 교보재, 강사 등 체험 활동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수요자인 청소년의 의견과 불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속하게 높일 수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활동 등 미래 준비 활동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학교 내 청소년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하여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활동 기회 제공은 대상 맞춤

형 서비스 차원의 접근과 함께 정서적 안정, 부적응 상담과 같은 청소년 보호와 복지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 4) 홍보 방법의 다각화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 호기심을 유발하여 스스로 알아보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청소년재단의 정책과 과제 홍보뿐 아니라, 청소년행복의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자치기구, 청소년정책제안대회와 청소년토크콘서트 등의 청소년 참여 활동의 성과를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통해 성남시 청소년이 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 추진 정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5)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청소년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거대한 변화가 몰아치면서 재단과 시설을 운영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뉴노



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의 영향은 커졌다. '뉴노멀'의 중요 키워드인 '디지털 전환'은 재단과 시설의 구성원들도 대면 접촉을 통한 정보와 기술, 서비스의 전달 능력 대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와 플랫폼 구축, 활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스에 친숙한 구성원에게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그리 큰 스트레스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대면 위주의 서비스를 수행한 구성원에게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단은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능력 있는 새 구성원을 선발하고 채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존 구성원의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주도적 자기계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 나날이 중요성이 부각되는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과 사회적 가치 추구, 지역사회 공헌 등을 재단의 주요 성장 기준으로 설정하여 구성원의 조직과 개인의 성장 가치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단과 운영시설의 사업과 물적·인적자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측정, 모니터링의 핵심 지표로 도입한다면 재단과 구성원의 업무 효율성과 대내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3. 연구의 한계 및 제안

본 연구는 설문조사 표집이 정확하게 설계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조사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설문 참여 독려에 한계가 있었고 청소년과 관계자 FGI를 진행하지

못해 자료수집과 연구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표집을 설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표집 확대를 통해 보다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을 통제하는 조건에서 연구변수의 변화와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패널을 구축하고,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FGI를 진행한다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았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디지털 리더십<sup>71)</sup>과 의사소통 역량, 협력 능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성남시 청소년의 미래 역량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71) 이철현(2020). [https://spri.kr/posts/view/23111?code=industry\\_trend](https://spri.kr/posts/view/23111?code=industry_trend)에서 인용.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김권현, 유동주, 김형준, 김청택(2015). 설문지의 길이가 응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6(1), 1-48. 한국조사연구학회.
- 김호순, 김정태, 최창욱, 문성호, 김택호(2019). 청소년의 학령별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의 차이 분석. **청소년학연구**, 26(6), 243-274. 한국청소년학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선정연, 김기영, 김진휘(2019). 이상치 탐색을 위한 통계적 방법과 활용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성남시 정책기획과(2019). 2019년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성남시 보고자료. 성남시청소년재단. <https://www.snyouth.or.kr>. 2020/12/1 인출.
- 성남통계. <https://www.seongnam.go.kr/stat>. 2020/12/1 인출.
- 성은모, 김근희(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71, 177-2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심수진(2016).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연구**, 21(3), 25-47. 통계청.
- 양정선, 노자은(2018). **제6차 경기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여성가족부(2020). 2019 청소년백서.
- 염유식, 노자은(2018). **2018 성남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지수 연구: 국제비교 사전 연구 보고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연세대학교 산

학협력단.

-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시범사업 운영과 행복마을 특화모형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해섭, 문호영, 염유식(201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VI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2016).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 **아동복지 연구소 보고서**, 2016(1), 11-42.
- 이지연(2006). 한국 대학생들의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의 질적 분석: 기대하는 자기와 두려운 자기. **상담학연구**, 7(4), 1055-1070. 한국상담학회.
- 이지혜, 최영출(2014).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요인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8(2), 67-84.
- 이철현(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소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동향**. [https://spri.kr/posts/view/23111?code=industry\\_trend](https://spri.kr/posts/view/23111?code=industry_trend). 2020/12/20 인출.
- 이희철, 구교준, 김지원, 박차늬(2020). 대한민국 행복지도: 한국형 행복지수의 개발과 응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1), 25-50. 한국정책분석학회.
- 진미석(2020). COVID-19, 학습생태계 혁명의 방아쇠를 당기다. **핵심역량교육연구**, 5(1), 1-11.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 최창욱, 성은모, 강경균, 송은영, 장성운, 박인경(2016).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성남시청소년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성은모, 남화성, 이선근, 정은옥, 장미희, 김미영(2018).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성남시청소년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성은모, 남화성, 이선근, 정은옥, 장미희, 김미영(2018).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성남시청소년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통계청(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Galesic, M. & Bosnjak, M.(2009). Effects of Questionnaire Length on Participation and Indicators of Response Quality in a Web Survey. *Public Opinion Quarterly*, 73(2), 349-360.

Herzog, A. & Bachman, J.(1981). Effects of Questionnaire Length on Response Quality. *Public Opinion Quarterly*, 45(4), 49-59.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https://read.oecd-ilibrary.org/economics/oecd-guidelines-on-measuring-subjective-well-being\\_9789264191655-en#page5](https://read.oecd-ilibrary.org/economics/oecd-guidelines-on-measuring-subjective-well-being_9789264191655-en#page5). 2020/12/10 인출.



## 부록

1.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설문지





##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위한 종합 서비스 수행 기관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빅데이터 전문 분석업체인 주식회사 커넥텀과 함께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2020년 10월

주식회사 커넥텀 / 연구원: 고동완 책임연구원, 최명수 연구원 /  
031-717-\*\*\*\*, \*\*.\*\*\*\*@datadriven.kr

설문조사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특성 등은 자료 분석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이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주관적 행복도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재 이미지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시 : 나는 무지개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고 꿈이 많으니까.)						
2.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 이미지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시 : 나의 미래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울 테니까.)						
3. 다음은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항	매우그렇다 - 보통 -그렇지않다				
1.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5	4	3	2	1
2.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5	4	3	2	1
3.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5	4	3	2	1
4.	나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5.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6.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7.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가족, 친구 등)	5	4	3	2	1
8.	나는 건강상태가 좋다.	5	4	3	2	1
9.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5	4	3	2	1
10.	나는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5	4	3	2	1
11.	나는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5	4	3	2	1
12.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5	4	3	2	1
13.	내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5	4	3	2	1
14.	내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5	4	3	2	1
15.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5	4	3	2	1

4. 다음은 스트레스와 부적응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항	매우그렇다 - 보통 -그렇지않다				
1. 나는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5	4	3	2	1
2. 학업(숙제나 시험성적)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5	4	3	2	1
3.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4	3	2	1
4.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4	3	2	1
5.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5	4	3	2	1
6. 경제적 여건(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5	4	3	2	1
7. 부모님과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5	4	3	2	1
8.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5	4	3	2	1
9.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5	4	3	2	1
10. 스트레스가 심할 때 대처(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5	4	3	2	1
11. 가출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	4	3	2	1
12. 가출한 경험이 있다.	5	4	3	2	1
<b>추</b> 13.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	4	3	2	1
<b>등</b> 14. 자해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	5	4	3	2	1
<b>계</b> 15. 자해 경험이 있다.	5	4	3	2	1
<b>위</b> 16. 자살하려고 생각해 본적이 있다.	5	4	3	2	1
17.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5	4	3	2	1
18. 나는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싶다.	5	4	3	2	1

◎ 청소년 생활 실태

5. 다음은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기준으로 답변해 주세요.					
문항	매우그렇다 - 보통 -그렇지않다				
1. 나는 여가생활(놀이, 쉬고, 즐길 수 있는)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	5	4	3	2	1
2. 우리 지역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다.	5	4	3	2	1
3. 우리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나 활동프로그램이 풍부하다.	5	4	3	2	1
6. 다음은 선거 참여의식 관련 질문입니다. (초등제외)					
문항	매우그렇다 - 보통 -그렇지않다				
1. 나는 사회적 이슈나 정치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5	4	3	2	1
2. 만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4	3	2	1
3. 나는 만18세가 되면 꼭 투표를 하겠다.	5	4	3	2	1
7. 다음은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7-2까지 초등제외)					
구분	참여경험	있다면 1주일 평균 참여 시간			
나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3시간 이하	② 3-5시간	③ 6-10시간	④ 11-15시간 ⑤ 16시간 이상
7-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상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시급(19년 8,350원, 20년 8,590원)보다 적게 받았다. ② 계약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했거나, 처음 약속과 다른 일을 하였다. ③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④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⑤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⑥ 기타 ( )					
7-2. 나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8.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매우그렇다 - 보통 -그렇지않다				
1. 스마트폰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전자기 힘들 것이다.	5	4	3	2	1
2. 나는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5	4	3	2	1
3.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계획했던 일(공부, 숙제, 학원 등)을 하기 어렵다.	5	4	3	2	1

◎ 청소년 체험활동

9. 여러분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참여경험
1. 건강-보건 활동 (체육-신체단련, 흡연음주 예방, 안전-응급처치, 성교육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 ④ 없다
2. 과학 정보 활동 (모형 및 로봇, 과학 실험, 우주 천체, 과학경진대회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 ④ 없다
3. 교류 활동 (국제 교류 활동, 도시-농촌 간 교류, 다문화 및 국제이해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 ④ 없다
4. 모험 개척 활동 (탐사-등반, 야영, 해양 및 수상훈련, 극기 훈련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 ④ 없다
5. 문화-예술 활동 (문학, 미술, 음악, 춤, 영화-연극, 전통예술, 사진촬영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 ④ 없다
6. 봉사 활동 (일손 돕기, 위문, 돌봄 및 지도, 캠페인, 자선-구호활동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 ④ 없다
7. 직업 체험 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체험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 ④ 없다
8. 환경 보존 활동 (생태체험, 환경탐사, 숲 체험, 환경 캠페인 활동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 ④ 없다
9. 자기(인성) 개발 (자기표현, 자기탐구, 심성수련, 예절교육, 리더십 캠프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 ④ 없다

9-1. 경험했던 활동 중 가장 좋았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위 1~9번 중 참여경험 있는 번호에서 선택)

10.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위 9가지 활동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1) 온라인 활동 (인터넷으로 하는 활동)	( )	( )
2) 오프라인활동 (직접 만나서 하는 활동)	( )	( )

◎ 청소년 독서활동

11. 2020년 1년 동안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몇 권이나 읽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잡지, 만화 제외)

① 종이책 OO권    ② 전자책 OO권    ③ 오디오북 OO권

12. 다음은 독서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매우그렇다 - 보통 -그렇지않다				
1. 나의 독서량(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은 충분하다.	5	4	3	2	1
2.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5	4	3	2	1

◎ 청소년 온라인 활동 (※인터넷으로 하는 활동, 스마트폰으로 하는 활동 등)

13. 다음 온라인 활동을 지난 일주일동안 얼마나 많이 했나요?					
문항	매우많이했다 - 보통 - 거의안했다				
1. 커뮤니케이션·소통 (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카카오톡 등 메신저...)	5	4	3	2	1
2. 자료 및 정보 획득 (뉴스 검색, 상품 및 여행 정보 등)	5	4	3	2	1
3. 여가활동 (음악 감상, 영화, TV 프로그램 시청, 게임 등)	5	4	3	2	1
4. 교육·학습 (동영상 강의, 교육 자료 검색 등)	5	4	3	2	1
5. 크리에이터활동(콘텐츠 생산) (블로그 운영, 유튜브 등 개인방송 진행 등)	5	4	3	2	1
14. 온라인 활동을 하기 위해 다음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사이트/앱)는 무엇인가요? (최대 2개 응답 가능)					
① 네이버 ② 구글 ③ 다음 ④ 유튜브 ⑤ 네이버TV ⑥ V LIVE ⑦ 트위치 ⑧ 아프리카TV ⑨ 넷플릭스 ⑩ 페이스북 ⑪ 인스타그램 ⑫ 트위터 ⑬ 틱톡 ⑭ 밴드 ⑮ 카카오톡 ⑯ 페이스북메신저 ⑰ 인스타그램DM ⑱ 기타 ( )					
15. 다음은 온라인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매우그렇다 - 보통 - 그렇지않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방, 헐담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적이 있다.	5	4	3	2	1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비방, 헐담, 사생활 유출을 당한 경험이 있다.	5	4	3	2	1
3. 나는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 가짜 정보가 많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

16.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여러분의 생활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매우그렇다 - 보통 - 그렇지않다				
1. 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났다.	5	4	3	2	1
2.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식사를 잘 하고 있다.	5	4	3	2	1
3. 나는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5	4	3	2	1
4.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	5	4	3	2	1
5.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5	4	3	2	1
17. 집에서 원격수업(온라인수업)을 위해 자신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있나요?					
① 예(나만 쓰는 기기가 있음)    ② 아니오(가족과 같이 사용하거나, 기기가 없음)					
18. 원격수업(온라인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① 학교 선생님    ② 학원/공부방 선생님    ③ 부모님    ④ 형제/자매    ⑤ 혼자해결 ⑥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    ⑦ 기타( )					
19.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 외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 시간이 늘어났나요?					
① 늘었다    ② 이전과 비슷하다    ③ 줄었다    ④ 하지 않는다.					
20.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 학교 가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① 예전처럼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학교 가는 것과 원격수업(온라인수업)을 섞어서 하는 것이 좋다. ③ 원격수업(온라인수업)만 해도 충분하다. ④ 홈스쿨링이나 대안교육같이 다른 형태로 수업을 해도 된다. ⑤ 특별한 의견이 없다.					
21.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2가지 선택)					
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함    ② 원격수업(온라인수업)으로 인한 성적관리 ③ 생활리듬이 깨짐(시간-건강관리)    ④ 외출하지 못해 답답함 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    ⑥ 진로 탐색의 어려움(진학, 취업 등) ⑦ 나와 주변사람들의 감염 위험    ⑧ 마스크 등 개인방역 관리 ⑨ 막연한 걱정과 스트레스    ⑩ 부모님 등 가족과 자주 싸움 ⑪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불가능    ⑫ 점심식사 해결					
22.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2가지 선택)					
① 불안    ② 두려움    ③ 우울    ④ 짜증    ⑤ 분노    ⑥ 감사 ⑦ 평온    ⑧ 배려    ⑨ 짐작    ⑩ 변화없음    ⑪ 기타( )					
23.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러분은 놀이 및 여가활동을 위해 어디로 가시나요?					
① 본인 집    ② 친구 집    ③ PC방    ④ 노래방    ⑤ 오락실    ⑥ 영화관·극장 ⑦ 놀이터·공원    ⑧ 카페    ⑨ 만화방·만화카페    ⑩ 쇼핑몰 ⑪ 체육시설(운동장, 농구장 등)    ⑫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⑬ 기타( )					



◎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시설

24.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구분	알고 있다 - 이름만알고 있다 - 모른다				
1.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알고 있다.	5	4	3	2	1
2.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알고 있다.	5	4	3	2	1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알고 있다.	5	4	3	2	1
4. (수정, 중원, 분당서현, 분당정자, 분당판교, 분당야탑 중 한 곳이라도) 청소년수련관을 알고 있다.	5	4	3	2	1
5. (양지동, 은행동 중 한 곳이라도) 청소년문화의집을 알고 있다.	5	4	3	2	1
6.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을 알고 있다.	5	4	3	2	1

25.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용해 본 시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가능)

- ① 수정청소년수련관    ② 중원청소년수련관    ③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④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⑥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⑦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⑧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⑩ 이용경험없음

25-1. 이용했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참여경험 없음	참여경험(2019~2020년) 있음
1. 작은도서관 이용		
2.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수업		
3. 문화놀이터, 자립문화공간 등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사용		
4. 어울림마당, 창의과학축제, 통고구마축제 등 행사 참여		
5.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행복의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6.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7. 코끼리, 청마지프로젝트, 목공, 생존수영 등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학교연계활동		
8.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 프로그램		
9. 포레상담,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26.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생겼으면 하는 공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개인정보

문항	답변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태어난 연도	_ _ _ _ 년			
현재 살고 있는 곳	① 수정구	② 중원구	③ 분당구	④ 성남외
나의 작년(2019) 학교 성적은 어땠나요?	좋은 편 - 보통 수준 - 안 좋은 편			
	5 ----- 4 ----- 3 ----- 2 ----- 1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떤 편이라고 생각 하나요?	잘 사는 편 - 보통 수준 - 부족한 편			
	5 ----- 4 ----- 3 ----- 2 ----- 1			
<p>평일(월~금) 방과 후에 우리 집의 어른들(보호자)은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다.</p> <p>① 평일(월~금) 방과 후에 어른들(보호자)이 거의 매일 있다.                  ② 평일(월~금) 방과 후에 어른들(보호자)이 3~4일 정도 있다.                  ③ 평일(월~금) 방과 후에 어른들(보호자)이 1~2일 정도 있다.                  ④ 평일(월~금) 방과 후에 어른들(보호자)이 거의 매일 없다.</p>				
기프트콘 받을 본인 또는 보호자 전화번호	_ _ - _ _ _ - _ _ _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 발행연월일      2020년 11월 인쇄  
                      2020년 12월 발행
  - 발행인            진미석
  - 발행처            성남시청소년재단  
                      (1340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홈페이지 <https://www.snyouth.or.kr>  
                      전화      1577-8088  
                      팩스      031-751-4627
  - 연구기관        주식회사 커넥텀
  - 연구자문        이강주 (한국교육개발원)
  - I S B N          978-89-94517-27-8
-